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7
연구보고 07-R13-6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전재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전문연구원)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교수)
 배기형(세종대학교·교수)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20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20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20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 혜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문 경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동 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양 한 순 (아주대학교) 최 진 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 정 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동국대학교	김 의 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 동 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호남대학교	김 태 기 호남대학교 교수	임 영 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박 일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배 광 웅 (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임 영 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 가 영(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박 지 배(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병 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권 주 영(한국외대 산학협력단 GCC연구원) 김 석 원 (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 최 소 영(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 최 인 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문화센터 연구원) 임 현 숙(러시아 볼로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 센터 한국어강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강 일 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 재 식(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전문연구원)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배 기 형(세종대학교 교수)

연구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의 한계

○ 연구의 필요성

21C 현대사회는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민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족문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민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은 세계화와 국제화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차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인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 확보가 지속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급변화·다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적 차원에서 볼 때, 정보화·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해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지원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민관 합동의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관련 정책은 물론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 정책은 물론 해외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

는 방안 및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민족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목적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우리 한민족 해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유도에 목적이 있다.

둘째, 인적자원 측면에서 해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효율적·효과적·합리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셋째,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한민족 해외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섯째, 해외 청소년들 간에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 제고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여섯째, 총체적으로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통한 국가와 민족적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모색에 목적이 있다.

○ 연구의 한계

첫째, 연구 대상의 다양성이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물론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들도 전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에 분포되어 있어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거주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적자원 분포와 성격 등도 모두 차이가 있고, 각각의 다른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적자원에 관련한 지원이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미국·일본·러시아 등이 중심이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간에도 이주·이민 역사와 인적자원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어 같

은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각 국가별로 그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한 지원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둘째, 연구 범위의 복잡성이다. 연구 주제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은 그 자체의 개념과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은 이들의 성별·세대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직업별·업종별·학력별 등등 그 구분과 분류가 매우 복잡하여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 지역의 한 계층을 상대로 학력별 인적자원으로 제한한다면 연구의 수월성과 결과의 활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분야를 언급하다보니 그 복잡성이 연구의 한계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책 제안과 적용의 한계성이다. 결국 이상의 어려움과 한계는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 정책에서 모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차등화 등 선별적 정책이 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연구 대상이나 주제는 우리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이지만, 이에 관련한 지원과 활용 정책의 제안은 개개의 환경과 실정을 고려한 각각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모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평등하고 대등하게 지원하거나,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현황

○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의 규모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인, 유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세계 160여 개 국에 약 704.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수는 1971년 70만 명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배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의 554만 명에서 매년 평균 2.4%씩 꾸준히 증가하여 1.27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 중 가장 많은 거주국은 중국으로서 전체 재외동포의 39.2%인 276만 명의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북미로서 31.7%(미국 28.6%, 캐나다 3.1%)인 223만 명이, 일본은 12.7%, CIS는 7.6% 등이며, 이들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의 규모는 무려 90% 이상에 이른다. 그 밖에 나머지 10% 내외는 세계 각지의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추이

재외거주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규모 및 구조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해외동포 전체 통계를 이용하며, 추정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통계』 자료상 각 지역별 재외동포의 규모와 직업구조로서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학생, 기타의 비중을 이용하여 각 재외동포 인적자원 중, 학생을 청소년 인적자원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 세부 지역별로 구한 후 합산하였다.

추산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북미(미국, 캐나다), 독립국가연합의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재외동포의 규모는 약 93.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들 지역의 총 재외동포 규모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이 44만 명으로서 46.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미가 40.2%(미국 35.0%, 캐나다 5.2%), 일본 9.0%(85천 명), 독립국가연합 3.9%(37천 명) 등의 순서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각 지역별로 전체 재외동포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비교하면, 북미(미국,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는 전체 한민족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본(13.9%)과 독립국가연합(7.0%)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방향과 전략

○ 기본 방향

첫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활용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거주국 관점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하지 단순히 우리의 활용 목적에만 염두를 두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적응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혈통으로는 우리 민족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국의 국민이며, 거주국은 국내법과 인종·민족정책으로 재외동포의 지위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의 양성·활용 정책은 재외동포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재외동포가 거주 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삶을 제대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민족청소년이 우리 국력의 버팀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정책에서 이들의 활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동포들이 거주 지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다시 모국으로 오는 역 이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셋째, 활용 정책은 ‘先지원 後활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민족청소년이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여 양성이 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넷째,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공유되도록 하는 정신적·물질적 배려도 중요하다. 아무리 부모세대가 외국에서 성공했다라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추진전략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에 있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으로 전방위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을 지원하고, 잘 만들어진 인적자원을 국가의 이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계

확하여, 그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 제고와 인적자원 양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이 추진 전략의 골자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과 활용정책의 추진 전략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을 미래의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세부적인 전략으로서 경제적 측면으로서 재정 지원과 국가간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사회적 측면으로서 교육훈련과 사회통합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적 측면으로서 문화교류의 확대와 청소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측면으로서 국가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이질성을 최대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거주국에서 모범적 시민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착 강화와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유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상호교류와 협력관계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 방안

○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

- ① 체계적·종합적 중장기 계획 수립 : 무엇보다도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재외 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다.

- ②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 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부처간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 ③ 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재외동포재단이 총괄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교민청과 같은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교민청과 같은 중앙 단위의 부처가 설립된다면, 이 기구에서 재외동포 인적자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민청 내에 청소년, 성인, 노인 등과 같이 삶의 생애주기에 기초한 정책 대상별 정책담당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의 공공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 ④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문제는 그 성격 및 업무에서 국내의 인적자원 개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심리·정서적 상태, 모국어 습득 정도 등과 같은 각기 다른 조건으로 인해 획일적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표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역별·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수민족 정책은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담당기관의 인력이 모든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집행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혹은 선발한 인원을 국내외의 대학원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시키거나 이미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신규로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 볼 일이다. 더불어 구체적 양성 커리큘럼, 양성방법, 선발방법 등의 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 ⑤ 필요 재원의 확보 : 예산은 모든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

인 중 하나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 해당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분야의 정책을 일관되게 장·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⑥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적실성 있는 재외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청소년의 기본 정책은 이들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실시해야 한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민족정체성 교육 추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체계 구축

- ① 교육기관의 설립 확대 및 지원 : 해외에서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그리고 교육관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전체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그나마 부족한 재외동포 교육기관들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문제는 각 교육기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의 배치가 부족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국가별로 설치·운영 중인 교육기관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비가 시급하다. 또한 사회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이민 2세가 되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되고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어 이들 2세들에게 한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를 간직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② 교과서 및 기자재의 적기 공급 체계 마련 :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국에 많은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학령기별 청소년들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한 교재가 적기에 개발·공급되지 못한다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매체가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 ③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 교육망을 연결해서 효율적인 청소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만약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비가 어렵다면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활용한 민족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청소년은 ‘유비쿼터스 세대’로 통칭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활용·선호하는 세대이다. 하루의 여가시간 중 대부분을 컴퓨터 활용 및 TV 시청에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청소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④ 재외공관의 한국문화센터 중심지로의 확대 및 청소년전용 북카페 설치 :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문화센터를 각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센터는 문화전파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학자관광객 등의 상호교류 확대에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재외공관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배치도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은 한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문화인력에 대한 전진 배치와 함께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북카페의 설치를 검토해 볼 일이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민족 뿌리 찾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뿌리 찾기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국방문이라는 수단일 것

이다. 고국방문은 이제 특정 국가 그리고 일부 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국가별로 인구 비례에 의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기회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 ⑤ 해외 입양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현재까지 해외입양아는 약 1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성장 이후 친부모 찾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출생 고국에 대한 친밀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입양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 중심의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

- ① 문화·학술교류의 확대 추진 : 우리 사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 해외 거주 청소년들 간에 문화 및 학술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계한민족문화제전, 재외동포예술제, 재외동포문학상 등과 같은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아세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전 세계의 한민족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지자체는 재외동포 거주 지역과 1:1 형태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차원의 문화·학술교류 프로그램 전개를 검토할 과제이다.

- ②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지원 : 기존의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외에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2·3세대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고 모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재외동포 자녀들을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교육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

여 이들이 차세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각 분야별 차세대 지도자들의 모국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이나 연예·체육 분야에서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에서 연수, 유학, 교환방문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수학여행단 유치 및 모국체험 캠프 운영 : 재외동포의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국 방문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미주나 유럽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모국 수학여행단 유치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수학여행 차원보다 모국체험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재외동포 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향에 부합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 한다.

○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ON-OFF 네트워크 구축 운영

- ①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포털사이트의 구축 : 한민족청소년 사이버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즉, 시·공을 초월한 정보 교류,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사이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중소 규모로 산재해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공적인 중심체와 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 이곳을 통해서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한민족청소년간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운영 : 해외 한민족청소년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나, 국외 유학생들은 그들만의 생활에 몰두하고 있고, 그들과 연계를 맺으며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 획득과 교류를 희망하는 국외 입양아들은 그들과의 네트

워킹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교들은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의 공간을 마련하여 빠른 성장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연구 방법 및 접근 틀	9
4. 연구의 한계	11
II.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활용의 논리적 배경	
1. 재외동포의 성격	15
1) 재외동포의 민족적 함의	15
2) 재외동포의 의미	17
3) 해외 각 지역 재외동포의 특성	19
2.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24
1) 청소년의 개념	24
2) 청소년기의 특성	27
3.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31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의의	31
2)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34
4.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와 환경 변화	37
1) 인적자원 활용의 개념	37
2)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	38
3) 국내외 인적자원 활용의 환경 변동	40
5.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45
1)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	45
2) 최근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 정책	47
3)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	49
III.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현황	55

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현황	55
2) 해외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추이	64
2.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현황	65
1) 북미	65
2) 일본	78
3) 중국	84
4) 독립국가연합	94
3.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문제점	101

IV. 해외 한민족청소년 HRD 관련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1. 재외동포 지원정책	105
1) 정부 부처의 지원 정책 개요	105
2) 활용상의 문제점	110
3) 개선 반향	111
2. 재외동포 교육 관련 기관	112
1) 국제교육진흥원	112
2) 재외동포재단	116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8
4) 국립국어연구원	118
5) 한국어세계화재단	119
3. 재외동포 교육기관	120
4. 지원 사업 및 개선 방안	120
1) 현지 능력개발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 관련	120
2) 능력개발 관련 기자재 및 교재 지원 관련	123
3) 능력개발 관련 교사 파견 지원 관련	125
4)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업교육이나 훈련 실시 관련	127
5)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관련	129
6) 원격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관련	131
7) 단기방문 지원 관련	133
8) 어학연수 지원 관련	135
9) 인턴 프로그램 지원 관련	136
10) 기타 지원 방안	137

V.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 방안과 중장기 대책	
1.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143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지원 방안	147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 방안	147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 관련 지원 방안	156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58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지원 방안	158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전략	162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대책	166
VI. 결 론	179
참고 문헌	185
부 록	193

표 목차

<표 II-1> 연도별 성과지표	48
<표 II-2> 투자계획	49
<표 III-1> 재외동포 분포의 지역별 변화	57
<표 III-2> 거주자격별 각 지역의 재외동포 분포	58
<표 III-3> 북미 재외동포 문화교육 현지기관 현황	67
<표 III-4> 주미 재외 동포 주재 교육관 현황	67
<표 III-5> 주미 한국학교 현황	68
<표 III-6> 한국교육원 현황(총괄)	68
<표 III-7> 각 한국교육원 별 현황	69
<표 III-8> 미국·캐나다 한글학교 현황(총괄)	70
<표 III-9> 한국문화교육기관의 학교설립 및 학생특성	72
<표 III-10> 한국문화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학생활동	73
<표 III-11> 한국문화교육기관의 교사 특성	74
<표 III-12> 한국문화교육기관의 교과 과정	75
<표 III-13> 한국문화교육기관의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	76
<표 III-14> 한국문화교육기관의 문화교육 실태	77
<표 III-15> 한국학교창립사	79
<표 III-16> 2003학년도 한국학교 학생수 및 교직원수 일람	80
<표 III-17> 2003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표(경도한국학교)	81
<표 III-18>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인구의 자연증가율	89
<표 III-19> 중국 한글학교현황(2002년 기준)	90
<표 III-20> 하얼빈시 조선족 소학교 통폐합 상황변화	91
<표 III-21> 길림성의 민족별 직업구성	93
<표 III-22> 구주, CIS지역 재외동포 문화교육 현지기관 현황 (총괄)	94
<표 III-23>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교육원 개황	94
<표 III-24> 2000년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교육원 현황	95
<표 III-25> 2001년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교육원 현황	96

<표 III-26> 러시아 지역 한글학교 현황(2002)	97
<표 III-27> 연해주 지역 한글학교 개황-블라디보스톡 중심	98
<표 IV-1> 재외동포 정책관련 주요부처 및 사업내용	108
<표 IV-2> 재외동포교육 및 각종연수 수료자 및 수료자 현황(국제교육진흥원)	109
<표 IV-3>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정 수료자 현황 (1995-2004)	110
<표 IV-4> 재외동포 교육별 기관별 교육역할 분담	119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 접근틀	11
[그림 III-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규모 추이	56
[그림 III-2] 지역별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분포(2007년 기준)	56
[그림 III-3] 각 지역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분포 (2007년 기준)	64
[그림 III-4] 전체 재외동포 중 한민족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 기준)	65
[그림 V-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기본방향	144
[그림 V-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체계도	145
[그림 V-3] 모국과 거주국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연계체계	146
[그림 V-4]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전략	14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및 접근 틀
4. 연구의 한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1C 현대사회는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 대한 세계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세기말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이제는 민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은 우리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인근 국가는 물론 러시아·미국·유럽·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 우리 민족의 삶은 주변국의 이해득실과 국내의 혼란스런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수난의 시대이며, 그 폐해와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 민족은 산업시대의 국제사회에서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면서 새로운 21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과 부존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개방이 촉진되어 세계화·국제화·지구촌화 등으로 일컬어지면서 각 영역에 걸쳐 국경 없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민족은 많은 수가 해외로 이민이나 유학 혹은 취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주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21세기는 기존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변화가 일고 있다. 즉 기술혁신·정보화·지식기반경제·세계화·신자유주의·경영합리화 등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정보화

의 급격한 발전은 모든 부문에서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정보화 되어 지식기반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찾아 무한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식습득과 정보 접촉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 독점이 무너지게 되어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직업의 환경도 변화되어 취업의 다양화 모색 및 인적자원 활용의 세계화 등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직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민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민족문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민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과 연계시키는 것이다.¹⁾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은 세계화와 국제화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차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인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 확보가 지속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급변·다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적 차원에서 볼 때, 정보화·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해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지원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1) 예컨대,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 등이 중화민족으로 대변되는 화교와 유대인 등을 지원·활용하여 자국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연계시키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인도, 아일랜드, 일본 등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내의 인적자원개발은 물론 국외의 동포들에 대한 일반적 교민정책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교민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즉 21세기에 각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세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민족문화와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민족과 국가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국가의 운명과 더불어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의반타의반 해외로 이주해 갔다. 즉 우리 민족은 우리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인근 국가는 물론, 러시아·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의적인 이민과 유학이 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이주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거주 교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녀인 청소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개방이 촉진되고, 세계화·국제화·지구촌화 등으로 각 영역에서 해외 청소년들의 해외 거주 형태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이민이나 유학 등에서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역이민 현상도 나타나는 등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행태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정책의 경향은 동포애와 인적자원 활용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남북한의 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한 지원세력이나 정책 홍보 및 여론 무마 대상으로 간주하여 정략적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물론 이들의 자녀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반정부 및 친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주로 재미·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이념차원의 동포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북방외교 추진을 계기로 재중·CIS 동포가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마저 일부 기업인이나 관광객 등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반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상호 불신감을 가져오는 등 사실상 재외동포 정책의 부재가 지적되곤 하였다(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6).

최근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민관 합동의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관련 정책은 물론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 정책은 물론 해외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

는 방안 및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민족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우리 한민족 해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유도에 목적이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닌 이주의 경험과 이로 인한 아픔을 겪은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과 CIS에 거주하는 소위 중국 조선족과 연해주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일시적이고, 이들의 이주 배경에 비하여 그 지원과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 역시 분단의 역사에서 이들 거주국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배려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주장하는데 기본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둘째, 인적자원 측면에서 해외 청소년 동포에 대한 효율적·효과적·합리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인적자원 차원의 지원보다는 단순한 교류 협력 등에 치우친 감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실익 차원에서 새로운 해외 청소년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수정·보완·시정하여 새로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게 해외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기회 제공 마련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셋째,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산업분야별로 전문 인력의 부족과 고급 기술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IT·ET·ST·NT 등 소위 신기술 인력은 물론 3D 업종의 숙련 기능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해외의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중장기적으로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지역별·계층별·학문별·성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민족 해외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우리 해외 청소년들은 외국에 이민 혹은 유학이나 입양을 통하여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국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다섯째, 해외 청소년들 간에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제고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지식기반 사회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여 우리 민족 청소년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과 활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총체적으로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통한 국가와 민족적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모색에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해외 청소년들에 미약한 정책이 있었고, 현재도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연계적인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활용의 논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인적자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재외동포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의 이주 특성과 성격에 따라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에게도 같은 특성과 영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개념과 성격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개념 규정과 함께 청소년을 포함한 재외동포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 및 논리적 배경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인 용어 및 개념을 정리하였다. 한편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 관련 지원과 활용은 국내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전제하에, 개발 및 활용의 의의와 함께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정부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재외동포 정책과정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관하였다.

둘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 재외동포는 이주의 동기와 시기 등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차원의 특성을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즉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과 활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각 지역별 혹은 계층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였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의 중장기 대책에 앞서 지

원과 활용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첫째, 시간적인 범위는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 등 과거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과 활용 실태를 검토하였다. 한편 지원과 활용 방안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제안하였다. 사실 현재 해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인적자원 차원의 활용은 미미하거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적인 범위는 해외 청소년 중에서 미주와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제한하였다. 현재 우리 해외동포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청소년 인적자원 역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거나 이주의 역사가 긴 지역을 선별하였다. 추후 전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내용의 범위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해외 동포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차원으로 정하였다. 사실 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은 개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발 지원과 활용을 동시에 논의하였다. 한편 연구내용은 주로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문헌 연구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였다. 관련문헌은 주로 국내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터 수집하고, 각 연구진이 분담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물론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재중동포의 경우는 연길지역에서 발간되는 우리 민족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료를 입수하여 참고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현지에서 연구하는 교수 및 학자들의 조연과 관련 문헌의 소개를 통하여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및 관계관 회의 개최와 학회·세미나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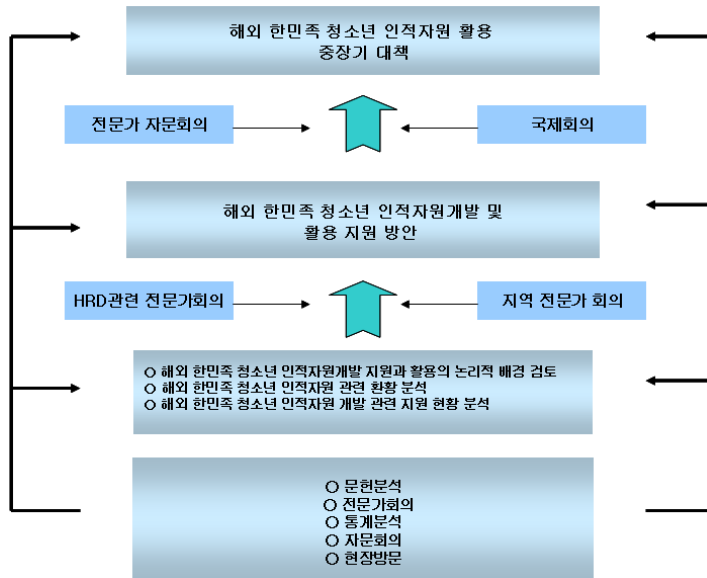
본 연구를 설계하고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데 관계부처의 담당자와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한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와 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에 연구진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최근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문제 등으로 관련 세미나가 많이 개최되고, 여성부 등 관련 부처의 재외동포 초청 행사가 많아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 및 의견 수렴(협동연구진)

본 연구의 특성상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 러시아 등을 협동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자료와 의견을 활용하였다. 또한 협동연구진들이 현지의 교포들과 대화를 통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현지의 교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수요를 생생하게 들려주어 연구의 실증성과 질적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지의 공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의견과 유학생들의 의견은 재외동포 청소년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 및 활용 방안 제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연구의 접근 틀



[그림 I -1] 연구 접근틀

4. 연구의 한계

1) 연구 대상의 다양성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물론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들도 전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에 분포되어 있어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거주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적자원 분포와 성격 등도 모두 차이가 있고, 각각의 다른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적자원에 관련한 지원이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미국·일본·러시아 등이 중심이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간에도 이주·이민 역사와 인적자원 분포 등이 큰 차이가 있어 같

은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각 국가별로 그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한 지원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2) 연구 범위의 복잡성

한편 연구 주제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은 그 자체의 개념과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은 이들의 성별·세대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직업별·업종별·학력별 등등 그 구분과 분류가 매우 복잡하여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 지역의 한 계층을 상대로 학력별 인적자원으로 제한한다면 연구의 수월성과 결과의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분야를 언급하다보니 그 복잡성이 연구의 한계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정책 제안과 적용의 한계성

결국 이상의 어려움과 한계는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 정책에서 모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차등화 등 선별적 정책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연구 대상이나 주제는 우리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이지만, 이에 관련한 지원과 활용 정책의 제안은 각각의 환경과 실정을 고려한 개개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모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평등하고 대등하게 지원하거나,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Ⅱ.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활용의 논리적 배경

1. 재외동포의 성격
2.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3.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4.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와 환경
변화
5.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II.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활용의 논리적 배경

1. 재외동포의 성격

1) 재외동포의 민족적 함의

재외동포로서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론(primordialism)²⁾과 민족을 근대화의 산물로 강조하는 도구론(instrumanealism)³⁾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다민족 국가의 민족개념은 도구론적 입장에 더 가까우며, 이는 우리가 사용해왔던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종⁴⁾(race)이나 종족집단(ethnic group)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 한편 우리의 민족개념은 단일민족에서 출발하며, 민족주의의 유래 또한 외세에 의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려는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반외세·자주·자립·자강을 도모하려는 조국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보다 원초론에 가까우며 종족과 인종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민족에 대한 개념은 생물학적·지역적·문화적 공통성을 모두

2) 원초론은 인종적, 민족적 공동체의 영속성에 주목하면서 민족은 객관적인 기준, 즉 종족·조상·종교·언어·영토·문화유산과 같은 원초적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민족은 국가에 선행하며 공통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에 기초를 둔 실체라고 강조한다.

3) 도구론의 입장에서는 민족은 주관적인 것으로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발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간주하면서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4) 인종은 골격, 피부색, 머리카락의 색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기초로 구분한 인류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종족은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보다 강조하여, 같은 계통의 언어와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킨다(최협이·광규, 1998).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리적·문화적·정치적 경계의 파괴와 재외동포의 확산은 모국민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중첩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는 크게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구분⁵⁾할 수 있다. 이들 재외동포는 국적에 있어서는 외국인이지만 혈통 상 한국인이라는 식의 정체성의 중첩(윤인진, 2000b)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적과 민족의 불일치는 재외동포와 모국민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에 대한 일방적인 애국심의 요청이나 자국민과 동일시하는 모국민의 일방적인 태도로 야기되는 반응은 서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개념과 민족주의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인종·다민족 국가의 민족이론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의 재외동포는 140여 개국에 걸쳐 600만 명 이상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민족성 논의는 이미 과거로부터의 ‘국가=민족’이라는 고정적인 개념을 벗어난 가변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즉 공통의 민족이라는 인식은 전통문화관습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해 선형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이 처한 사회·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민족문화의 요소들 중 특정의 것이 강조되거나 재해석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의 민족성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야기되고 표현되는 상황적 민족성(situational ethnicity)과 동일시되고 있다(윤인진, 2000b).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민족 개념은 혈통이나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하여 이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동일시하는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족의 범위 또한 한반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재외동포를 주요한 행위자로 인정하고 가능한 한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그리고 외국국적 국민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자”를 가리킨다.

한편 이민이란 국민 각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로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자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이동을 가리킨다. (정승우, 1993) 이민의 발생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국의 축출력이 외국의 흡인력보다 강하여 이주한 축출력우위형 이민이고, 다른 하나는 모국의 축출력보다 외국의 흡인력이 강하여 외국으로 이주한 흡인력 위주의 이민이다. 우리나라 이민의 성격은 1905~1945년 초기에는 노동이민·농업이민·망명이민과 같은 축출력우위 이민의 성격을 가지며, 1965년 이후부터의 이민은 주로 자유이민으로 흡인력우위 이민의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재외동포재단, 1997).

또한 이주라 함은 본래 단순한 거주지의 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영주를 목적으로 한 국외로의 거주지 이전을 가리킨다. 이주의 종류는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 구분된다.⁶⁾ 해외이주법에 의하면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2) 재외동포의 의미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재외동포는 그 이주의 역사

6) 해외이주법시행령에 따르면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투자 및 출연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2·9·22, 98·8·18][전문개정 91·12·31].

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들이다. 한국이 일본에게 합방을 당하였을 때 3.1운동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민족은 죽은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3.1운동이 국내의 항전이였다면 국외에서의 보다 치열한 항전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3.1운동 이전 기우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간도지방으로 유출하여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 후세들의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한국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우국지사들이 대거 북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무력으로 일본군에 대항한 것이다. 이러한 일제시대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항일전쟁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다.

둘째,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다. 재외동포가 우리의 자긍심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한인과 일본에 있는 한인들도 있으나,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더 잘 보여준다. 중국에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바로 그 상징물이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해외의 자치주가 된다. 미국 LA에 한인촌이 있다하여도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한인 상인들의 업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거주지도 아니다. 연변에 자치주가 건립된 것은 그곳에 한인들이 많이 살기에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 이외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그 조건의 하나가 항일전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는 우리의 민간외교관이다. 재외동포는 거주지에서 이웃이나 친구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민간 홍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만일 우리 동포가 주재국의 국민에게서 인심을 잃었다면 우리 정부에서 파견된 외교관이 아무리 잘하여도 소용이 없다. 또한 우리 동포들이 거주지 주민의 지지와 환심을 얻었다면 우리 외교관의 사소한 실수는 잘 해결 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팔아주는 외판원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구소련과 중국이다. 88서울 올림픽 이후 한·소 및

7) 우리 동포는 중국에 1개의 자치주, 1개의 자치현, 그리고 30개의 자치향이 있다.

한중간의 수교가 수립되면서 그곳의 동포들이 한국에 몰려왔다. 이들은 한국제품을 많이 선물로 가져가거나 수입하여 갔다. 이것을 본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한국제품 특히 한국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 제품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최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의류도매상은 물론 남미의 의류상이 한국제품을 판매하여 큰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3) 해외 각 지역 재외동포의 특성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세계 각국에 우리의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국제 결혼한 여성과 입양아를 합한다면 2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이주한 초기 이주민이 있다. 이들은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주한 약 7천 명의 후손인데, 이들의 수는 해방이 되었을 때 약 1만 명이라고 한다.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재미동포는 주로 1965년 미국의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새 이민법에 의하여 년 간 한국인 2만 명이 이민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그 수를 못 채웠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민의 수가 증가하여 1975년 이후에는 3만 명의 쿼터를 받게 된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이민자의 학력이 높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동시에 이주한 것이다. 이것을 엘리트 이민 그리고 가족이민이라 한다. 이것이 모두 문제가 되는 조건이었다. 원래 어느 나라나 이민을 수용하는 나라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이민을 수용하는데, 그 결과 수입국은 지식인보다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주하는 이민의 기대치와 미국의 기대치 간에 큰 간격이 생긴다. 한국 이민은 수입국의 낮은 기대치에 맞추어야 한다. 기대치의 하강은 이민으로 하여금 큰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최저 임금의 노동부터 시작하여야 했던 것이다. 미국에

서도 특히 흑인 노동자의 영어는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 알아듣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작은 자영업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자영업은 영어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영어가 서투른 한국인에게 적당하고, 또한 자영업에서는 부인과 자녀까지 모두 일할 수 있어 이것을 가족사업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한인들은 열심히 일하여 세탁소나 좀 큰 식품점, 잡화점 또는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모텔 등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 전역에 이른바 한국인의 민족기업을 이룩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탁소나 잡화상 그리고 흑인 미용자료상 등의 세 가지 기업이다. 물론 이것 이외에 한국인이 미국에서 행하는 사업 내지 기업은 수백 가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 민족 특유의 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소위 민족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한국인은 무슨 일에 종사하건 미국의 중상류의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모범적 소수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질투하여 야기된 것이 1992년의 LA 사건이다. 흑인들은 자기들 보다 훨씬 뒤에 입국한 한국인이 자기들보다 잘사는 것이 흑인들의 질투를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 중남미로 이주한 사람들도 미국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특색이 있는 것은 중남미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10만여 명의 한국인이다. 이들은 영어와 다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갔다. 따라서 이들은 이민 당시 지참금을 제한하였기에 평생 입을 옷을 가져갔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곳에서 노동조차 할 수 없어 남미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옷을 팔아 연명하였다. 자기들이 가져간 옷을 다 판 후에 옷 장사로 진입하여 빈민가 셋방에서 재봉틀을 놓고 옷을 만들어 팔다가 자금을 모아 가게를 내어 소매상을 하였으며, 급기야 상파울로 같은 대도시 의류도매상으로 유명한 유태인 의류도매상과 아랍인 의류도매상의 상가를 점령하여 이제는 한국인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의 의류상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곳에 여러 재벌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1960년 중반에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은 크게 세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남미지역이며, 또 하나는 서

독이다. 현재 유럽에는 교민 4만 명 이상과 입양아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유럽 동포 중 가장 많은 수가 독일에 있으며, 이들은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은 모두 3년 계약으로 이주한 계약 노동자였다. 3년 계약이 끝났으나 간호원은 인기가 좋아 병원에서 모두 남기를 원하여 이들이 독일에 남게 되고, 이들과 결혼한 광산근로자가 남게 되어 오늘의 독일 교민이 된 것이다. 이들은 생활력이 강했는데, 독일에서 계약 기간을 끝내고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바로 미국 이민 초기에 미국에 있는 LA의 한인촌과 시카고의 한인촌을 건설한 사람들이다. 독일 광산 근로자 출신의 교민들은 단결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사람이 식품점이나 식당을 경영하다 실패하면 그가 다시 재기할 때까지 모든 광산 근로자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한편 우리 재외 동포로서 자랑할 사람들은 재일 동포들이다. 우리는 재일 동포라 하면 민단과 조총련으로 분리되어 싸움만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재일 동포는 그들이 말하듯 38선 없는 남북대립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970년 이후에 그들이 전개한 권익투쟁은 정당하고 당당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은 것은 재일 동포 1세대들이다. 그들은 일본인이 차별을 하면 할수록, 또한 강한 편견을 보이면 보일수록 조국에 향하는 애국심으로 이것을 극복하여 갔다. 다만 조국의 분단된 현실이 그들의 정열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일 동포 2세대들은 한국으로의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영주하기 위하여 일본의 차별에 대항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0년 히다지 사건을 계기로 일치단결한 전국의 청년들이 권익운동을 전개하여 하나하나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다. 2세보다 더 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3세대들이다. 이들은 1세나 2세대들이 상상도 못하는 한국으로의 복귀, 즉 한국 문화에 대한 긍지 등을 드높이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인이 무어라고 하든 일본 복판에서 한복을 입고 행진을 하며 한국 악기를 치고 한국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다.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우리 교포 약 40만 명이 거주

하고 있다. 이들은 1937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한인의 후손들이다. 1937년 9월에 시작한 강제이주는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고, 시베리아 횡단의 열악한 열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으며, 하차한 중앙아시아의 반 사막지대에서 겨울을 지내던 중 한인들의 5분의 1이 죽어갔다. 1937년의 강제이주 사건은 근대사 비극의 하나며, 특히 한인들 이민사의 5대 비극의 하나다.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 당한 한인들은 그곳에서 한국어를 박탈당하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적성민족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악 조건에서 한인들은 오로지 전력을 다하여 주검을 극복하고, 나아가 수많은 노동영웅을 배출하여 소련 전체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민족이 된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은 모범적인 농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에 전념하여 2세 3세들이 화이트칼라로 사회적인 상승을 기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화이트칼라란 당 간부, 교수, 의사, 변호사, 과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으로 이런 방면에 진출한 사람이 많다. 구소련에 거주하는 재소한인들은 127개 소수민족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족으로 되었다.

한편 한국인 동포의 진가를 나타낸 지역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이주한 한인들은 해방 전까지 항일운동을 주도하였고, 비록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항일운동을 하였으나 연해주에 한인이 없어진 이후 중국에서만 항일운동을 끈질기게 지속하여 갔다. 해방이 되면서 중국은 바로 국부군과 공산군이 싸우는 해방전쟁에 돌입한다. 4년간 계속된 해방전쟁 당시 중국의 한인들은 많은 희생을 하였고, 그 공로로 연변에 자치주를 획득한다. 중국에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해외에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자치주인 것이다. 중국인은 해방전쟁으로 일단 전쟁을 종식하였지만, 한인들은 다시 한국전쟁, 중국에서 말하는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하여 역시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 이렇게 시달린 중국 동포들은 다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인다. 반 우파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20년간의 지루하고도 힘든 사회개혁에 참가하여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방 민족주의의 시비가 엇갈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동포들은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것도 가장 살기 어려웠었다는 집체주의 시대 55개 소수민족의 모범적인 민족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700만 재외동포들의 과거사는 그 어느 하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들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인 이민사의 5대 비극이 있었으니 그것은 중국의 경신년 대참안, 1020년의 러시아 신한촌 사건과 1937년의 강제이주 사건,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시 한인들의 학살사건, 그리고 1992년 미국 LA 한인촌의 흑인폭동 사건이다.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한국인은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된 것이다.

또한 한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입양아들이다. 초기에 입양된 전쟁고아거나 근년에 입양되는 산업고아거나 한국 어린이가 착하고 순하여 입양부모에게 인기가 있고, 대부분 좋은 집에 입양되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입양아가 많다. 여기서 무엇보다 한국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 고아를 입양한 외국 부모들이며, 또한 우리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⁸⁾에게도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 좋은 집에서 입양하며, 입양 부모들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지체 장애아를 입양하고, 그 아이의 휠체어 활동을 위하여 집안의 문지방을 없앤 부모가 있다.⁹⁾

8) 우리 동포 법에 한국인의 범위를 한국의 피가 4분의 1이 섞인 사람까지로 한다고 하였다. 국제결혼을 한 여자는 순수 한국인이고 그들의 자녀가 한국 피의 2분의 1이 섞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다시 다른 인종과 피를 섞어 출생한 사람이 우리 피의 4분의 1을 가진 사람들이다. 국제 결혼한 한국 여자들이 비록 학력이 낮고 비천한 계층의 출신이라 우리는 국제결혼을 천시하지만,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남편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며, 스위스 등에 국제 결혼한 여자들은 모두 장교와 결혼하여 그 사회에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도 훌륭한 남편이 많고, 특히 근년에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들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국제화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 한국의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한국인을 아끼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의식의 확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제화일 것이다.

9)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인 백틀 여사는 취임식에 언챙이와 소아마비 어린이 둘을 안고 취임연설 단상에 올랐다. 언챙이는 3번 수술을 하였고, 소아마비 어린이는 7번 수술을 하였다. 백틀 여사의 말은 자기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법관으로 지체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를 알려 주는 이 장애 어린이 둘이 모두 한국인 이기에 자기를 깨우쳐주는 한국 어린이에 감사하고, 이런 어린이를 자기에게 보내준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여 힘찬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들을 한국인으로 끌어 않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에 대한 정의나 연령범위는 학자마다 그 주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서,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성장·발달단계 중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시기를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 개개인의 신체적·정서적·지적·정신적·사회적 발달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을 객관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법¹⁰⁾에서도 그 적용내용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그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른도 아이도 아닌 위치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지적 변화과정은 청소년기의 복잡 다양한 과도기적 성격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청소년기를 칭하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 주변인(marginal man), 질풍노동기(a time of storm and stress)등의 용어는 이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이창오 외, 2005).

한편 청소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Jarre, 1998)’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인의 기준을 선정할 것이며 무엇을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난점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정의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결국 청소년이란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청소년기라는 말은 영어로 adolescence이다. 이 말은 라틴어 동사 adolesere에서 나온 말

10)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장 3조 1항. 기타규정은 청소년기본법 : 9~24세(청소년육성차원), 청소년복지지원법 : 9~18세이하(청소년복지차원), 청소년보호법 : 연19세미만(청소년보호차원), 소년법 : 20세미만(청소년교정차원). 한편, 청소년연령 차이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고 행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는 최대한 보장·지원하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제한은 최소화하기 위함.

인데, 그 뜻은 성숙하게 성장하다(to grow into maturity)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기란 어떤 시기(aperiod)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즉, 사회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신념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 청소년기라는 어원적 의미다(Rogers, 1977). 그러나 청소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특징과 속성에 따라 연령적·신체적·심리적·사회·문화적 그리고 철학적 입장에서든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남궁달화, 1985).

연령적인 정의로 Muss(1962)는 청소년기를 “개인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12세부터 20대 초반까지의 기간”이라고 한다. Konopka(1973)는 좀 더 구체적으로 “12세부터 15세까지를 전기, 15세부터 18세까지를 중기 그리고 18세부터 22세까지를 후기 청소년기”라 하고 나이에 따라 청소년을 구분하여 정의한다. 나이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비교적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이는 사회 문화에 크게 관계없이 Berger와 Hackett(1974)가 말하는 바와 같이 “역할배치와 사회 계층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청소년은 사춘기가 시작되고 골격의 성장이 완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사춘기를 맞으면서 생식기능이 가능해지고 신체의 발달이 완속된다. 여자는 월경이 시작되고, 남자는 정액의 몽정이 시작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거의 2년여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Muss(1962)에 의하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출생을 제외하고 이처럼 중요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신체적 변화는 모든 연령층에 걸쳐 일어나지만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청소년기는 자아동일성을 가지려는 기간이다. 청소년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율적인 성인이라고 생각되는 점에 자신의 모든 것, 즉 인격적·직업적·성적·이념적인 것들을 바치려 노력하는 기간이다(Haringhurst, 1973). 한편 Erikson(1963)은 청소년은 “유년 시대와 성인 시대 사이의 심리적 단계요, 본질적으로 ‘지불유예기간(moratorium)’의 마음”이라고 한다. Muss(1962)도 청소년기는 “새로운 적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즉, 한 사회에서 어린이의

행위와 어른의 행위를 구별 지어야 하는 여백상황(Marginal situation)의 기간”이라고 한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그 사회가 한 인간을 더 이상 어린이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아직도 성인으로 대접하지는 않는 시기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Rogers(1977)는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청소년기를 도제기간(apprenticeship)으로 본다. 즉 생물적 성숙과 사회·문화적 성인 사이의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다. 어린이와 성인은 집단 소속성에 대한 명백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은 부분적으로는 어린이 집단에 속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성인 집단에 속하는 등 부모나 교사, 그리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애매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조성되지 않은 사회적·심리적 분야로 가는 사회적인 운동 상태에 있다. 청소년은 사회적 지위와 의무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게 되고, 그러므로 청소년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자기증오의 문제를 가진다는 것이다(송종두, 1981). 신체적 청소년기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이지만, 이처럼 사회·문화적 청소년기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Muss(1962)의 설명은 “원시 사회에서는 사춘기가 지나면 곧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가지는 대접을 받았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개념은 신체적인데 연유된 다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보기”때문이라는 것이다(송종두, 1981)

청소년의 개념은 또한 철학적 입장에서든 정의가 가능하다. 청소년은 사춘기와 성인 사이에 한 개인이 그 자신의 철학에 의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 또는 존재양식(Rogers, 1977)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Block과 Langman(1974)은 “청소년기는 성장하는 개인의 여러 가지 자아 동일성(self-identities)과 철학을 실험하는 기간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의 역사와 현재의 사회 질서를 통합하려는 기간”이라고도 한다. 철학적 입장에서 필자는 “청소년기란 자신의 존재론적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라고 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

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청소년기는 자신의 삶의 근본을 이루는 철학적 가치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남궁 달화, 1980)인 것이다.

2) 청소년기의 특성

그 동안 청소년기의 성격 발달 및 특성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청소년기를 우유부단하고 모순된 정서로 인한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하기도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Bandura의 경우, 기존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청소년의 긴장이 심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Freud는 청소년기를 잠재의식안에 억압된 성적 충동이 다시 일어나며, 성적만족은 이성 파트너를 추구함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Erikson은 청소년기의 당면과제로 정체감 형성과 역할 혼미로 보고 있으며, 직업선택이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단계로 간주한다. Erikson은 아동이 신뢰감·자율성·주도성·근면성을 차례로 획득해 나가면서 자기상(self-image)을 형성해 간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identity의 정립문제가 핵심으로 관여(commitment)와 성취(achievement)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스스로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유예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을 갖는다. 이춘재(1988)는 정체감 위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표류하게 될 경우, 범죄 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를 자아 정체감 정립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과 도전속에 행동 및 심리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하여 불안성이 증가하는 것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Felker(1973)는 청소년기의 심리·생리적 변화에서의 불안 초래의 원인으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내적으로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요구불만은 증가하는데,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능력은 낮다는 것이 불안전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은 아동이나 성인이 아닌 모호한 상태에 있음으로 인한 것이라 지적한다. 한편 독립성의 지향도 청소년기의 특징(이종식, 2001)으로써 K,

Lewin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속 집단이 이동해 가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감정이 강하하고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 속에서 소속의 요구와 승인의 욕구를 충족(나병술, 1988)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소속 집단의 규칙과 성인이 강요하고 기대하는 규칙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 양자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 행동원칙을 찾으려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박세영, 2002).

또한 청소년의 일반적이고 아동, 성인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mm(1977)은 Maslow의 이론적인 인간욕구의 설명을 벗어나서 청소년의 욕구를 자신의 청소년 지도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내어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욕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상대방에게 수용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자신이 흥미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하는 욕구, 서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욕구, 사람들 특히 이성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욕구 또는 어려움 없이 끊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 인정 욕구, 자결권 욕구, 사회적 안전과 연대 욕구, 휴식 욕구, 육체적·심리적 안녕 욕구, 강한 활동적 욕구 등이다.

한편 제2의 탄생기로서의 청소년기는 신체, 정서, 지적 및 사회적 측면의 모든 면에서 아동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신체적인 면에서는 청년전기의 신장기와 청년중기의 충실기를 거치는 가운데 거의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져 성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에 동반하여 정서적인 발달도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이 지닌 예민한 감수성은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 이른바 폭풍의 시기(storm-age)를 맞이한다. 지적인 면에서는 지능의 발달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자아모색에 따르는 자신의 내면생활에 눈을 뜨고 자기성찰과 더불어 이상을 또한 지향한다.

이러한 청년기의 발달상의 일반적 과제로서, ①신체적 발육과 변화에의 적응, ②부모에의 의존 및 감독으로부터 독립, 자주적 생활태도와 생활방식

의 습득, ③동성 및 이성에 대한 적절한 태도의 형성, ④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생관(자아)의 확립, ⑤장래의 생활계획 곧 진로의 확립과 직업적 준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아동기의 주된 생활공간은 가정과 학교며, 그들의 관심도 자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문제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청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추상적·논리적·비판적 사고가 현저하게 발달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년기에는 가정생활 밖의 넓은 세계를 보며 거기에서 살아갈 길을 찾으려 한다. 따라서 생활의 중심은 가정에서 친구들에게로 또는 새로이 전개되는 지적세계로 옮겨져 가게 된다.

이렇듯 지적 세계, 사회적 세계로의 시야의 확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동경, 사회현상에 대한 원리적 파악,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와 이상 등 새로운 전망을 가지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사회적 모순을 간파하고 사회비판적 경향을 띠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반성적 경향을 낳는데, 자아의 정립을 위한 청년기의 행동경향은 다음과 같다(조선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90).

첫째, 심리적 이유 : 대개 12세부터 시작되는 신체적, 성기능의 성숙, 지적 및 사회적 세계의 확대는 지금까지의 안정된 아동기의 생활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들인다. 자신이나 사회를 아동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며, 지금껏 양친에게 의존했던 생활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하고자 한다. 이를 심리적 이유라 하는데, 사람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여 가는데 걸어야 할 일반적인 과정이다. 청년기에는 이처럼 양친의 권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된다. 자기의 판단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경향은 양친이나 교사들의 생활방식에 의문을 품고 사회적 비판을 거침없이 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러한 청년기의 내면적 성장에 무관심하며, 아직도 “아이들”로만 여겨 이들의 견해나 비판에 귀를 기울일 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른바 “제2의 반항기”라 불리우는 반항적 행동이 표출된다.

둘째, 반항 : 자신의 내면적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의식에 예민하게 되는 것이 청년기이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발달에 따라 자기의 독립을 구속하려고 하는 성인, 특히 양친이나 교사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반항적 태도를 지닌다. 청년전기 곧 중학시절에는 가까운 양친에게 반항이 표출되는데, 이때의 반항은 다분히 기분적·허세적인 반항이다. 청년중기 고교시절에 이르면 기본적인 반항은 줄어들고 반항의 이론적 절약성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며, 반항의 대상도 교사나 사회, 정치, 문화와 도덕 등 광범한 것이 된다. 청년기에는 누구나 양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며 양친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한다. 그리고 일단 의견차를 느끼면 곧 강한 반응을 한다. 또한 교사에게도 좋은 교사와 싫은 교사가 분명하여지며 자신들의 성장에 무관한 교사에게는 마음을 닫고 만다. 즉 청년기에 양친을 비판하거나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아버이를 아버지로서 또는 교사를 교사로서만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보려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 비판이 강한 것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평가하려고 하는 기분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결코 그들의 반항이 좋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양친이나 교사 앞에 서면 곧 반항적인 언동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이때의 심리적 경향이다.

셋째, 자기비판과 고민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관습이나 양친, 그리고 교사에 대한 비판적 행동강령은 스스로의 독립 곧 자아의 정립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곧 청년기에는 새로운 자기모색과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기와는 단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와 동일시되었던 양친과 교사에게서 먼저 독립하려는 것이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자기모색을 위해서 이들은 끝없는 공상 곧 백일몽에 빠지거나 혼자 있기(고독)를 좋아한다. 이러한 공상과 독립 속에서 희망과 포부를 지녀 보기도 하며 또한 준엄한 자기비판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혼미와 고뇌와 대결하여 자신의 갈길을 찾으려고 끝없는 고민을 한다. 그러면서도 어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어

른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마음을 털어 놓는다 하여도 자기에게는 중대한 문제인데, 어른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 그 자체가 이들을 지도하는 출발점이며 또한 중착점이다.

넷째, 우정 : 청소년기의 혼미와 방황 그리고 열등감은 공상과 불안감을 낳고 그래서 이들은 고독에 빠진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고독감을 메우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뿐인 것을 알게 된다. 친구와 함께 의지하며, 때로는 비판적 충고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서로의 포부를 털어 놓은 친구를 갈망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친구는 서로가 “인생의 스승”이 된다. 이들과 주고받는 깊은 정 그리고 인격적 결합을 통하여 인간적, 사회적 성장을 하여 간다.

다섯째, 인생의 탐구 : 청년기에 철학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즉 이들에게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하는 문제가 이들이 탐구하는 공통적인 주제이다. 그래서 이들은 문학·예술·사회사상 등에 흥미를 가지고 독서와 토론을 즐겨한다.

3.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의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¹¹⁾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지만,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부각된 것은 1944년 제26차 ILO총회에서다. 총회에서는 노동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즉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은 상품

1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 1~2항).

이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경영·관리·생산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ILO총회 이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적 자원의 발굴 못지않게 인적자원의 보존(conservation of human resources)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인적자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나운기, 1977).

한편 ‘인적자원’¹²⁾이라는 용어에서 ‘자원’이란, 예상되는 미래 용역 및 이익 가치를 유발시키는 유무형의 재화 또는 그 원천을 의미한다(Fisher, 1961). 즉 어떤 대상을 놓고 그것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려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용역도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 가치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자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인간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가적 차원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자본(capital)’의 형태를 띠고, 특정 기업의 차원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는 ‘자산(asset)’의 형태를 띤다. 그런 점에서 인적자원의 개념은 인적 자본의 개념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개념은 인적 자본이나 자산의 개념보다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적자원 혹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는 물적 자원, 재무자원, 정보자원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거론된다. 조직운영이나 국가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들 차원의 수준과 규모, 적기 공급 여부, 체계적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인적자원은 다른 물적자원, 재무자원 그리고 정보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

12) 인적자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동력(labor force), 인력(manpower),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력은 노동활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른바 ‘경제활동인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노동력은 일정기간동안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근로행위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력 역시 노동력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다만 노동력은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총체적 의미가 강한 반면, 인력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고급인력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인적자원이 개인이 습득하고 몸에 밴 능력과 품성을 의미한다면 인적자원개발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인적자원개발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형성하는 교육, 훈련활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인적자원을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활용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인적자원개발은 사람의 능력과 품성을 배양하고 이를 사람의 몸과 마음속에 형성시키는 활동, 즉 인적자원의 양성을 당연히 포함한다. 이러한 양성의 결과가 바로 저장(貯量)으로서의 인간자본(human capital)의 형성을 의미한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은 양성·배분·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동태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량으로서의 인간자본을 포함하게 된다(김환식, 2005).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인적자원 개념에 대하여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력·정보력·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이라고 정의하였고, 인적자원 개발촉진 특별법안에서의 인적자원 개념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갖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에서는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 개념에 대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등 국가¹³⁾와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운택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김태기(2000)는 인적자원을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input)인 지식, 소양(skill)의 축적(stock)이며, 인적자원은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형성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치창출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13) 국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적자원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약 30여 년 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적자원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력’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단순한 노동력 수준의 생산요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은 물론 도덕성과 같은 가치관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적자원은 개개인들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과 품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적자원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신유근, 2000).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은 개인에게 체득된 지식, 기술, 정보 및 건강 등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직업·취업능력, 조직의 생산성, 국가경쟁력제고에 필수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생산적 연계를 촉진하는 규범, 신뢰, 협력방식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건설적 유대·협력관계는 다른 인적자원의 구성요인과 함께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은 사회 제 문화를 이해·향유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윤리적·정신적 성숙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 삶의 여유를 확보하고 조직의 생산적인 문화 풍토를 만들며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유현숙, 2004).

2)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을 우리 조국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라 할 때, 이들의 합목적적 개발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는 이들을 모국과 각 거주지 간 연계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극대화를 통한 상호 발전과 이익의 추구이며, 국가와 우리 한민족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동포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개발 지원의 한 방안(편)으로 중국동포를 통일 역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과 같은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동북삼성과 특히 연변지역의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중국동포들이 장차 통일시대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남북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는 생각

으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자유주의 한국이 사회주의 북한보다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열심히 일하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사회제도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한민족의 동질감과 민족애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발달된 한국의 대기업을 참관할 기회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여, 중국동포들이 귀국하면 북한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기능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를 개발할 인적자원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국의 연변과 러시아의 연해주는 장차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그 가능성 높은 곳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지역을 잘 개발한다면 향후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현재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 인적자원을 잘 개발하고, 한국의 각종 기업과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재중동포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자금을 축적하고 기술을 전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귀국하여 중국에서 동일한 업종을 개척하거나 자금을 활용한 사업주가 되게 한다. 또한 우리가 연변 자치주 정부 또는 길림성 정부와 합작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변을 중국 30개 소수민족의 자치주에서 가장 잘사는 자치주로 만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민족적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러시아의 연해주는 앞으로 한국·중국·일본 등이 협력 혹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곳은 한국적인 고장으로 특히 한인 자치현을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오는 고려인을 이용, 그들이 연고권을 주장하여 토지를 확보하게 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짓게 하며, 한국에서 영농자금을 후원한다면 이곳에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추

진된다면 한국은 러시아와 협조하여 역시 10개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 재일동포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본은 최근에 이르러 한인을 국립대학과 공립기관에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최근까지 일본은 한국인에게 심한 차별을 가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한국인의 채용을 거부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여도 인재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빨리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일본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거주국에 빨리 적응하면서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길을 모색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지만, 조국인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든 한국인 또는 한국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학 전공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거주국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초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자기 자녀를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공부하게 하고, 한국어를 배우지 말고 오로지 영어만 공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녀들은 영어에는 막힘이 없으나 의식에서 확고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말하자면 훌륭한 미국인이 되려면 한국의 후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것을 배워 한국인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들이 입양아를 한국인으로 기르려는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전공자를 양성하는 것은 일본의 예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일본은 일본을 전공한 라이샤워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백만 군을 가진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정치가나 기업가 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한 사람의 학자나 교수라고 볼 수 있다. 이점은 그의 저서나 학문적 소신을 통하여 학계와 정신계에 영향을 주고, 그의 제자를 통하여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가 바로 교육계나 학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는 교포 자녀, 입양아, 국제결혼한 사람의 자녀 또는 순수 미국인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을 발굴하여 그들을 저명한 학자·교수 등 정신적인 분야의 한국 전문가로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4.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와 환경 변화

1) 인적자원 활용의 개념

인적자원 활용(Human Resource Utilization)이란 총인구의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용하게 보다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노동력인구의 활용과 비노동력인구의 활용으로 나누어진다.

비노동력인구의 활용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중요시된다. 특히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연로층 농업국가에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활용에서 중요시 되는 노동력인구의 활용은 노동환경·노동조직문제가 기초가 되며, 산학협동문제까지 내포된다. 여기서 산학협동이란 고도의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진리연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하고, 현실문제에 처해 있는 기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도입하여 질적·양적으로 보다 우수한 기술에 의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동협조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승훈, 1984).

한편 인적자원 활용은 인적자원을 조직내에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승진·평가·부서이동·보상이 포함되며, 인재의 현재능력, 가능성의 파악,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업적관리와 처우, 배치와

rotation, 인사고과 등 주로 인사제도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가리킨다(엑스퍼트컨설팅 hrd용어사전 중).

이를 종합해 보면, 인적자원 활용은 한 국가 혹은 조직이 노동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구성하여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의 의의

한 나라의 장래는 단지 자국 내의 국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 또한 한 나라의 영토는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인적 자원이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세계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는 세계 14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규모는 남북한 총 인구의 8%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지역적으로 이들은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세계 강국들에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동포의 역량을 집결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민족동질성 회복, 모국과의 사회·경제·문화적 교류의 증대, 거주국에서의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서 재외동포를 모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모국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도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부는 1999년 8월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방적인 정책은 한편으로는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생활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인적·물적 차원에서의 모국진출은 재외동포의 투자 여력의 약화, 사회·문화적 차이, 투자환경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다. 더욱이 최근 들어 사회 문제가 된 해외파 연예인들의 병역문제는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중적 시각을 표출한 예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재중동포의 국내 불법 입국·취업·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기업·시민 단체들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많은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역, 이중국적, 인권, 재외동포의 취업기회와 국내노동시장 보호 등과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는 남북한 간의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키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크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국적개념이 아니고 동포애로서 남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일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산가족문제·체육·예술 및 학술교류 등 각 분야에서 통일과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 동포들은 경제적 지원, 기술이전, 사업 활동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선진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중국과 독립국가연합동포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전환으로 인해 겪게 될 시행착오와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내외 인적자원 활용의 환경 변동

(1) 국제 환경의 변화

① 양극구도에서 다극구도로 - 탈냉전화

먼저 국제환경의 변화를 힘의 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희방(1999)의 의견에 따르면 냉전시대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적 측면을 비롯한 비군사적 요소가 힘의 개념¹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종래의 군사력 위주였던 힘 개념이 경제력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안보의 개념 또한 단순한 군사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에서 경제이익의 확보, 환경의 보존, 테러의 방지 등 탈국경성을 지니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양극구도가 다극화되면서 국가의 우위를 나타내고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게 되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국제질서상의 특징은 세력분포의 다변화다. 이는 힘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세력분포가 달리 인식되고, 국제 체제구조상의 변화가 초래됨을 의미하고 있다. 즉 힘의 개념 변화가 기존 국제 정치체제의 양극구조를 다수의 힘의 중심을 가지는 다극구조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선진국-후진국으로 대변되던 국제경제체제의 구조 또한 다층적으로 분화되면서 결국 국제체제는 다변화된 세력분포를 지니게 되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로는 힘의 개념과 세력분포가 다원화함에 따라 국제문제의 해결방식이 주로 다자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대외정책과 관련

14) 세력, 권력, 능력 등으로 통칭될 수 있는 국가의 힘(Power)을 가리킨다(김희방, 1999).

된 세 가지 수준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안보개념의 확대·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협의의 군사안보 개념을 넘어서 광의의 안보개념, 즉 포괄적 안보개념을 채택케 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안보의 추구를 가능케 하는 내외정책체계의 구비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 각국은 세력분포가 다변화됨으로 초래되는 지역질서 재편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 유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유효한 국가 전략 모색을 가능케 하는 정책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 문제의 해결방식으로서의 다자간 협력의 증대추세는 새로운 틀의 모색을 필요로 하며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집행체제로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김희방, 1999). 이러한 다자간 협력의 변화에는 정보·통신 혁명과 생산·유통·자본의 세계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② 동북아와 북한 정세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특징은 다극화, 정치적 화해, 지역경제 통합, 군비증강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쇠퇴와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상호간 관계개선 노력을 이끌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과 중국·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일본, 북한과 미국·일본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계속된 군비증강 노력은 군사대국화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중훈·박호성·이중철, 1999).

한편 동북아시아역 경제 활성화와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정세는 한마디로 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로 인한 체제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외교적 고립은 그 위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관계도 경협과 민간교류분야의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 분야의 협력노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대립과 경쟁의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훈 외, 1999).

③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

국제사회의 변동은 재외동포사회 또한 변화 시켰다. 1990년대에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과거 재외동포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구소련 및 중국지역 거주동포들이 동포정책의 대상으로 새로이 편입되었고, 기존 재외동포 사회 역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기존 재외동포사회의 팽창과 새로운 재외동포의 편입으로 재외동포사회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1999년도에는 재외동포사회 규모가 560여 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재외동포사회의 주류가 이민 1세대에서 2,3세대로 바뀌고 있는 세대교체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수와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민자의 경우 역시 수민국들의 정책변화로 인해 각종 규제가 늘게 되자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¹⁵⁾ 반면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오히려 역이민자들의 수가 늘게 되었다.¹⁶⁾ 최근 IMF로 인해 주춤하기

15) 해외이주자 수는 1980년 37,510명에서 계속 하강세를 보여 1997년 12,484명, 1998년 13,974명, 1999년에는 12,655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99년의 해외이주자 12,655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캐나다로의 이주자가 6,783명(53.6%)으로 가장 많고, 미국 5,360명(42.4%), 호주 302명(2.4%), 뉴질랜드 174명(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취업이주 5,267명(41.6%), 연고이주 3,342명(26.4%), 사업이주 2,582명(20.4%), 국제결혼 1,464명(11.6%)등의 순이고, 형태별 이주현황에서 특기할 점은 1990년대 이후 연고이주가 줄어든 반면, 사업 및 취업이주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즉, 사업 및 취업이주는 1990년의 4,622명(20%)에서 1999년에는 7,849명(62.0%)으로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호혜적 국제협력차원에서 볼 때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16) 역이주자의 추이를 보면, 1980년 1,049명(이주자 대비2.8%), 1986년 2,584명(7%)에서 1989년 6,685명(25%), 1992년 8,892명(50%)으로 역이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다가, 1999년에는 4,799명으로서 그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1999년 역이주자 4,799명의 내역을 보면, 영주귀국자가 3,376명이며,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이민을 포기한 자는 1,423명이었다. 역이주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

는 했으나, 역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으로의 이주자 중, 사업 및 취업이주가 늘고 있는 것은 연고초청 이주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이주형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이주자 중에서도 연고초청이주자가 많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역이주는 적은 것으로 볼 때, 연고초청이주자들보다 사업이주자들이 비교적 쉽게 현지 적응에 성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내 환경의 변화

① 국내 인적자원 활용 환경의 변화

국내 인적자원환경은 지식기반경제라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인적자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생산 가능인구의 성장둔화, 노령화,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⁷⁾ 고용구조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와 기술의 소프트화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내외에 걸친 자유로운 인적자원의 이동을 들 수 있다. 대량의 인적자원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의 국내 노동시장의 여건만을 감안한 교육과 대내적인 인력양성정책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한 해외에서의 교육 및 국제적인 인적자원양성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국제

으로부터의 역이주자가 2,906명(60.6%)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뉴질랜드 393명(8.2%), 캐나다 371명(7.7%), 아르헨티나 153명(3.2%), 기타 976명(20.3%)등이다.

- 17)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로 정의된 생산 가능인구는 70,80년대에 연평균 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01~2005년에는 0.9%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55세 이상의 연령층은 1990년 17.3%에서 1999년 20.6%로 상승한 후 2000년대 중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2010년에는 25.3%로 생산 가능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진학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0년의 석사 입학자는 학사 졸업자의 38%에 이르고, 박사 진학자는 석사 졸업자의 25%에 이르고 있다(김태기, 2000: 25).

경쟁력을 지닌 고급인력을 유치·양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이원영·송종국, 1996).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출연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소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방법이나,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거나 인적자원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해외인력으로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화유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국의 인력을 해외에서 훈련시키는 방법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 교육기관을 통한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교육 제공국가에 의한 국내두뇌 유출의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활용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산업의 중심인 신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개척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공계의 재외동포 과학기술 인력은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립국가 연합, 중국 등지에 널리 퍼져 있으며, 재외 과학자 기술인 연합에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협회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재외 과학자 기술인 연합을 통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원영·송종국, 1996). 1993년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약 4만 명 정도의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급인력의 확보와 개발의 한편으로는 동남아, 연해주 등지에서 유입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를 들 수 있다. 제조업 및 건축 등과 같은 소위 3D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내 노동인력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국내 고용비용의 상승과 함께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사용이 가능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동일한 문화배경을 지니고 있는 재중·재러 동포들을 고용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의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재중·재러 동포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5.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1)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

재외동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점차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1·2공화국 당시에는 건국초기의 혼란과 곧 이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재외동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는 1962년에 제정된 「해외이주법」을 통해서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의 목적은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외이민을 통해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인데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주자의 송출에만 관심을 두었다. 또한 북한과의 경쟁 때문에 재외동포의 親북화·反정부화를 저지하기 위해 해외동포활동의 감시·통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동포정책에 비교해서 남한의 정책은 수세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북한이 재외동포를 그들의 公民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동포정책은 동포를 '다른 나라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적응과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폭은 매우 적었다. 아울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동포들에 국한되었고 중국과 舊소련(현재의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아예 동포로서 인식하지도 않은 지극히 협소하고 소극적인 자세였다. 실례로 1980년에 외무부에서 추계한 재외동포의 수는 불과 147만 명이었던 것이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권의 개방화와 우리정부의 북방정책의 추진을 계기로 “잊혀진 동포”들의 존재가 알려지면

서 총 재외동포수가 500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이 舊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의 동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잊혀졌던 모국과의 관계가 부활하는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이해서 김영삼 정부는 과거에 비해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교포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新교포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제적·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교민청 신설, 이중국적 허용,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권 행사, 재외동포재단 등의 설립 등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는 등 과거 정부에 비교해서 보다 전향적인 동포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 2월에는 전두환 정부시기에 구성되었던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고, 1997년에 10월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민청 신설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반대를 하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 관련 교류행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연 1~2회 만나는 정도의 실효성이 없는 기구나 다름없으며, 재외동포재단 역시 교민청 설치 요구를 희석시키면서 논란이 되었던 이중국적허용 논의 백지화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 관련 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관련 핵심 사업들은 관여하지 못한 채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교류홍보·교육문화 등 부차적 사업만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0월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특별법」을 통해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출입국과 체류, 국내 정치·경제활동에서 차별이 없게끔 하는 보다 전향적인 동포정책을 추진하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명칭된 법안에서는 지구촌 시대의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추어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

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국내의 경제회생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자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재외동포들의 요망사항인 이중국적과 외국 거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국내 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는 불허하고 있고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피선거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의 가장 큰 한계는 재외동포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하였지만 거주국에서의 동포들의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최근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 정책

최근 정부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과 2007년도 실행계획을 통하여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재외동포의 현황분석을 통해 재외동포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재외동포를 풍부한 국외인적자원(7백만 재외동포: 세계 4위 규모)으로 보고 있으나, 재외동포 교육이 국내연계교육 및 모국이해교육에 치중하여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는데 소홀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교육지원 관련 법령 미비, 재외동포교육기관의 재정기반 취약 및 교육여건 열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우수인력으로 적극 개발·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재외동포교육 지원기반 구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의 길을 제고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로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지표는 연도별로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 연도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 연도	'06년 실적 (목표)	'07년	'10년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수	7,558명	7,860명 (‘06년 대비 4% 증가)	8,224명

한편 정책 추진체계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동포교육 계획 수립, 재외동포교육기관 신·증설 추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재외동포 교육관련 교재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제학술대회, 현지교사연수, 문화교육총서 발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외동포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재외동포 교육기관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재외한국학교(3개교)과 한국교육원(1개원) 신설¹⁸⁾, 재외한국학교 교사신축 등 지원(28.5억 원) : 연대·대련(신축), 동경(증축)),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재외동포교육 지원사업 추진(민족정체성 제고를 위한 재외동포 학생 모국방문 추진(1,000명 내외), 한국 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400명),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강화, 재외동포 현지어 교재개발 및 유아교육용 교재 보급 추진), 재외동포 교육기관 및 단체 운영비·사업비 지원(재외동포교육기관 운영비 등 지원 : 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40개원 255억 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 국제학술대회, 현지교사연수, 문화교육총서 발간 등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18) 재외한국학교 : 중국 위해·곤명,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 동남아지역 국가 1개원 (추후결정)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기대 되는 효과는 첫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우수인력으로 개발·활용 가능, 둘째, 재외동포교육 지원기반 구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2007년						‘06년~’10년 총계					
	국고			지방비	민간	계	국고			지방비	민간	계
	예산	기금	소계				예산	기금	소계			
재외동포 교육 강화	310					310	1,724					1,724

※ 기 투자액(‘06년) : 312억 원(국고)

3)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

김영삼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있어서 新교포정책을 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정부와 구별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통해서 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해서 新교포정책은 바람직한 동포정책과는 거리가 먼 감이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포정책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新교포정책의 기본목표는 교포들이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교포의 세계 시민화」를 추구하는 한편, 본국과 거주국간 교류증진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하고 외교상으로도 무난한 안전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포와 모국과의 관계를 정신적·문화적인 측면과 법적·외교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이라는 표현에서는 거주국에서의 동포의 정치·경제·사회적 적응의 문제는 동포들 자신들과 거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위목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듯이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주로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민족교육, 동포들의 자조 노력, 경제활동 분야들이다. 이 분야의 중요성도 물론 간과 할 수 없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거주국에서의 동포들의 법적, 정치적 지위, 차별, 인권유린 등과 달리 한국정부가 거주국 정부와 마찰의 소지가 적은 분야들을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우선 거주국에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는 간직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한국 정부가 뒷짐만 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

그러나 「新교포정책」에서 결정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의 삶 속에서 경제적·사회적인 측면과 법적·정치적인 측면은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것이고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법적·정치적 지위의 향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동포정책에서 동포들의 경제적·사회적 적응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적·정치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예를 들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강제퇴거와 재입국 허가제, 생활보호법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무관심과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한국정부는 거주국과의 외교마찰과 내정간섭이라는 의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의 위와 같은 불이익과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국 정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에

강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거주국의 법적·외교적 마찰을 피해서 우리나라, 거주국, 국제적인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외동포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인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재외동포들이 본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재외한민족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앞으로의 동포정책에 있어서 극복해야 하는 한계는 정신적·문화적인 측면과 법적·정치적인 측면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양 측면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접근하는 소극적이고 저자세적인 방향이 아닌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정치적, 제도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문제점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 재외동포와 본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동포를 남북대결이나 정권유지, 재외동포의 인력과 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해왔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리와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원칙을 명시할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가칭)은 제정하지도 않은 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나 「재외동포재단」 등의 기구를 먼저 설치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학계, 정부 관련부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14개 이상의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동포정책의 수립·기획·행정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처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정책업무의 중복과 분산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재외동포재단은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사업들은 담당하지 못하고 조사·교류행사만을 담당하는 주변적인 위치로 전락하였다. 또한 실무담당자인 재외국민영사국장의 경우 약 일년간 근무를 하거나 재외동포담당 분야의 실무자들이 순환근무를

하는 등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고 일에 대한 동기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다 보니 재외동포 담당자들간에 재외동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不可近 不可遠’이라는 암묵적인 지침이 지켜지고 있어서 재외동포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이 실행되기 어렵게 된다.

네 번째 문제점은 재외동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3년 동포 관련 예산은 257억 원에서 1995년의 268억 원으로 2년간 사이에 4.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1995년 재외동포관련 전체 예산 배정액 중 교육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는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예산의 81%가 일본과 북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재외동포들의 모국과의 보다 긴밀한 사회문화, 경제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소외지역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Ⅲ.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현황
2.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현황
3.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문제점

III.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현황

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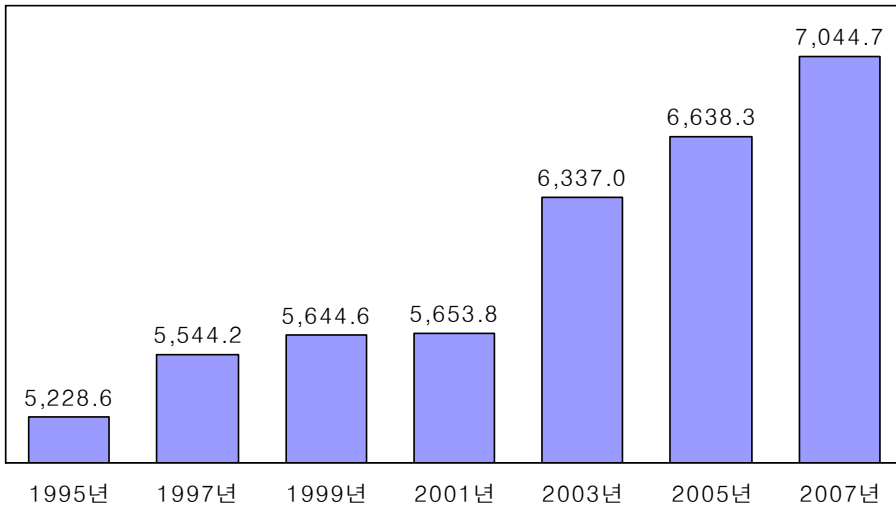
(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의 규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진곤, 1997). 첫째는 한일합방을 전후로 하여 해방 전후까지 고국을 떠난 유민세대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미국 등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를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6·25전쟁 이후 살길을 찾아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등 세계를 무대로 이민한 해방 후 이민 세대들이다. 셋째는 국력 신장과 더불어 한국국민의 해외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I-1]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인, 유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세계 160여 개 국에 약 704.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수는 1971년 70만 명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배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7년의 554만 명에서 매년 평균 2.4%씩 꾸준히 증가하여 1.27배에 이르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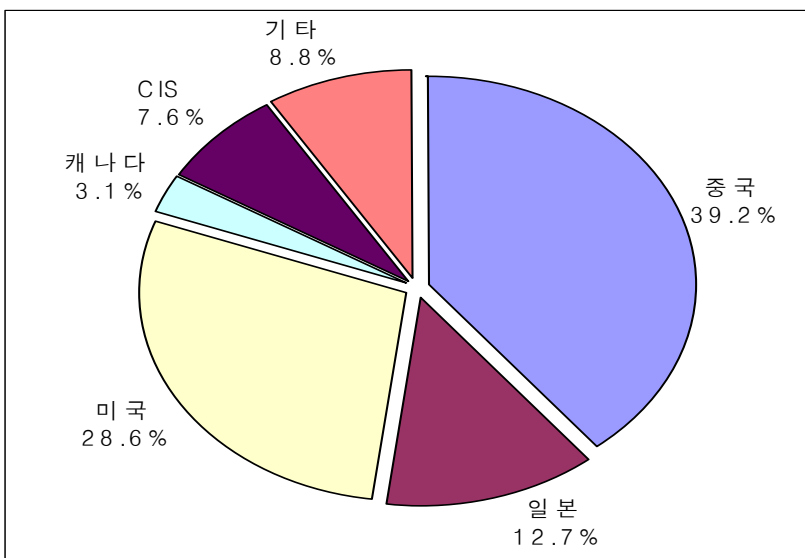
이 중 가장 많은 거주국은 중국으로서 전체 재외동포의 39.2%인 276만 명의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북미로서 31.7%(미국 28.6%, 캐나다 3.1%)인 223만 명이, 일본은 12.7%, CIS는 7.6% 등이며, 이들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의 규모는 무려 90% 이상에 이른다. 그 밖에 나머지 10% 내외는 세계 각지의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단위 : 천명)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각 년도.

[그림 III-1]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규모 추이



자료: 외교통상부(2007), 『재외동포현황』.

[그림 III-2] 지역별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 분포(2007년 기준)

재외동포의 최근 지역별 변화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동포 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에서 보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 거주 동포는 감소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의 경우는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거주 동포수는 감소하고 있고, 그 밖에 구주지역의 경우는 독립국가연합 및 나머지 유럽 지역 거주 동포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I-1> 재외동포 분포의 지역별 변화

(단위: 명, %)

	2003년	2005년	2007년	2003년대비 증가율
총 계	6,336,951	6,638,338	7,044,716	6.12
- 아 주 지 역	3,239,904	3,590,411	4,040,376	12.53
· 일 본	898,714	901,284	893,740	-0.84
· 중 국	2,144,789	2,439,395	2,762,160	13.23
· 기 타	196,401	249,732	384,476	53.96
- 미 주 지 역	2,433,262	2,392,828	2,341,163	-2.16
· 미 국	2,157,498	2,087,496	2,016,911	-3.38
· 캐 나 다	170,121	198,170	216,628	9.31
· 중 남 미	105,643	107,162	107,624	0.43
- 구 주 지 역	652,131	640,276	645,252	0.78
· 독립국가연합	557,732	532,697	533,976	0.24
· 유 럽	94,399	107,579	111,276	3.44
- 중 동 지 역	6,559	6,923	9,440	36.36
- 아프리카지역	5,095	7,900	8,485	7.41

자료: 외교통상부(2007), 『재외동포현황』.

(2) 해외 한민족 인적자원의 분야별 활동

재외동포를 거주자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재외동포 중 53.7%가 그 국가의 시민권자이고, 그 다음으로 23.4%가 영주권자 등 전체 재외동포의 80%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기업들

의 세계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동포의 경우는 18.1%에 해당한다. 각 지역별로 보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중국, 북미, 일본, 구주 및 아주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학생 수는 북미가 가장 많으며, 구주와 중국, 일본에 주로 유학생들이 진출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학생 수는 이들 지역에 선진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중국의 유학생의 수는 현재 새로운 부상국인 중국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진출하여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유학생보다 일반 인구의 해외 진출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건설 및 원유 사업 외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해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 거주자격별 각 지역의 재외동포 분포

(단위: %)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유학생	총계
합계	53.7	23.4	18.1	4.7	100.0
중국	81.5	0.1	16.2	2.2	100.0
일본	0.0	83.1	13.9	2.9	100.0
미국	41.8	35.7	17.8	4.7	100.0
캐나다	46.3	34.9	8.8	10.0	100.0
독립국가연합	92.0	5.5	1.9	0.6	100.0
기타구주지역	11.7	17.7	34.3	36.4	100.0
아주지역	7.9	10.9	63.5	17.6	100.0
중남미지역	18.5	70.0	11.1	0.4	100.0
중동지역	0.9	0.2	96.6	2.3	100.0
아프리카지역	2.0	14.2	76.5	7.3	100.0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재외동포현황』.

한편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의 사회문화 적응과정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보인다.

첫째, 이주 초기에는 다수집단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한인 특유의 근면성과 신분상승에의 강한 욕구로 인해 점차 사회의 중산층으로 진입한다. 비록 재외동포 중 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흑인, 멕시코인, 푸에트리칸처럼 영구적인 하류계층으로 전락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인들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상류층으로 진입한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서 결국 거주국 민족계층체계에서 중간계층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한인들로 하여금 정치, 군사, 공직분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의 소지가 적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는 자영업 또는 자영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자영업 중에서도 현지 주류집단 구성원이 경시하거나 기피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북미의 경우 이민 1세가 자영업을 통해 축적한 물질 자본을 자녀교육에 투자하여 2, 3세들이 전문직, 화이트 칼라직에 종사하여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차세대 동포의 전문직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넷째, 이민역사가 짧은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들은 물론이고 이민역사가 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은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성은 전적으로 한민족의 혈통과 전통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에서의 집단적 경험이 함께 강조되는 이중정체성의 성격을 띤다.

다섯째, 재외동포의 세대가 멀어질수록 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윤인진 외, 2005).

해외동포 중 고급, 전문인력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의학 포함)의 분야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재외동포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의

등장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포 정치인의 수는 적지만, 동포 2~3세 중에는 영향력 있는 실무자가 많다. 예를 들면 Washington D.C. 지역에서 의원 보좌관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약 20여명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인 2세 정치인 후원장학회가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에도 공산당 및 몇몇 고위직에 재외동포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몇몇 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단체를 형성하여 재외동포들의 힘을 키워나가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 특히 재외 동포 중 경제 분야에서 거주국 사회에서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기업인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벤처 사업가들은 재외동포 사업가 중에서 소수이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의 사업규모는 개별적으로는 작지만 합치면 큰 규모가 되고 거주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Korean Grocers' Association(KAGRO)인데 이 조직은 미국 전역의 한인 청과상인들의 연합체로서 공동구매 또는 보이콧 등으로 미국 대기업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재미동포의 경우 과학기술자협회, 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와 같이 지역별 조직뿐만 아니라 전 미주를 망라하는 중앙조직을 갖고 전 미주규모의 정례적 모임도 연다. 과학기술자협회는 회원들 사이의 활발한 정보제공의 장일 뿐 아니라 미국과 본국의 일자리 주선까지 한다. 한편 구소련 체제하에서 우수한 한인동포들이 군사, 과학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데 1989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다.

(3) 지역별 해외 한민족 사회의 특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재외동포들은 세계 160개국에 700만 시대를 열었다. 여기서는 중국, 일본, 북미(미국, 캐나다), 독립국가연합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한민족 사회의 특성을 고찰한다.

① 중국

현재 대부분의 중국동포는 근세기 어려운 경제 상황 또는 일제의 침략을 피해 이주했거나 독립 운동을 목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214만 명의 중국 동포 중 길림성에 11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 흑룡강성에 43만 명, 요령성에 20만 명, 기타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3). 이와 같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는 92%가 예전에 만주라고 불렀던 동북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동포의 경우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시 체류민과 유학생들은 대부분 북경, 상해, 청도 등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장기 체류자 수는 상사 및 투자업체 직원이 약 2만 1천여 명, 유학생이 1만 2천여 명으로 모두 3만 5천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동포 사회에서 또한 중국 거주 동포들과 체류민 간의 이념적 차이도 존재하는데 중국 거주 동포들은 본래 지정학적, 이념적인 이유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의 영향력이 동포사회에 깊숙하게 작용하였으며 한국의 존재를 과소평가해 오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86아시안게임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에 비로소 한국이 알려졌고, 88올림픽 이후에는 많은 동포들이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를 모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 교류증대로 인해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동포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② 일본

오늘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재일동포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강제적 인력 배출에 의하여 이주해 간 사람들과 자녀들이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한국의 토지를 일본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해 토지조사사업(1910~18)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일부가 노동자로서 일본에 유입되었다. 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

발달로 인해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한국에서 많은 노동자를 모집하여 저임금으로 일을 시켰으며,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국민징용령을 내려 한국인을 광산, 군수공장, 군사시설 등의 노동자로, 청년의 경우에는 군인이나 군속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정신대로 강제 징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났을 당시 일본에는 약 230만의 한국인이 체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50년까지 이들의 대부분은 귀국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국을 미루거나 보류한 약 60만 명의 동포들이 일본에 남아 오늘의 재일 한국인 사회의 모체가 된 것이다(김대성, 1996; 정진곤, 1997).

최근 들어 재일동포 사회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족의식의 퇴화현상을 겪고 있다. 즉, 일본에서 출생한 이민 2·3·4세들이 재일동포 성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시마 아쓰코, 1994), 이들은 일본으로의 동화가 심화되어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한 채 재일동포사회를 주도하는 인구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민 세대가 거듭될수록 모국어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한국식 본명을 사용하는 재일동포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일본으로 귀화하려는 의향을 지닌 재일동포의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일동포끼리의 결혼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일본인과의 결혼은 갈수록 늘고 있다. 재일동포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체 혼인 건수의 80%를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생한 혼혈아는 재일동포 전체 출생자의 60%를 넘는다(정진곤, 1997; 시마 아쓰코, 1990). 요컨대, 재일동포들은 민족 정체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일본사회로 서서히 흡수되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북미

1903년 하와이 이주를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인의 미국이민은 1965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을 계기로 크게 늘었으며 2003년 현재 재미동포의 숫자는 210만여 명이다(외교통상부, 2003).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삶은 영주동포들의 경우와 일시 체류민들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주 동포들은 미국 내에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이라는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영주 동포들은 아직도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에서 쉽게 미국화 될 수 없는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이점은 이들의 이민 2,3세대의 삶의 방식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사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상사 주재원 등 일시 체류민들은 미국에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한국인으로 성공하는 삶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도 성공적인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캐나다 지역에 대한 이민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그 수적 규모도 적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에 대한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유학 목적의 일시 체류민 3만여 명을 제외하고도 28만여 명에 달한다. 영주동포의 대다수(97% 이상)는 토론토 및 밴쿠버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이민은 초기 유학생 이민으로 시작하여 제 3국을 통한 경유이민, 가족 초청, 취업 이민, 1980년대의 투자 이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주 동포들은 개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④ 독립국가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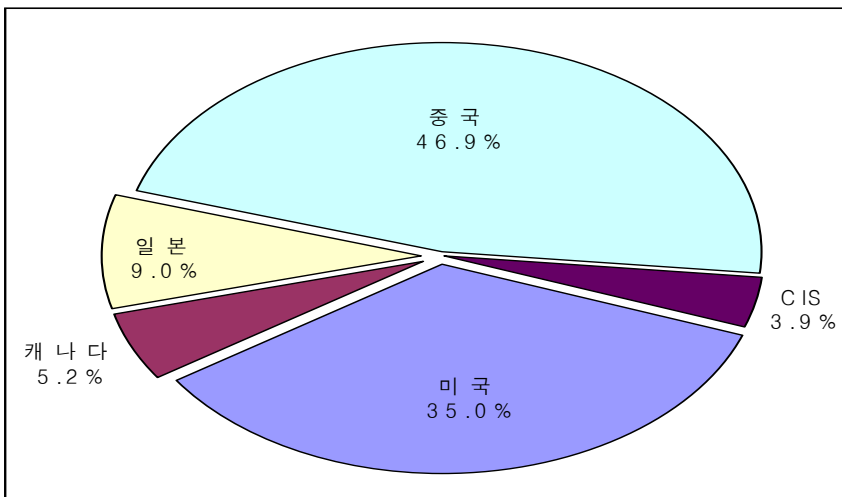
독립국가연합 지역에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53만여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는 러시아 21만 명, 우즈베키스탄 18만 명, 우크라이나 3만 명 등의 동포로 구성되어 있다(외교통상부, 2007).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구한말의 기근과 경제적 꺾박을 피해, 그리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나 사할린의 경우처럼 일제의 징용에 끌려온 동포들이 전쟁이 끝난 후 머무르게 된 경우도 있다(정진곤, 1997).

이주 초기에 동포들은 국경 근처인 포엣뜨,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등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민족분리 정책에 의해 17만 명의 동포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공산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어권으로 통합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의 민족의식이 많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추이

재외거주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규모 및 구조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해외동포 전체 통계를 이용하며, 추정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통계』 자료상 각 지역별 재외동포의 규모와 직업구조로서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학생, 기타의 비중을 이용하여 각 재외동포 인적자원 중 학생을 청소년 인적자원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 세부 지역별로 구한 후 합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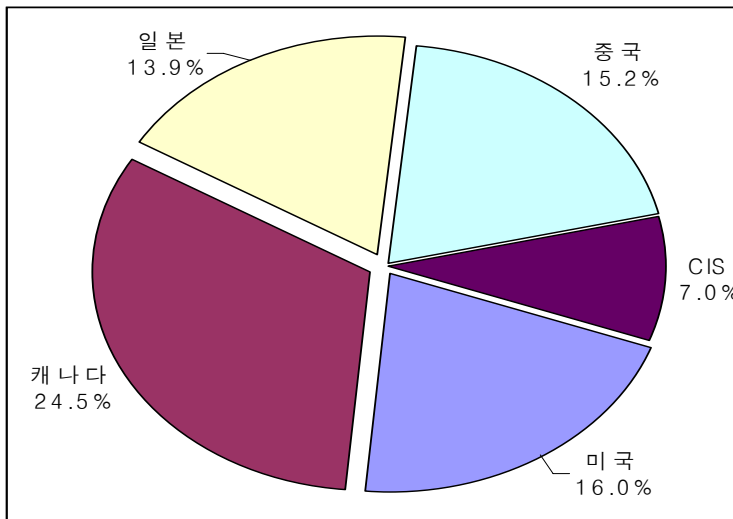
추산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북미(미국, 캐나다), 독립국가연합의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재외동포의 규모는 약 93.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들 지역의 총 재외동포 규모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 III-3]에서 제시하였듯이 중국이 44만 명으로서 46.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미가 40.2% (미국 35.0%, 캐나다 5.2%), 일본 9.0%(85천 명), 독립국가연합 3.9%(37천 명) 등의 순서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다.



자료: 외교통상부(2007), 『재외동포현황』.

[그림 III-3] 지역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분포(2007년 기준)

한편, 각 지역별로 전체 재외동포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비교하면, [그림 III-4]에서 나타나듯이 북미(미국,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는 전체 한민족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본(13.9%)과 독립국가연합(7.0%)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외교통상부(2007), 『재외동포현황』.

[그림 III-4] 전체 재외동포 중 한민족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 기준)

2.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현황

1) 북미

(1) 미국의 청소년 정책¹⁹⁾

미국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사회예방적 차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정책의 주요 목표집

19) 윤철경(2001)의 『미국의 청소년 정책 출처;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 정책』에서 발췌·인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단을 저소득 가정이나 소외집단 청소년으로 두고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은 이들 집단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종전에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행동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들 집단의 성공적인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이 현재의 미국청소년정책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통일된 청소년정책은 아직 없다. 청소년 사업은 유관부처가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관련부처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 주요 부처는 Develop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아동·청소년 정책과다. 청소년 재정은 관련부처에서 확보한 사업예산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는 부처 고유 업무와 유관한 청소년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정부대리기관(agency)을 통해 비영리기관,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배분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실제적 수행은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범죄와 비행방지, 교육, 노숙자지원, 직업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이다. 정부 외 민간재단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기부금도 청소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21세기 지역학습센터사업’, ‘JUMP’, ‘Youth Opportunity Grants’, ‘Youth Build’ 등이다. 이중 ‘21세기 지역학습센터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학습과 활동을 통합한 서비스 지원체계라는 점이다. 미국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개발,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상담(멘토)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고용증진 등이 주요 사업이 되고 있다. 미국청소년사업의 특징은 사업별로 목표 집단과 활동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고 수행방식에 대한 사전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기관·단체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 한민족 인적자원개발 지원 현황

우선 북미 지역의 재외동포 문화교육 현지기관 현황을 보면,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과 이를 총괄하기 위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이 있다. 이 중 한국학교에는 164명의 학생이 있으며, 한글학교는 무려 1,055개의 학교가 있고 이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받는 학생은 6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표 III-3〉 북미 재외동포 문화교육 현지기관 현황(총괄)

(단위: 개수, 명)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육관실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교육원수	파견교원수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기관수	파견공무원수
1	17(-)	164	7	8	2,264.063	1,085	8,758	64,363	2	2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1. 한국교육원의 동포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2001.7)

주미대사관 교육관실의 주요사업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각종 동포교육 교재 공급 지원, 교사 연수회 등 교육행사지원, 재미 한인학교협의회(NAKS) 지원, SAT II 한국어보급 확대 지원, 동포학생 장학금 지원, 한국유학생 지도 등으로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과 LA 총영사관에 6개의 교육관이 있다.

〈표 III-4〉 주미 재외동포 주재 교육관 현황

(단위: 개소)

공관명(소재지)	관할교육기관	
	교육원	학교
주미대사관(워싱턴)	5	-
LA총영사관(로스엔젤레스)	1	1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한국학교는 전일제 정규 학교로써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영주 동포 자녀들의 모국 이해 교육과 일시 체류자녀들의 국내 연계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현지 적응 능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국학교는 거주국내의 정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매일 2~3시간씩 국어, 국사 등 한국학 과목을 수업한다(<표 III-5> 참조).

<표 III-5> 주미 한국 학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학생수(학급수)					교원수			
학교명	계	유	초	중	고	계	파견	현지	강사
라성한국학교	164(10)	37(2)	127(8)	.	.	17	.	11	6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한국교육원은 교육공무원의 파견을 통하여 현지 동포들에게 사회교육적 방법에 의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센터로 교육을 통한 주재국민과의 우호 증진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이복승, 1997).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재외동포 성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며, 주된 업무는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유학생 및 파견교수 관리, 홍보 및 교육정보 자료수집 등이다. 정부에서는 교육공무원 파견, 운영비 지원, 교재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교민이 많은 주요지역에는 주재 교육관을 파견하여 재외국민 교육에 관한 전반적 지원, 조정기능과 주재국과의 교육교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6> 한국교육원 현황(총괄)

(단위: 명, 개소)

지역	교육원 수	파견 공무원 수	한글학교			관할지역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미국	6	7	997	8,109	58,067	2,123,167
캐나다	1	1	88	649	6,296	140,896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표 III-7〉 각 한국교육원 별 현황

(단위: 명, 개소)

교육원명		설립년도	한글학교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동포수
미국	워싱턴 한국교육원	1980	80	639	4,502	117,662
	뉴욕 한국교육원	1981	193	1,674	12,571	519,270
	시카고 한국교육원	1981	120	952	5,657	204,592
	휴스턴 한국교육원	1988	90	712	3,734	117,870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1980	244	2,074	17,034	678,000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1987	73	627	4,927	162,411
	계		888,997	8,109	58,067	2,123,167
캐나다	캐나다 한국교육원	1981	88	649	6,296	140,896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한글학교는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정시제 주말학교로 자발적인 민족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글학교의 설립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재외국민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허용, 1997).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미대사관 교육관실을 통해 미국 내 한글학교의 전국조직인 재미한글학교협의회(NAKS)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3개 지역협의회와 1,000여개 한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표 III-8> 미국·캐나다 한글학교 현황(총괄)

(단위: 명, 개소)

국 별	주재공관명	학교 수	교원 수	학생수														비고
				합계	계		유		초		중		고		성인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미 국	미국 대사관	80	639	4502	99	4403	0	1161	72	1995	15	780	1	396	11	71	pp.60 ~176	
	뉴욕 총영사관	193	1674	12571	600	11971	91	2340	395	6094	102	2251	12	1115	0	171		
	LA 총영사관	244	2073	17042	449	16593	108	3326	194	8675	65	2867	65	1561	17	164	주하 잣나 출장소	
	보스톤 총영사관	26	182	1065	91	974	51	261	30	394	8	197	2	111	0	11	(람, 색이판 제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73	627	4937	324	4613	76	1369	167	1860	36	790	39	501	6	93		
	시애틀 총영사관	94	601	4592	37	4555	10	1057	10	1985	10	849	7	551	0	113		
	시카고 총영사관	120	952	5657	794	4863	277	1104	406	1910	75	1057	28	593	8	199		
	아틀란타 총영사관	53	475	2656	133	2523	47	545	59	959	17	550	6	361	4	108		
	호놀룰루 총영사관	20	166	698	173	525	7	104	13	163	90	75	42	44	21	139		
	휴스턴 총영사관	90	712	3734	421	3313	208	758	166	1342	34	633	12	343	1	237		
계	993	8101	57454	3121	54333	875	12025	1512	25377	452	10049	214	5576	68	1306			
캐 나 다	캐나다 대사관	1	10	208	11	197	3	17	3	37	1	92	4	36	0	15		
	몬트리올 총영사관	1	20	277	6	271	2	45	2	120	1	36	1	41	0	29		
	밴쿠버 총영사관	21	163	1236	1236	0	261	0	549	0	211	0	156	0	59	0		
	토론토 총영사관	65	456	4698	0	4698	0	939	0	2336	0	766	0	657	0	0		
	계	88	649	6419	1253	5166	266	1001	554	2493	213	894	161	734	59	44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 교유기관 현황.

재미한인학교협의회(NAKS)는 미주한인학교 상호간의 유대강화,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역사교육 교재의 개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미국사회의 적응능력 배양, 한국과 미국정부교육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조 추구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의 인격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미주 한인 교육기관이다. 1980년에 창립되었고 NAK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미국 실정에 맞는 동포교육 교재 개발 보급, 각종 교육정보 자료제공, 연례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한글학교 교사연수 및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등이 있다(재미한인학교협의회 팜플렛, 2000).

미주한국학교연합회(KSA)는 미국 내에 소재한 한국학교 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협조를 통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산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비영리단체로서 LA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두고 있다. 1982년에 설립되었던 KS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사연수회,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어린이 글짓기 대회, 해외 교육자 연수회 방문교육, 한국동요 합창대회, 이야기 대회, 한글 경시 대회, SAT II 모의고사 실시 등이 있다(한얼, 2000).

한글학교들의 공통적인 설립목적은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한국계 미국인 혹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학생들의 특성으로는 학생 수는 200~300명, 연령은 만 3~18세까지이고, 한 학급당 10~20명씩 모두 12~1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수준과 연령에 따라 유치반,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며,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10~1:20 정도이다. 학생 지원자의 특성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는 부모의 자녀들로, 대부분 부모의 권유에 의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저 연령층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표 III-9〉 한국문화교육기관의 학교설립 및 학생특성

학교명		LA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Wilshire주말한글학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내 영생한국학교		밴쿠버 한국어학교		밴쿠버 크리스찬 한인학교	
학교설립목적		미합중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의 인재를 양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을 통하여 미국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2세 배출		한국교민 2세들의 모국어 및 전통문화를 전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정체성 있는 코리안 캐나다인으로 세계관을 갖게 함	
설립년도/ 학교교훈		1972년/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자. 모국의 문화를 배우자. 훌륭한 시민이 되자.		1989년/ 한국인의 꿈을 심어주는 신앙의 통산		1973년/ 사랑		2000년/ 실천적 사랑	
학 생 의 특 성	학생수	280명		200명		250-300명		250명	
	구 성	유치반	한 학급 당 20명, 총 14학급(만 4세-17세)	유치부 유년부	한 학급당 10-15명, 총 16학급(만 3세-15세)	유아반 유치반	한 학급 당 20명, 총 12-13학급(만 3세-18세)	유치 부	한 학급 당 10-20명, 총 16학급(만 4세-18세)
		1학년 ~12학 년		초등 중등 고등부		초급 중급 고급반		초급 중급 고급 반	
		성인반	15세 학부모와 국제 결혼한 가정의 요청에 의해 현재 구상중.	특별반	입양아 특별반이 있었으나 현재 등록학생이 없어 중단상태임	특별반	갓 이민 온 학생 한국으로 돌아갈 학생	성인 반	12명, 외국인으로 구성, 주 2회 한국어 교육, 한류열풍, 배우자가 한국인 직장에서 한국어를 요구
				성인반	2세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현재 구상중	성인반	10명, 외국인으로 구성, 배우자가 한국인, 직장에서 한국어를 요구		
	교사:학생 비율	1:20		1:10		1:20		1:20	
	남·여 학생 비율	1:1(저학년의 경우 8:2)		1:1		1:1.5		1:1	
학교 선택 기준		통학거리, 학교인지도		안전한 지역, 훌륭한 시설, 교사수준, 차별화된 교과과정		통학거리, 학교인지도		양질의 교사, 체계적인 운영	
지원자 특성		남학생 및 저연령층의 청소년 증가추세		90%가 기독교인, 중산층 가정		대부분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출석하고 있음		한국어에 관심과 필요를 느끼는 부모의 자녀들로 저학년 학생의 증가 추세	

한글학교의 학사관리는 학기제로 운영된다. 졸업 연한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 5~6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업일시는 4곳 모두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지며 수업시간은 3~5시간이다. 한국어교육과 특별 활동은 3:1비율로 모두 한국어교육을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활동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은 시간제약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인문화행사 혹은 자원봉사로 지역사회참여활동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표 III-10> 한국문화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학생활동

학교명	LA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Wilshire주말한글학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內 영생한국학교	밴쿠버 한국어학교	밴쿠버 크리스찬 한인학교
학기제	년 2학기제로 9~1월, 2월~6월, 총 40주 6년 코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년 2학기제로 9~1월, 2~6월, 총 28주 6년 코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년 3학기제로 9~12월, 1~3월, 4~6월, 총 3주 6~7년 코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년 3학기제로 9~12월, 1~3월, 4~6월, 총 32주 6년 코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수업시간 비교 (한국어:특 활)	한국어 교육 3시간 중 문화교육 포함	4:1 (한국어3, 역사1, 문화특활1)	3:1(한국어3, 문화특활1)	3:1(한국어3, 문화특활1)
시험제도	년 2학기제로 학기말에 테스트 2회	us 2학기제로 매 학기말 종합평가	년 3학기로 매 학기말 테스트 및 학기 중간에 2~3회 테스트	년 3학기로서 3학기 평가실시 결과에 의해 진학반 결정
성적 관리	각 학기말에 성적표 발급	각 학기말에 성적표 발급	학년말 성적표 발급	학년말 성적표 발급
상벌제도	개근상, 트로피 수여	매주 선행자와 행사별 입상자에게 쿠폰발급, 학습태도 불량자에게 경고카드 발급	글짓기, 말 잘하기 대회 트로피 수여	우수상, 선행상, 특기상
장학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우수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적우수자와 목회자 자녀
졸업자격 기준	6~7년 수료한 학생으로 졸업시험에 의해 결정	5년(10학기)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교사의 추천 졸업 논문제출, 교무회의에서 졸업자격 결정	6~7년 수료 후 졸업시험에 60점 이상자	‘세계한국어인증시험’ 합격한 자
학생 회 동	학생회, 동아리 유무	학생회는 불가능, 동아리 활동은 학급별 문화실시 수업으로 대체	동아리 활동은 오후 특별활동으로 대체, 시간상 학생회 활동은 불가능	한국문화 관련 활동은 오후 특별활동으로 대체됨(시간상 학생회, 동아리는 불가능)
지역사회 참여활동	한인문화행사 때 적극적인 참여, 글짓기 대회, 퍼레이드, 태권도, 무용 등	어린이 합창단의 노인 아파트 위로 공연	개인별로 캐나다 학교에서 한국문화소개(의상, 음식), 한인문화행사에 무용, 합창 등으로 참여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또는 한인문화행사에 사물놀이, 합주, 동요대회, 뮤지컬 등으로 참여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이중 언어 사용자, 한국어교육 이수자, 전직 교사, 아동교육 전공자 및 각 분야 전공자를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교사의 성별을 보면 90%이상 여교사로 구성되며 연령대는 30~50대 초반까지이다.

〈표 III-11〉 한국문화교육기관의 교사 특성

학교명		LA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Wilshire주말한글학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內 영생한국학교	밴쿠버 한국어학교	밴쿠버 크리스찬 한인학교
교 사 의 특 성	자격(선 발)기준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 소지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중언어 사용자, 박사학위 소지자, 교사 경력자	영주권, 시민권자 우선(전 교원의 1/3이 비영주권자임), 대학 학사이상 소지자, 아동교육 또는 유아교육 전공자, 특별활동반은 각 분야별 전공자	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중등교원자격 소지자,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이수자, 초등학교 교사 경력자, 특별활동반 지도를 위한 각 분야 별 전공자 및 자격 소지자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전공자, 초등학교교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이수자, 특별활동반은 각 분야 전공자
	교사평가	교육감, 교장의 주도하에 자체 평가	매 학기 교사 자체 평가	학습지도안(3학기용) 제출, 교사 간 자체평가	이사회, 인사위원회, 교장에 의한 평가
	교육연수	년 2회 자체 연수, 남가주 한국학교 연합회 주체 교사 연수, 교장 연수	학교 자체 교사연수, 지역 협의회 교사 연수, 전국 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년 2회 현지 자체 연수	년 4회, 매 학기 초, 여름, 가을, 겨울 현지에 맞는 방법으로 운영
	인적사항	97%가 여교사, 연령은 30대가 주도, 담임제(진로상담, 학생상담)	95%이상 여교사, 20~50(30대가 주축), 이중언어 사용자가 30#정도 각 반 담임제로 학생지도, 학생상담, 한학기 한번 학부모의 상담 후 교감 서면보고	90%이상이 여교사, 연령은 30~50대 초반,이중언어 사용자가 30%, 각 반 담임제(진로상담, 학생상담)	90%이상이 여교사, 연령은 40~50대 초반, 이중언어사용 교사는 성인반 제치, 각 반 담임제(진로상담), 상담교사, 양호교사 및 보조교사(자원봉사자)로 구성.
	교사수	정교사 14명, 보조교사 다수	정교사 18명, 보조교사 10명	정교사 18명, 보조교사 1명	정교사 20명, 보조교사 17명
	교사보수	주당 50불	주당 75불(신입교사 65불)	1시간당 20불	1시간당 20불

한글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선호하는 교과가 한국어교육이며, 한국어교육 외의 교과 내용은 예체능부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별활동의 내용은 예체능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12〉 한국문화교육기관의 교과과정

학교명		LA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Wilshire주말한글학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내 영생한국학교	밴쿠버 한국어학교	밴쿠버 크리스찬 한인학교
교과과정	반편성	학년, 한국어 수준 별로 구분	연령별, 한국어 수준별로 구분	연령별, 한국어 수준별로 구분	연령별, 한국어 수준별로 구분
	교재선정	남가주한국학교용 자체 개발 교과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발행 제외동포용 교과서 NAKS 발행 교과서, 여러 대학 발행 한국어 교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제외동포용 교과서, 자체 개발 교과서 동시 사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제외동포용교과서, 교사의 부교재
	한국어 교육 외의 교과 내용	태권도, 사물놀이(시간제약상 다양하게 못이루어지고 있음)	한국무용, 음악, 민속놀이, 음식, 예절, 종이접기, 공예품 신문 만들기	한국무용, 태권도, 농구, 축구, 미술, 합주 등으로 구성	국악, 무용, 사물놀이, 태권도, 미술, 농구, 합주, 바이올린 등으로 구성
	생활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3시간 안에 포함(교사의 재량으로 절기에 따라 소개하는 정도)	음식, 예절, 민속놀이 등의 수업은 5교시 문화특활 시간을 통하여 절기와 시기에 맞게 한 학기 3-4회 정도(1년에 10시간 미만) 이루어짐	예절, 의례, 전통음식, 차 등의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예절, 의례, 음식 교육은 절기에 따라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
	선호하는 교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역사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특성화 교육	시간 제약 상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	특별활동 시간으로 대체	특별활동 수업 운영	전 학생이 특별반 활동에 가입, 재량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필수 과목	한국어 위주,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역사, 문화 교육	한국어 위주, 문화교육	한국어 위주, 문화교육
	과제물 부과	저학년에게는 주어지지만 고학년은 피하고 있다	매 주 반별로 과제물 부과 학부모 확인	시험, 출석, 수업태도	시험, 평상시 태도, 출석
	학업 성취 평가 방법	시험, 출석, 수업태도	매주 퀴즈, 매 학기 종합평가	시험, 출석, 수업태도	시험, 평상시 태도, 출석
	교과운영 특별활동	교내 행사	미술대회, 동요대회, 글짓기, 이야기 대회	봄학기: 동화구연대회, 동요부르기, 학예발표회 가을학기: 글짓기, 운동회(소풍), 단어왕대회	말하기, 글짓기, 미술대회, 연극, 합창, 전래동화구연
		교외 행사	미술포럼, 식물원 견학, 한인행사, 현지문화행사 등 참여	한인회 행사 혹은 한국문화 행사에 다수 초청	학예회, 성경암송대회, 글짓기대회(한국일보 백일장에 의무적으로 참가)
		방학 특강 및 졸업생 활동	써머코TM 실시(4-8주), 오전 9-12시까지 매일제 운영, 졸업생 활용 불가	여름학교 개최(한국어, 영어, 수학, 각종 특별활동), 성공한 2세 졸업생초청 특강 실시	한인의 날 참가 시 사물놀이, 오케스트라합주, 뮤지컬 공연, 동요대회 등
		학생, 부모 연계	거의 못하고 있음	거의 못하고 있음	없음, 졸업생 활용 없음
	학생, 부모 연계	거의 못하고 있음	거의 못하고 있음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강조, 지원요망	아직은 없음, 지원 요망

한글학교의 운영은 학생 1인당 300~500\$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이사회가 구성되어 후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학부모회의 봉사로 운영지원을 보조받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시설은 교회 내 한글학교의 경우 교회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 한글학교의 경우 현지 학교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교육시설과 환경은 제한적이고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건이다.

〈표 III-13〉 한국문화교육기관의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

학교명		LA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Wilshire주말한글학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내 영생한국학교	밴쿠버 한국어학교	밴쿠버 크리스찬 한인학교
학 교	수업료	1년에 400불	1년에 500불	1년에 300불	1년에 300불
	후원회	이사회 23명(기업인, 의사, 전문교육인, 법조인)	이사회 30여명(교회 장로님, 교육에 뜻이 있는 학부모)	이사회 20명, 고문 5명(전직 교육행정가, 교장퇴임자로 구성)	이사 6명으로 구성,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각 교회 장로, 지역 유지로 구성
	학교운영 위원회 및 학부모회	학부모회에서 교양프로그램 진행(교양, 교육, 건강, 미용, 취미, 간식제공, 기금모금 행사)	학부모회는 재정지원보다 매주 학교에 출석하여 운영지원으로 보조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바자회 등의 수입금으로 지원	학부모회에서 매점 운영으로 봉사
	자체평가 위원회	12개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감 1인과 교장 12인의 연합평가제도	각 그룹 팀장을 중심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연합평가 제도	고문, 이사회, 교사들의 연합평가제도	이사회 주최 연 1회 평가회 겸 송별회로 운영
	교장의 권한과 주요역할	교육감 관리 하에 교장이 운영	교사임용, 학교행사 결정	이사회와 의논해서 교장이 결정	이사회회의 중지를 얻어 교장의 재량으로 운영
	학교시설	남가주초등학교 시설(본교)을 이용, (대지 1300평, 건물 533평) 운동장, 주차장, 교실 11개, 특별활동실 5개, 사무실, 회의실 6개, 강당, 도서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오버헤드프로젝트, 슬라이드 TV 등이 있고 차량운행은 없다	본 교회건물 이용, 교실, 사무실, 도서실 등, 특별활동실로는 조리실, 강당, 체육관 사용, 보육기자재로는 컴퓨터, TV/VTR Set등이고 차량은 정규 학교버스 4대 운영(기사 채용)	캐나다 학교 임대(교실 20개) 사용, 특별활동실은 복사실, 체육관 사용, 교육기자재로는 복사기, 슬라이드, 오버헤드프로젝트, 컴퓨터 등이 있고 차량운행은 없다	캐나다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교실 20개), 특별활동실로는 체육관만 이용, 평상시에 사용하는 사무실과 교사들의 회의 공간 주 중 프로그램인 성인반을 위한 공간(갤러리 겸 전시회장)이 별도로 운영, 교육기자재로는 슬라이드, 복사기, 엽프, 오버헤드프로젝트 등이 있고 차량 운행은 없다

한글학교에 대한 교민사회의 관심여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두 학교는 한글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은 어려운 형편이다. 부모들의 바쁜 이민생활과 학생들의 과다한 학업수행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한글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캐나다의 두 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들이 관심과 열성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표 III-14〉 한국문화교육기관의 문화교육 실태

학교명	LA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Wilshire주말한글학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내 영생한국학교	밴쿠버 한국어학교	밴쿠버 크리스찬 한인학교
한글학교에 대한 교민사회의 관심추이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 사고로 관심을 갖지만 생활여건 상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은 어려운 형편이다	한글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저감하면서도 바쁜 이민생활과 과다한 학교공부로 인해 한글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열성적인 성의도 보이고 있다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국제문화행사에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보다 한국적인 소박하고 순수한 우리 문화의 전수를 요구함	한국어 교육의 차원을 넘어 이민생활 속에서 잊혀져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생활에서 한국적인 예절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특별활동은 주 1회 60분으로 여러 분야가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정초 등 한국의 명절에 한해 한국의 전통음식인 추석의 송편, 설의 떡국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다.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한국문화의 내용이 요구된다	캐나다는 다문화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주의정책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는데 있어 제케나다 한국인이 출신수범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확립은 물론 나아가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국의 고유한 고급문화가 캐나다 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은 높이도록 하는 데 있어 제케나다 교포들이 주가 되어 후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절기위주의 '이벤트적 행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요망	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교재 개발이 시급, CD Rom 혹은 비디오 제작을 통한 접근방법이 절실히 요구됨	정부의 자금지원 대책이 시급 한국문화원의 설치 요구	한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계적인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	남가주한국학원은 비영리재단 법인체로 남가주 한국정규 초등학교와 12개의 지역 주말 한국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남가주한국학교는 LA지역에 '한국 문화원'과 '교육원' 등을 이용하여 항상 필요한 자료와 교육연수 등을 지원받고 있는 이점이 있다			2002년 7월 개원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센터(8세-대학생, 연수생 포함 이용)가 청소년 상담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각종 교육, 문화, 예술, 교양, 체육, 유학생과 방문자들의 안전생활등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이민사회의 특성과도 관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은 캐나다에서 보다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고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이민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후속세대의 한국 문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가 한글학교 참여 저조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일본

(1) 일본의 청소년 정책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비행방지와 범죄 청소년의 보호, 교정,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위주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 전체의 건전한 육성환경 정비라는 육성위주의 청소년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본의 청소년행정은 2001년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크게 변화되었다. 종전에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내각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내각부는 행정 각부의 시책을 통일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행정각부 시책의 사후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고 각 관계부처는 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 청소년행정이 잘 발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와 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청소년관련업무가 할당되어 있다.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관계 주관 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내각부 및 관계부처 시책 및 사업설명 등을 실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조직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 청소년대책위원회에서 내각부로 청소년행정체계 변화는 외형적 규모는 커진 반면 종전과 같은 응집력과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청소년 부문의 독자적인 입법은 없으며, 소년법,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산되

어 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국민운동 등 홍보·계몽활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주요 청소년사업으로는 전국 코도모플랜이 있다. 코도모플랜은 2002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청소년육성환경을 정비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흥시키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3개년 전략이 실시되고 있다. 학습체험, 자원봉사, 국제교류, 정보화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일본의 청소년정책현안은 ① 가정,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 연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환경의 구축, ② 비행 등 문제행동의 징후 조기발견과 상담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③ 관계부처에 흩어져있는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청소년 육성의 기본이념과 정책추진방침을 정하는 청소년플랜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 학교 민족교육 현황

① 민족학교 교육

재일한국인 사회의 민족교육의 근간은 민족학교교육에 있다. <표 I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오사카), 건국(오사카)이 1946년 창립이고 교오토(경도)가 47년, 동경이 54년 창립이다(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1990).

<표 III-15> 한국학교창립사

급별 학교	동경학교	경도학교	금강학교	건국학교
설립모체 (결성년월일)	민단중앙본부 (1946. 10. 3)	경도조선인교육회 (1946. 9. 20)	서성조선인교육회 (1946. 2)	백두동지회 (1945. 9. 24)
창립당시교명	동경한국학교(초 등부·중등부)	경도조선중학교	서성조선인학교	건국공업학교 건국고등여학교
유아원			1950. 3. 14	1980. 4. 1
소학교	1954. 4. 26		1946. 4. 5	1949. 4. 1
중학교	1954. 4. 26	1947. 5. 13	1954. 4. 8	1946. 6. 3

금강과 건국은 「일제교」(정규교)이고, 동경과 경도는 「각종학교」이다. 이외에 동경, 경도, 금강의 3교는 한국문교부장관의 인가교(정규교)이다.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경학교는 본국 출신학생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재일」을 위한 민족학교라기 보다는 Korean School의 성격을 농후하게 나타내고 있다. 4개교 중 유일하게 학생수가 증가하며 재정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편이다. 금강이 52.7%, 건국이 29.6%를 나타내고 있어 「재일」의 민족학교 구실을 못하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표 III-16> 2003학년도 한국학교 학생수 및 교직원수 일람

(단위: 명, %)

		유아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합계			본국 출신 학생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건국	학생	28	20	48	87	75	62	53	60	113	48	57	105	216	212	428	29.6
	교직원													37	32	69	
금강	학생	22	19	41	84	102	186	20	27	47	22	23	45	148	171	319	52.7
	교직원													23	20	43	
동경	학생				227	190	417	103	102	205	116	116	232	446	408	854	77.0
	교직원															69	
경도	학생							21	22	43	46	18	64	67	40	107	7.5
	교직원													15	9	24	
합계	학생	50	39	89	398	367	765	197	211	408	232	214	446	877	831	1708	41.7
	교직원															205	

한국학교의 교육목표는 각교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인의 자각과 자량이다. 둘째는 현지사회의 적응 능력이다. 셋째는 타인과 공생하는 국제인이다.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표 III-17>과 같이 편성, 실시하고 있다.

〈표 III-17〉 2003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표 (경도한국학교)

구분		1년	2년	3년
국민 교사	국어	3	3	3
	국사		1(지·역)	
	재일한국인사	1		
사회		4(지리)	4(역사)	3(공민)
수학		4	4	5
이과		3	4	4
음악		2	1	1
미술		2	1	1
보건·체육		2(체육)	3(체육2, 보건1)	3(체육2, 보건1)
기술·가정		2(가정)	1(기술·컴퓨터)	1(기술·컴퓨터)
영어		4	4	5
일본어		4	4	4
총합		1	1	1
HR			1	1
합계		32	32	32

주: 1) 국어와 영어·수학(2~3학년)은 능력별로 분반수업 실시

2) 동경과 경도학교는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학진학자격이 없음.

② 정시제 한국학원

저녁·야간을 이용하여 재일동포자녀와 성인(일본인 포함)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하는 상설의 학원으로 일본서국의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이다(민단중앙본부전서).

경도 신명학교(경도교회)가 가장 오래되고 애지학원이 가장 활발하고 많은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 요리, 꽃꽂이 등이다.

③ 일본공교육속의 민족교육

재일동포자녀의 85% 이상이 일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민족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가) 민족학급·국제학급 설치

일본학교내에 민족학급이나 국제학급을 설치하고 과외수업으로 민족교육(한국어·역사·문화)을 실시한다. 동포다주지역인 관서지방, 특히 대판지방에 많다. 현재 6지방(대판·경도·북강·신대천·애지·병고)에 소학교 123교, 중학교 84교, 고교 12교가 있지만,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곳은 18개소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운영한다(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2000년). 과외수업(한국어, 한국문화학습)은 「91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외상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가 서명·교환되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지방자치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과외수업이 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배려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각지에서 민족학급이나 국제학급이 증설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 외국인교육지침 원칙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교육위원회에 「외국인 및 재일한국·조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지침」을 원칙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1970년의 대개신교육위원회를 시초로 80년대에 근기지방의 2부현, 11시와 관동지방 2시, 중국지방 1현이 원칙, 90년대에 51의 도도부현, 시구촌이 원칙하고 있다.

(다) 일본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교교는 95년에 54개교, 99년에는 171개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 민족사회교육

① 우리말 보급사업

(가) 국어강습

63년부터 설치된 한국 교육관이 중심이 되어 민단지방본부와 협력하여 한국어교육을 통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 38지방, 135개소에서 5,251명이 수강함. 그 중 3,352명은 일본인이었다. 교사는 파견교사와 모국수학자, 한국유학생 등 약 211명이다.

(나) 한국어능력고시

1996년에는 (재)한국교육재단이 주최하여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9개소에서 2000년에는 12개소에서 실시되고 응시자도 매년 증가하였다.

(다) 우리말 이야기 대회

2002년 기준으로 전국대회와 9지방본부에서 실시하며, 참가자는 1,075명(동포 700명, 일본인 374명)이다.

② 어린이 사업

(가) 임해임간학교

2002년에 26지방 29개소에서 어린이 689명을 포함한 지원자와 운영위원 등 1,305명이 참가하였다. 2지방본부는 본국에서 실시하며, 통일교재 「우리나라」 1,500부 발간, 배포하였다.

(나) 토요학교

91년부터 동경한국학교에서 처음 시행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현재 327명이 동경교실에 참가하고 있으며 보호자교실도 설치되고 있다. 2002년은 20지방 30개소에서 900명이 참가하였다.

(다) 어린이 동계 친목행사

크리스마스를 활용, 2002년 18지방 22개소에서 어린이 680명과 보호자와 운영위원 635명 합계 1,315명이 참가하였다.

(3) 일본지역 자국민 인적자원개발 현황

일본은 외국국적 취득 교민은 외국인, 일본국적 보유 교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교민보호 육성관련 법령도 없다. 교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우리의 교민(단체) 보조금 같은 재정지원은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내란 등으로 교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간 경제협력형태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을 가진 일본인을 위한 일본문화센터·일본박물관 건립 등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책이민자에 대해서도 이민 전 국내교육과 이민 후 현지적응 지원을

하며, 재난을 당한 경우 재정지원을 하기도 한다.

재외국민교육은 문부성, 외무성, 해외자녀교육재단에서 분담하고 있다. 문부성은 예산지원, 교사선발과 파견, 교육과정 지도, 귀국자녀교육을 맡고 있으며, 외무성은 교육시설비 지원, 현지채용 교원의 급여보조, 주재국에 대한 교섭업무를 맡고 있고, 해외자녀교육재단은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교재 정비, 통신교육, 상담 등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인학교는 57개국 84개교에 이르며, 보습(토요)학교는 48개국 136개교이다. 통신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현지 일본인회이다.

3) 중국

(1) 중국의 청소년 정책

① 청소년정책의 목적

현재까지 중국은 청소년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이 없고, 명확성과 일관성을 갖춘 청소년관련 전문 법체계가 없지만,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업무문건과 많은 실제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청소년의 요구에 맞추어 관련 업무에 있어서 각급 행정, 사회조직 및 국민개인행동의 목표, 노선, 방침과 조치의 체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실질적인 중국청소년정책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정책체계는 기본정책목표에서 주로 청소년을 사회전체이익의 객체에 속하며, 그 실제교육, 조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향을 중시하는 것에서 특수한 이익의 주체가 되고, 그들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고 도와주는 방향 전향을 중시하게 되었다. 내용에서 현행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권의 규정과 법률보호, 청소년의 피교육권과 이에 대한 만족, 청소년 노동합법적 취업권 및 관련 요구의 만족, 청소년주거의 기본권과 관련 서비스, 청소년보건위생과 관련한 복지혜택, 청소년사회보장 및 관련서비스, 청소년의 사회복지와 개별서비스 등이다.

각 구체적인 영역과 측면에서의 정책발전정도와 내용상의 완전성은 차이가 있다. 어떤 정책의 영역과 부문은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발전이 성숙된 반면 어떤 것은 비교적 미약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본내용은 모두 갖추었고, 청소년의 주된 요구사항과 문제에 맞추어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호와 협력을 달성했다.

정책의 방법에 있어 현행의 청소년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제정하고 있다. 주로 교육행정부서와 기관(각급소속 학교를 포함), 민정부서와 그 소속기관, 의료보건기관, 노동취업기관, 사법행정부서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각 정부부문과 소속기관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체에서 관할하는 행정업무를 할 때 청소년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부서들이 분업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가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산당청년단과 같은 대중단체와 대표조직은 때로는 정부부서의 정책실시에서 일정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맡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를 논하자면 중국은 지금 시행하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일정한 만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며 청소년집단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개개인의 잠재능력개발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국청소년은 교육수준, 건강상황, 취업률, 생활보장정도, 복지혜택을 받는 수준 등에서 관련지표가 많은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 사회, 정치 및 문화의 참여에 있어서도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청소년의 범죄율, 자살율 등의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고 있어 많은 다른 나라들과 지역들 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정책은 가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중국의 청소년정책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목표내용, 수단 형식 또는 실제효과를 막론하고 어떤 선진국이나 지역과 차이가 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청소년정책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성장과 다양화의 추세는 날로 분명해졌다. 사회변화, 시장경제 등의 새로운 조건은

현재 정책의 목표내용 이든지 수단체제든 간에 필연적인 구조 조정과 변환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세에 적응해 나아가고 중국 청소년정책을 더 한층 완벽하게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연구 탐색하고, 하루 빨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현대화된 강국으로써 필요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체제를 세워나아가야 한다.

② 청소년정책의 방향

중국 청소년인구는 그 수가 많다. 비록 근래 들어서 가족계획정책의 실시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의 요인들로 인해 출생률이 저하되고, 청소년인구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총인구의 절대수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인구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큰 인구집단에 대해, 당과 정부는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상 거대한 청소년집단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만 하며, 그들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만약 정책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현재의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생활 등의 각 분야에서의 안정과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청소년의 각 분야별 발전상황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다. 이것은 당과 국가지도자의 관심을 끌었고, 경제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중국 청소년정책의 타당성과 강력한 추진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실로 크다. 청소년교육의 상황을 볼 때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교육정책의 개혁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청소년범죄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청소년범죄자의 유죄자 점유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보호법과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의 동시 제정과 집행의 성과이며, 그 연관성도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상황의 개선,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향상, 청소년이라는 약자집단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낸 것, 청소년 주거 상황의 개선은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중국이 시행하는 관련된 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청소년의 사회발전상황은 또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당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며, 사회 전체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 정치, 문화의 건전성 및 안정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관련정책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당과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현실의 표현 즉,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지이며 관련정책의 수립과 추진이다.

청소년사업이 만약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전개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며 많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만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다면 실제 청소년 업무처리에 있어서 곧 문제에 부딪칠 것이며, 전문학자와 청소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등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상응하는 정책이 없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지지 부진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의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관심을 끌 것이다. 공산당청년단조직 등의 대중 단체들도 수많은 방법을 취할 것이다. 예를 들면 희망공정(希望工程: 중국에서 펼치는 교육증진운동, 집안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부나 각 분야의 단체에서 모금한 돈을 지원하는 일종의 자선사업이자 장학사업)과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상응하는 정책이 없거나 정책이 확실하게 추진되어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방해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현실적 발전상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필수적인 것이다. 청소년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많은 청소년정책이 있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이롭지 않다. 정책적 시각에서 청소년문제해결의 중장기목표수립에 불리하고,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 및 각 분야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과 청소년사업추진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도 이롭지 못하다.

실제 상황을 볼 때, 정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산당청년단은 현재 업무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중국의 체계적 청소년정책의 부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청소년사상정치교육, 청소년권익보호, 농촌출장근무청년 및 그 자녀의 교육, 청년실업자 및 청소년복지, 청소년 생활환경정비 등 문제, 이 모두가 공산당청년단이 매우 주목하는 문제이다. 또한 많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효과도 많이 줄었다.

전합하여 중국 청소년과 사회발전의 현실상황은 완벽한 청소년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맞게 새롭고 적합한 청소년정책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청소년정책의 체계화도 요구된다. 기초적 업무에서 현행의 여러 청소년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하며, 동시에 당과 정부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 청소년의 현실상황, 사회발전이 청소년에게 바라는 것 등을 진지하게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2) 한민족 인적자원개발 현황

① 인구의 감소와 유동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위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학교교육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 정부의 소수민족 보호정책에 의해 집거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한국에서와 별 다른없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조선족 학교의 존립은 한국어교육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이 1950년대 초반 유아교육으로부터 고중에 이르기까지 민족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질서정연하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족 집거구의 존재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조선족 집거구에 일고 있는 일련의 사회변동은 조선족 집거구의 존립을 위협하는 한편 조선족 교육을 크게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을 파장으로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여기서 한국어 교육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표 III-18>에서 보면 1990년도부터 인구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였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족 인구의 40%이상이 집거하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1996년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집거구의 해체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나아가서는 점차 학교를 폐쇄, 통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표 III-18>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인구의 자연증가률

(단위: 명, %)

연 도	총인구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률(%)
1990	83.90	13.83	6.76	7.09
1991	85.60	11.37	6.45	4.92
1992	84.94	9.88	6.15	3.73
1993	85.45	7.56	6.06	1.52
1994	85.49	6.79	6.02	0.74
1995	86.00	5.84	5.81	0.03
1996	85.92	5.06	6.13	-1.07
1997	85.56	4.52	5.61	-0.90
1998	85.05	4.42	5.64	-1.32
1999	84.71	4.42	6.82	-1.42
2000	84.21	5.16	6.91	-1.75
2001	84.01	3.81	5.02	-1.21

자료: 양옥금·채수일(2002), ‘연변 조선족연구 마이너스증장에 따른 조선족교육문제’에서 재구성

② 학교의 통폐합과 감소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문제와 위기

조선족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이다. 1990년대 중반기까지만 해도 조선족들은 산재구나 집거구나 할 것 없이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었고 적령기에 들어선 학생이라면 거의 100%가 조선족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기부터는 점차 출산율 저하와 잦은 인구유동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합을 하거나 폐교를 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농촌학교들부터 시작을 하여 점차 도시로, 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학교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표 III-19> 중국 한글학교 현황(2002년 기준)

(단위: 개소, 명)

공관	학교수	교원수	학 생 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주중국(대)	3	32	433	11	350	72	0	0
주상하이(총)	3	49	391	19	301	71	0	0
주칭따오(총)	3	50	348	21	276	46	5	0
주광조우(총)	4	34	342	31	235	49	5	22
주선양(총)	5	68	556	31	284	153	88	0
주홍콩(총)	1	24	480	0	290	121	69	0
계	19	257	2550	113	1736	512	167	22

자료: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p. 5-6

연변 조선족 자치주 농촌의 중소학교상황을 보면 1989년에는 소학교가 188개로부터 1995년 77개로, 그리고 2002년에는 43개로 줄어들었다. 중학교는 1989년에 19개로부터 1995년에는 6개로, 2002년에는 2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산재지구도 마찬가지이다. 길림성 길림시에서는 학생내원이 줄어들자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차례 학교를 통폐합하였다. 그리하

여 농촌소학교는 1989년도의 137개로부터 26개로 통폐합 되었고, 중학교는 18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는데 중소학교가 도합 120개가 줄어서 목전에는 35개밖에 남지 않았다.

흑룡강성의 경우 전 성의 조선족 인구가 약 45만 명인데 1998년에는 조선족 소학교가 405개에 학생수가 35,442명에서 1999년에는 241개에 학생수가 21,565명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도에는 학교 수가 85개에 학생수가 5,000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학생수가 20명도 못 미치는 학교가 26개 있는데 이러한 학교는 근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표 III-20〉 하얼빈시 조선족 소학교 통폐합상황 변화

(단위: 개소, 명)

연도	원래 학교 수	학생수	통폐합 학교수
1997	102	9,442	5
1998	89	8,244	13
1999	83	6,818	6
2000	63	5,935	20
2001	49	4,053	14
2002	41	3,057	8
2003	32	2,530	11

자료: 이성원·강호빈(2004), ‘努力開創民族教育改革與發展的新局面’에서 재구성

③ 교사의 감소와 자질부족에 따른 한국어교육이 문제와 위기

중국의 개혁개방은 조선족 사회의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교사의 감소와 유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감소와 유실은 조선족 학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및 교육환경이 낙후한 농촌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636명의 교사가 감소했는데 이는 전임교사총수의 16.6%, 2001년부터 2002년 사이는 65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임교사 총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산재지구인 흑룡강성 상지시 산하 조선족 소학교들에는 1985년에 조선족교사

가 215명이 있었는데 1997년에는 175명, 2000명에는 140명, 2004년에는 79명으로 줄어들었다. 즉 10년 사이네 거의 73%가 줄어들었다.

조선족 학교교사의 감소는 학교의 통폐합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소와 유실은 구조조정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 처우가 낮은 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교사직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거나 돈벌이로 타지방이나 해외로 나감으로써 감소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교직을 버리고 나가는 교사들은 거의 다가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골간교사들이다.

교사의 감소와 유실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사부족현상이 심하지만 정작 교사를 보충하려고 하면 적합한 사람이 나서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갓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교사직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채용해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빈번한 교사들의 교체는 교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또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은 교사나 임시교사들은 또한 전문성과 자질에 문제가 되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어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규정한 한국어교사는 소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족사범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나 고중의 경우는 반드시 조선족 사범대 또는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교사가 부족하다보니 소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비사범계 출신을 채용해 쓰는 학교도 많아 교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3) 중국지역 한민족의 직업 구성

어느 민족의 직업구성은 그 경제 발전의 정도와 농업·공업·상업의 발전상태 및 비례관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사회생산과 사회관리의 발전 정도를 재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 조선족 지구의 사회생산과 경제가 발전하고 조선족의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원래 대부분 벼농사만 짓던 조선족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점차 벼농사를 떠나 공업·상업·봉사업에 종사하고, 또 적잖은 사람들이 학교교육을 받고는 당조직·정부·군중조직·기업소·사업소에 들어가 영도 및 관리사업 등을 맡고 있다. 동북3성이외의 지

역에 배치받아 사업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났다. 조선족 취업인구는 그리하여 1982년 918,673명에 달하였고, 그것은 조선족 총인구의 50.04%를 점하는 것이었다.

조선족 전체의 직업구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길림성의 민족별 직업구성을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길림성에서 조선족의 주 직업은 농업·임업·어업 노동자(57.69%), 생산직과 운수직 종사자(20.93%), 전문·기술직 종사자(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직종에 종사하는 조선족이 전체의 88.33나 된다. 이것을 한족과 비교하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조선족이 한족보다 4% 많은 반면, 전문직·기술직에는 조선족이 한족보다 1.7% 더 많다.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여자가 한족 여자보다 월등히, 기타 소수민족 여자보다 약간 많은 것이 두드러진다. 전문·기술직 종사자나 국가기관·당조직·기업의 책임자에 있어서 조선족 남자가 한족이나 기타 소수민족부터 훨씬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산·운수직 방면에서 조선족은 한족보다 그 종사자 수가 떨어진다.

<표 III-21> 길림성의 민족별 직업구성

(단위: 명, %)

		전문· 기술직 종사자	국가기관· 당조직· 기업책임자	사무직 종사자	상업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농·임· 목·어업 종사자	생산· 운수업 종사자	분류 불능 기타	유업자 남녀 비율
길림성	남	6.79	3.90	2.43	2.04	3.10	57.07	24.56	0.12	65.23
	여	10.77	1.08	1.66	5.25	6.57	48.42	26.48	0.22	34.77
	계	8.14	2.92	2.16	3.16	4.31	54.06	25.09	0.15	
한 족	남	6.57	3.84	2.38	2.05	3.18	57.10	24.77	0.12	65.90
	여	10.85	1.12	1.72	5.38	6.77	47.04	26.89	0.23	34.10
	계	8.03	2.92	2.15	3.18	4.40	53.67	25.49	0.15	
소수 민족	남	8.73	4.58	3.00	2.04	2.31	56.76	22.48	0.13	58.72
	여	9.96	0.77	1.77	4.23	4.94	59.47	19.30	0.16	41.28
	계	9.23	3.01	2.45	2.94	3.39	57.88	21.16	0.14	
조선족	남	9.97	5.28	3.52	2.08	1.99	53.66	23.37	0.14	53.80
	여	9.41	0.63	1.00	3.81	4.54	62.37	18.10	0.14	46.20
	계	9.71	3.13	2.36	2.87	3.17	57.69	20.93	0.14	

자료: 길림성 인구보사관공실, 1984 <길림성 제3차 인구보사자료회편>

4) 독립국가연합

구주, CIS지역 재외동포 교육지원 현지기관에는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과 이를 총괄하기 위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이 있다.

〈표 III-22〉 구주, CIS지역 재외동포 문화교육 현지기관 현황(총괄)

한글 학교			교육관실		한국 학교			한국 교육원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기관수	파견 공무원수	학교수	교원수 (파견)	학생수	교육원수	파견 교원수	동포수
625	1,511	32,981	4	4	1	17 (1)	70	10	12	595,073

자료: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p. 1

여기서는 러시아지역 중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민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알아본다.

(1) 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기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해마다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3〉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교육원 개황

연도	학생수	교사수	강좌수	주당 총시간수	교재
1997	132	8	2	46	한국어 1,2,3(국진원), 민요집
1998	130	9	2	58	한국어, 민요집
1999	275	12	2	60	한국어 교본
2000	275	12	2	60	한국어 교본
2001	294	13	14	56	한국어 교본

먼저 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에 132명에서 2001년 294명으로 200%이상 신장되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교재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출간된 한국어 1,2,3과 민요집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서 최근 2년간 강좌별 학생 수, 주당 시수, 개설요일,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0년과 2001년의 한국교육원의 현황을 보면, 과정당 학생수가 12~40명으로 차이가 많은데 모두 15명이 넘는 경우 어학 수업으로는 부적절한 규모여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컴퓨터와 태권도, 사물놀이 등의 과목은 대학생이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과목이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경향이 많은데, 서예, 도예 등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 III-24〉 2000년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교육원 현황

강좌	학생수	주당시수	개설 요일	기간	기타
한국어 기초 A	30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기초 B	35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초급 A	23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초급 B	18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중급 A	24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중급 B	30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상급반	15	4	화, 목	2.1-6.30 9.1-1.31	
한국문화	12	4	월, 수	2.1-6.30 9.1-1.31	출강
사물놀이	15	4	월, 수, 금	2.1-6.30 9.1-1.31	대학생
태권도	15	4	월, 수, 금	2.1-6.30 9.1-1.31	대학생
토요학교	30	4	토	2.1-6.30 9.1-1.31	교민자녀
계	247	56			

〈표 III-25〉 2001년 블라디보스톡의 한국 교육원 현황

강좌	학생수	주당시 수	개설 요일	기간	기타
한국어 기초 A	27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기초 B	29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초급 A	27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초급 B	27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중급 A	28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중급 B	24	6	월, 수, 금	2.1-6.30 9.1-1.31	
한국어 상급반	16	4	화, 목	2.1-6.30 9.1-1.31	
한국어 기초	25	4	화, 목	2.1-6.30 9.1-1.31	
한국어 기초	40	4	화, 목	2.1-6.30 9.1-1.31	
컴퓨터	15	2	월, 수	2.1-6.30 9.1-1.31	대학생
사물놀이	15	2	월, 수, 금	2.1-6.30 9.1-1.31	대학생
사물놀이	15	2	월, 수, 금	2.1-6.30 9.1-1.31	대학생
토요학교	30	4	토	2.1-6.30 9.1-1.31	교민자 녀
계	247	58			

(2) 대학 단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10개정도의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한국어를 교양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극동대학교 한국학과가 있는데 학생 수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 한국교육원도 극동 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블라디보스톡은 한국어 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담당교수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학입시 성적도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하여 향후 한국어교육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대학들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 수의 증가가 눈에 띄는 등 한국어 교육의 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한국어교육에 관한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한국에 대한 열기가 한국학 연구가 및 한국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권 지역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은 비교적 열기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 대학의 한국어교육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은 교사가 되기보다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들도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파견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종교단체에서 파견한 선교사, 러시아지역 유학생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3)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주로 종교 기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공식적인 기관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표 III-26〉 러시아 지역 한글학교 현황(2002)

공관	학교수	교원수	학 생 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주러시아(대)	46	111	2969	11	891	544	487	1036
주블라디보스톡(총)	110	226	6321	164	1058	1540	1477	2082
계	156	337	9290	175	1949	2084	1964	3118

자료: 재외동포재단(200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p. 10-11

연해주 지역의 연도별 학교수와 강좌 수, 학생 수, 교사 수, 주당 총 시간 수, 교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7〉 연해주 지역 한글학교 개황 - 블라디보스톡 중심

연도	학교수	강좌수	학생수	교사수	주당 총시간수	교재
1997	5	25	513	43	369	한국어
1998	12	27	551	50	389	한국어
1999	13	28	682	57	398	한국어
2000	13	28	682	57	398	한국어
2001	23	35	1140	70	398	한국어 I
2002(계획)	23	35	1140	70	398	한국어 I
계	89	178	4,668	347		

1997년 조사에 비해서 2001년 학교의 수는 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학습자의 수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학교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관도 많아져서 학습자의 한국어 접근이 매우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수의 증가율이 학교 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한국어교육 수요층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학교간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간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4) 러시아의 재외동포에 대한 현안

다음은 청와대에서 제시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① 연해주 민족교육관 건립 요망

연해주는 러시아 및 CIS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전체 고려인들의 고향이며, 1863년에 러시아에 첫 이주가 시작되었으므로 2003년은 한인이주 1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는 발해의 영토로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으

며, 지금도 많은 역사 유물들이 있으나, 체계적인 보존이 되지 않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연해주는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경계이자 물류중심기지에 위치하여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라 불리워지는 TKR-시베리아 횡단 철도시대에 있어서도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연해주의 한인들은 그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에는 아직까지도 동포들이 응집할 수 있는 민족문화센터조차 없으며, 사라진 민족정체성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연해주 민족교육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범 정부 차원(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설립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연해주 민족교육관』은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의 활동은 물론 연해주 한인회관, 연해주 한인역사박물관(발해사, 한인 이주사, 연해주지역 독립운동사, 한러 관계 발전사 등 전시), 문화외교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다목적으로 설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날 축제 지원

주지하다시피 연해주는 러시아 및 CIS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전체 고려인들의 고향인 바, 매년 연해주에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한데 모여 자랑스러운 한민족임을 확인하고, 우수한 한국문화를 러시아인들에게 전파하므로 양국간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날 축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해주 정부는 2001년, 매년 10월 3일(개천절)을 <고려인문화의날 축제일>로 지정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1년도에 1회 행사(블라디보스톡시), 2002년도에 2회 행사(우수리스크시)가 실시되었고, 2003년도에는 제3회 행사를 나호드카시에서 남북한 예술단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하였고, 2004년도에는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축제>로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하였다.

<고려인문화의날 축제>는 아직 특별한 축제가 없는 연해주에 한국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는 일본의<오오사카 한인축제>처럼 해외의 유명 한인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이 발해의 영토였고, 지금도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려인문화의날 축제>를 잊혀진 발해문화를 발굴, 꽃피울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③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설립 지원

가칭 『연해주 민족교육관』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인들의 사회교육차원 시설이며, 유능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공교육 차원의 교육시설은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공교육 차원에서 동포 차세대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적어도 1개 이상의 민족학교 설립이 요망된다. 현재 연해주에는 우수리스크시에 1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으므로 우선 이곳에 민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설립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 제 1안 : 동포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립학교로 설립하는 방안
(가장 효율적이기는 하나 학교 설립 비용이 막대함)
- ▷ 제 2안 : 현 공립학교를 한국어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
(손쉬운 방법이기기는 하나 각종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흠)

④ 러시아 검인정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지원

현재 러시아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특별활동 차원의 비공인 과목인 바, 이는 아직까지도 한국어가 러시아 교육제도에 의한 <제2외국어>로 지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교재는 대부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급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지 형편이나 수준에도 맞지 않고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재이므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 따라서 적어도 러시아 학생용 교재는 러시아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어가 러시아 교육제도에 의한 공교육 차원의 <제2외국어>로 지정받아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러시아 교육제도에 의한 <제2외국어>로 지정받을 경우 러시아 및 CIS지역 50만 재외동포들에게 커다란 교육적 혜택이 되리라 생각되어 현재 우수리스크 사범대학과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이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 막대한 고급인력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다 확실한 지원이 요망된다.

3.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문제점

냉전 구조의 해체로 인해 중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등 구 사회주의권 거주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사회 전반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이주한 재외동포사회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류 사회 진출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간의 유대 강화가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재외동포사회는 모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이러한 동포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외동포의 수 증가와 더불어 자녀들의 수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갖는 인적자원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대상측면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청소년 인적자원정책에 있어서 그 목표대상으로서 우리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그 나라의 소수민족 또는 비주류로서의 인식과 한민족청소년을 그 나라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시에 동일한 자원으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대

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연계체계가 거의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재외동포정책은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특히 정책의 대상이 외국에 있는 만큼 결코 그 나라 외교의 기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재외동포정책을 다소 독자적인 형태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구체적 집행은 기본적으로 재외공관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각 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은 모국과 청소년, 그리고 대상국간 연계하에 이루어져야만이 민족성과 문화,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외국의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수준이 양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은 주로 국가 차원보다는 민간단체나 개인, 기관 차원에서 한글교육이나 기초 문화교육, 소양교육 등 기초적인 교육훈련에만 전념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작 기술교육이나 핵심 직업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이민자 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교부에서 제반 영사업무와 함께 재외동포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외동포 정책 및 지원을 보조업무수단으로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민족청소년을 우리나라로 유입하여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외국의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매우 미미하고, 따라서 기초자료에 입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적자원정책의 기본은 기초통계에 입각하여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그 결과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학력수준별 분포, 직업별 분포, 요구사항 등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차치하고서라도 각 나라별로 한민족청소년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연령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통계로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IV. 해외 한민족청소년 HRD 관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1. 재외동포 지원 정책
2. 재외동포 교육 관련 기관
3. 재외동포 교육기관
4. 지원 사업 및 개선 방안

IV. 해외 한민족청소년 HRD 관련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1. 재외동포 지원 정책

1) 정부 부처의 지원 정책 개요(김남희, 2005)

2003년에 ‘참여정부’의 이름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국정 이념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12대 정책과제 중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한상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외에 특별히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성과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이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현지화’에 대한 강조로 인해 동포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재 동포정책 목표는 ①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②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③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이다. 정책방향으로는 ①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②거주국내에서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③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④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 각종 사업 추진, ⑤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⑥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설정하였다.

한편, 17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문제가 재논의되었다.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은 초기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또 다시 중국 등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재외동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동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지향하는 재외동포기본법보다는 교육문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총리실 내에 재외동포처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학자, 정치인, 정부 관료, 시민단체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형식상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최고 심의기구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외동포업무 관련부처 장관 10명, 재외동포연구단체와 전문가 및 재외동포지도자, 관계부처 및 기관장 등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②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 ③재외동포와의 유대강화, ④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 ⑤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및 심의, ⑥기타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한 내용에 대한 심의·조정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의·조정기능만 있지 정책수립 및 의결기능을 갖지 않는다. 1996년 5월 1차 회의 이후 3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재단 설립문제, 주요 재외동포 관련 사업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04년 11월 이 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현지화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 내 사업 주관기관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재외동포 교육자 초청사업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재외한국학교 현지교원 초청연수’ 등 교육부, 문화관광부, 재외동포재단이 중복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담

당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문화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개최하는 ‘세계한민족축전’,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민족 문화제전’에 대해서도 별도 개최로 초래되는 예산낭비, 사업효과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방송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를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밖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열어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외에 정부부처 중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정책 주무부서로서 일을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영사국 내의 재외국민이주과를 통해서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연구 및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재외동포 관련 행정업무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문화·체육분야의 교류사업은 문화관광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재외동포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1>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부처 및 사업내용

소 관 부 처	주요 사업 내용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 최고 심의기구 ○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및 심의 ○ 기타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한 내용에 대한 심의 조정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관련정책 수립 ○ 재외동포재단 지도·감독 - 재외동포사회 발전 및 권익향상 지원사업, 민족문화 및 민족 정체성 유지사업, 동포간 교류강화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 재외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운영 및 교사파견 ○ 재외동포학생 단기교육 및 연수 ○ 재외한글학교 교원 연수 ○ 재외동포교육용 교과서 공급
법 무 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문화관광부	○ 세계한민족 축전 등 문화교류사업 ○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사업 ○ 겨레문화창의단 활동(한국/전통문화 전문인력의 동포사회 파견 활동)
통 일 부	○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등 재외동포대상 통일정책 홍보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여성가족부	○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 재외동포 여성지도자 국내연수

여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재외동포교육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2>와 같다. 이를 보면, 재외동포의 숫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교육 및 연수 수료자의 숫자는 19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외동포교육의 대상이 대체로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이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어려서의 노출경험이 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윤인진 외, 2005), 이 부분에 대하여 관련 사업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2> 재외동포교육 및 각종연수 수료자 및 수료자 현황 (국제교육진흥원)

과 정 별	개설 년도	1991 까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 장기교육과정	1962	2,830	127	133	121	131	104	124	86	136	96	129	122	140	99	4,378
○ 단기교육과정	1981	411	55	96	106	126	122	113	123	95	100	123	113	104	103	1,790
소 계		3,241	182	229	227	257	226	237	209	231	196	252	235	244	202	6,168
○ 제일동포대학생 춘계 학교	1979	1,779	102	107	128	98	128	157	81	84	95	86	72	43	64	3,024
○ 제일동포 중·고생 하계 학교	1966	10,720	387	324	327	319	247	207	226	122	149	108	109	106	114	13,465
○ 재외동포학생 하계 학교	1973	8,975	370	340	710	261	272	265	176	73	111	225	66	48	82	11,974
○ 구소련 및 중국동포 대학(원)생 초청연수	1993	-	-	34	29	20	36	56	37	60	32	32	36	27 26	53	478
○ 중남미·대양주 동포학생 동계학교	1999	-	-	-	-	-	-	-	-	98	68	78	100	90	101	535
소 계		21,474	859	805	1,194	698	683	685	520	437	455	529	383	340	414	29,476
계		24,715	1,041	1,034	1,421	955	909	922	729	668	651	781	618	584	616	35,644
○ 재외한국학교연합회 (협의회) 회장단 초청 연수	2004	-	-	-	-	-	-	-	-	-	-	-	-	-	59	59
○ 귀국학생지도교사 직무연수	2003	-	-	-	-	-	-	-	-	-	-	-	-	40	40	80
○ 해외입양인 교육과정	2000	-	-	-	-	-	-	-	-	-	35	35	29	32	-	131
○ 일요지구촌 학교	2004	-	-	-	-	-	-	-	-	-	-	-	-	-	109 (50/59)	109
○ 초등학교 국제캠프	2003	-	-	-	-	-	-	-	-	-	-	-	-	98	80	178
계		-	-	-	-	-	-	-	-	-	35	35	29	170	288	557
합 계		24,715	1,041	1,034	1,421	955	909	922	729	668	686	816	647	754	904	36,201

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5). 재외동포교육 및 각종연수 수료자 및 수료자 현황. 국제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표 IV-3〉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정 수료자 현황 (1995-2004)

지역별	구분	연도별										계	주요국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유럽	단기	27	33	25	16	15	23	16	13	24	25	217	러시아, 독일
	장기	9	6	5	3	5	5	5	10	6	5	59	
아메리카	단기	16	11	13	14	9	11	17	16	10	17	134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장기	22	25	18	6	13	15	15	4	6	14	138	
아시아	단기	81	77	75	93	70	63	86	83	70	60	758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장기	100	72	101	77	118	76	109	107	126	78	964	
오세아니아	단기	2	1	-	-	-	1	-	-	-	-	4	호주, 괌, 아가나, 파푸아뉴기니
	장기	-	1	-	-	-	-	-	1	2	2	6	
아프리카	단기	-	-	-	-	1	2	4	1	-	1	9	이집트, 탄자니아
	장기	-	-	-	-	-	-	-	-	-	-	-	
소계	단기	126	122	113	123	95	100	123	113	104	103	1,122	
	장기	131	104	124	86	136	96	129	122	140	99	1,167	
총 계		257	226	237	209	231	196	252	235	244	202	2,289	

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5).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정 수료자현황. 국제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 활용상의 문제점

국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점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나름대로의 추진체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재외동포 1세는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지만, 이민 2,3세로 넘어가면 비록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강할지라도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많이 떨어진다. 즉 대다수의 동포 차세대(청소년)는 거주국에서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모국에 대해서는 단지 방문하거나 하는 정도의 관심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동포 차세대 혹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갖

고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국 방문 및 모국 대학에서의 유학 및 연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별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부실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처럼 모국을 방문해서 모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였으나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망하고 돌아가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국 방문과 모국문화체험이 동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개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외동포, 특히 청소년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각 부처의 특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미 많은 형태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전개되어 있어, 특정 부처가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 내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틈새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와중에 재외동포들을 국외인적자원으로 개발·활용할 여지가 있는 영역과 그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주체(혹은 기구나 기관) 선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기구는 심의의결기구로 부처별 사업계획을 조정·심의할 뿐 이 부분에 관한 장기적인 국가비전 제시 및 이에 따른 정책수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사회가 더욱 글로벌화 되고 우리 사회가 인종적·문화적으로 더욱 다원화 되면 될수록 재외동포를 포함한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관리·평가가 필요하다. 그 동안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민족의식교육 및 언어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

및 부처에서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거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알려진 바 없다. 재외동포 후세대의 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우수한 민족교육,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국가가 개발 및 보급하며,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 재외동포 학생들에 대한 모국체험 교육을 확대하여 어려서부터 민족의식의 뿌리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각 부처의 전문성에 맞게 상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활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체로 각 부처가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복된 정책업무의 발굴을 지양하되 재외동포 전문가 집단의 모국교류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유관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이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주요 인력에 대한 정보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주요 인력풀에 재외동포 중 분야별 주요 인력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재외동포 교육 관련 기관²⁰⁾

1)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은 1977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이 1992년 대통령령 제13623호에 의해 확대 개편된 기관으로서, 2000년 8월부터는 책임

20) 박상석(2003),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진동섭 외(2003),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재외동포의 교육, 국제교육교류 협력, 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연수, 국비유학생 지도·관리, 해외유학 지원 등이다. 이 기관에는 교육공무원 35명과 일반직 공무원이 34명(기능직 12명 포함) 등 모두 6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획관리부·교학부·국제교류부·유학연수부 등 4개 부서와 1개의 기숙사로 조직되어 있다. 이 기관은 2003년 이후 재외동포교육 전문 기관 및 국제교육교류 협력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착하기 위해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 국제교육 교류·협력의 활성화, 교재 보급 및 국제교육 정보 제공,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치 활성화, 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사업 목표로 내걸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초청 교육과정,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연수, 인터넷에 의한 한국어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재외동포 자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초청 교육과정에는 장기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계절제교육과정, 해외입양인 교육과정이 있으며 해외의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현지 연수와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수 등이 있다.

(1) 장기 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모국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의 구사 능력을 배양하며, 한국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한민족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자긍심 높은 세계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육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서 입국한 재외동포 학생이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및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의 경우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모두 122명이었다.

(2) 단기 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재외동포에게 능력에 따른 한국어 구사력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예절을 익히게 하며, 조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12주 동안 진행되는데, 전기는 4월에서 6월, 후기는 9월에서 12월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중점적인 교육 내용은 한국어 능력신장 지도, 한국문화 및 한국사 지도, 현장체험학습 및 생활예절 실천 지도 등이다. 2002년도의 경우 단기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모두 113명이다.

(3) 계절제 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재외동포의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빛나는 얼과 역사·문화를 알게 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참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여 모국의 발전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기간은 각 과정마다 다른데 주로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5주 과정의 교육이 있다. 계절제 교육과정으로는 재일동포 대학생 춘계학교(10일, 72명), 독립국가연합지역 및 중국 지역 동포 대학(원)생 초청 연수(10일, 36명), 재외동포 학생 하계학교(10일, 66명), 재일동포 중·고생 하계학교(10일, 109명), 중남미·대양주 동포 학생 동계학교(5주, 100명) 등이 있다(괄호안은 교육과정 기간과 2002년도 과정 참가자 수). 경비 부담은 개별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여 왕복 항공요금을 포함한 경비 일체를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참가 학생들에게 소정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4) 재외동포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재외동포교육 관계자 연수 과정에는 재외 한국학교 현지 교원 초청 연수, 중국인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영어권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중앙

아시아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등 4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재외 한국학교 현지 교원 초청 연수는 한국학교 교원들의 동포 교육 소양과 교과지도 능력을 제고하고,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모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재외동포 자녀 교육 담당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세 개의 동포 교육 관계자 연수는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동포 학생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 문화의 이해, 한국어 및 한국 역사 강의, 학교 방문 및 산업체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 프로그램 참가 실적은 2002년의 경우 재외 한국학교 교원 초청 연수에 19명, 나머지 세 연수에는 모두 40명의 재외동포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5) 해외 현지 연수

중국, 러시아, 북미,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재외 한국·한글학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10~12일 정도 실시된다. 연수 내용은 한국어 교수법, 교재 제작 및 활용법,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KOSNET) 이용법, 모국수학과정 안내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연수에 참여한 재외동포교육 관계자는 2002년의 경우 3,087명이었다.

(6) 해외 입양인 모국문화 체험 연수

이 연수의 목적은 해외 입양인을 초청, 모국어연수 및 민족문화체험을 통하여 언어, 역사, 문화, 생활, 풍습 및 모국의 발전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국에서 성장하면서 겪는 정체성의 갈등, 회의를 극복하고 모범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600만 재외동포자녀(해외입양동포 포함)들에게 한민족의 꽃인 무궁화사랑으로 모국을 함양하고, 뿌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대상은 해외 입양인으로서 만18세 이상자이며, 연수 내용으로는 전통문화, 산업시찰, 안보체험

등의 체험학습과 내국인들과의 교류, 뿌리 찾기 등이 있다. 2002년에 이 연수에 참여한 해외 입양인은 29명이었다.

(7) 인터넷(KOSNET)에 의한 한국어 학습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인터넷에 의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인 KOSNET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진흥원의 주관 하에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8)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직무 연수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하여 선발되는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 기간은 2주이며, 해외에서 재외동포교육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일반 소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이 연수의 주요 목적이다. 2002년에 25명의 파견공무원이 이 연수 과정을 이수하였다.

2)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목적이자 기본 임무는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다.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교류사업, 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경제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정보화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외동포교육과 관련된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모국 연수

이 연수의 목적은 재외동포 대학생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재외동포 대학생들에게 모국의 역사·문화·현실 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뿌리 찾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족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대상은 재외동포 대학생 및 입학예정자이

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특강, 토론, 문화유적지 탐방, 수련 활동, 예절 교육, 전통문화실습, 사관학교 방문, 친목활동 등을 배우게 된다.

(2) 청소년 모국 연수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의 목적은 모국의 역사, 사회, 문화,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모국관을 부여하고 거주국의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특강, 토론, 문화유적지 탐방, 병영체험 및 산업시설 견학과 전통문화의 체험 및 국내학생과의 교류시간을 가지게 된다.

(3) 민족교육자 초청 연수

이 연수의 목적은 재외동포 민족교육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교육기관 시찰 및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 변화된 모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수 참가자들의 현지 교육경험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민족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명감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연수의 내용으로는 특강, 교육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기관 방문, 한국어 교육 사례발표 및 토의, 문화유적지 답사 및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 등이 있다.

(4)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이 연수의 목적은 민족교육환경이 열악한 CIS지역 한국어교사에게 모국어 연수 및 한국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모국어 및 우리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교사자질의 함양 및 교육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대상은 CIS지역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이며, 연수 내용으로는 한국어 관련 일반교과목 수강, 국내 교육기관 방문, 특강, 현장학습 등이 있다.

(5) 재중동포 IT 연수

재중동포 청년들에게 IT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재중동포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재중동포 사

회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한·중 수교 및 중국의 WTO 가입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대중국 교역에 일익을 담당할 브리지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동북3성에 거주하는 고졸이상 학력의 한국어가 가능한 미취업 재중 동포이며, 16주의 수업이 2회 실시되며 인원은 40명이다. 교육내용은 IT, 영어, 직업, 교양 교육이며, 철저한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연수 수료 후 수료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수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6) CIS지역 IT 교육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중소 벤처기업의 CIS 및 러시아 시장 진출 활로 개척, CIS 동포 청년들의 자국 내 전문직 진출 및 경제적 지위 향상, CIS 동포들에 대한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동질감 부여, 재외동포간의 정보 격차 해소이다. 대상은 35세 미만의 CIS 동포이며,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자, 영어 또는 한국어 가능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인도 일부 모집하기도 한다. 인원은 30명 정도이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외동포교육과 관련 업무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와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기초분석 자료 구축, 한국어 능력시험의 숙달도 기준과 관련성을 가진 교재의 위계화 연구,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교육과정 시안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4)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은 우리나라 어문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기

구로서, 특히 국어사전 편찬, 각종 어문규정의 보급을 통하여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각종 어문자료를 수집하여 국어 유산을 보존·연구하는 한편 국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외동포교육과 관련하여 이 기관은 북한의 어문 규범에 익숙한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 우리의 어문 규범을 보급함으로써 언어의 동질성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92년부터 매년 이들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 어문규범과 문법, 우리말과 글의 역사, 언어 예절, 남북한 어문 규범 차이 등 한국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고 문화 유적답사와 지방 산업체 시찰도 시행하고 있다.

5) 한국어세계화재단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의 문화, 특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어 세계화 재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분과에서는 한국어 교사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 교원자격 인증제도 시행 방안 개발, 한국어 교육 총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표 IV-4〉 재외동포 교육별 기관별 교육역할 분담

소관부처	기관명	재외동포교육 관련 담당 업무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국내초청 교육과정, 재외동포 현지연수, 해외 입양인 교육과정,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교재보급 및 교육정도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교 교재지원, 한국어 능력시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모국연수, 한글학교지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IT 직업연수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교재 연구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보급에 관한 지원

3. 재외동포 교육기관²¹⁾

먼저, ‘한국교육원’은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재외동포 성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며, 주된 업무 활동은 교육활동, 교육지원 활동, 유학생 및 파견 교수 관리, 홍보 및 교육정보자료 수집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학교’는 전일제 정규 학교로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교육하는 곳이다. 즉, 영주동포 자녀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일시체류 자녀들의 국내 연계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현지 적응능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현지에서 교회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정시제 주말학교이다. 미주지역, 독립국가연합 등 영주 동포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도록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개설된 것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일시 체류민 자녀를 대상으로 본국 연계교육 차원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2종류로 구분되나 이들 모두 주말학교의 형태로 교육하고 있다.

4. 지원 사업 및 개선 방안

1) 현지 능력개발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 관련

(1) 현행 정책

첫째, 정부는 2005년부터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재외한국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통하여 해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기본 방침은 가정형편 곤란으로 인한 2006년도 미수납인원 비율, 등록

21) http://www.kosnet.go.kr/edu_net/edu_net.htm

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외한국학교 26개교 학생수의 4.6% 수준(400여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범위 안에서 약 US\$869,450(825,977원)을 지원하며, 정부지원 외에 학교 자체의 추가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한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CIS지역에 소재한 현지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조선족·고려인)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국수학 재외동포 장학생을 매 학기 마다 모집하여 거주국에서 모국에 자비로 유학 온 재외동포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의욕 고취 및 모국에서의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주미대사관이 시행하는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매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우수한 동포대학(원)생과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면학에 전념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재미동포 사회와 조국발전에 기여할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넷째, 민간 기업으로는 KTF가 2007년부터 재외 한민족청소년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2006년 국제교육진흥원과 재외동포 자녀 장학금 지원 및 각종 재외동포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일본 내 한국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 초청교육 과정을 이수중인 재일교포 자녀에게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용 기자재도 기증할 계획이다.

다섯째, 2005년도에 2만 원으로 시작한 흑룡강 신문사의 장학 사업은 한겨레 사회의 열렬한 호응과 동참으로 점점 더 규모가 발전하여 2007년 22개소 조선족초·중·고학생 80명이 장학금을 수혜하였다.

여섯째, 현지 재외동포들이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신호범 위싱턴 상원의원은 1999년 ‘정치교육장학회’를 만들어 미국 내 한인 2세 가운데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장학금

을 받은 학생 10여 명 중 3명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신 상원의원은 미국 각 주마다 1명 이상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생을 한인 정치가 탄생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06년 ‘양자회 장학재단’이 출범하여 캐나다 내 한인입양아 중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한인봉제협회(회장 양광석)는 매년 동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거주하는 한국인 모임 ‘하사모(하얼빈을 사랑하는 모임)’는 하얼빈시에 있는 조선족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3천 위안을 전달했다.

이 외에 대학들도 재외 한민족 동포를 위한 장학금 조성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사회·재외동포 연계 ‘글로벌 장학금’을 조성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및 교민들의 서울대 장단기 연수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지원 개선 방향

이 처럼 국내외에서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사업은 정부 및 시민단체, 개인, 재단 등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전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민족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자면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인단체에서 지원된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이 재외동포의 54%가 넘게 거주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보다 북미지역 한인단체에 편중 지원되었다.²²⁾ 이렇듯 금전적인 지원도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거주 지역에 특성과 한민족청소년의 경제 상태 등의 사회적 환경 및 필요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학비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지에서 직업훈련교육기관을

22) <http://kr.blog.yahoo.com/dreamkid94/15>

통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개도국 무상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후발 개도국에 전수 하고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직업훈련원 설립 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다. 그를 통해 현지인들의 직업 훈련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05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직업훈련원이 세워졌고, 2007년 8월 이라크에 직업훈련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직업훈련기관을 통하여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능력개발 관련 기자재 및 교재 지원 관련

(1) 현재 시행 정책

첫째,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어교재로 공급하는 교과서의 보완이 가능한 한글비디오, 그림사전, 낱말카드, 그림동화책 등의 보조교재를 지원하고 있다. 한글학교 보조교재 지원은 기제공 교재에 대한 수혜자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지원한다. 또한 중국 및 CIS지역 민족학교에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교육기자재, 복사기, 책·결상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재외동포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해외한민족청소년들에게 책을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동북아평화연대는 재외동포재단과 KBS사회교육방송과 함께 재외동포들에게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중국 연변대학과 조선족 민족학교에 8천여 권의 한글교재와 컴퓨터 서적, 일반도서 등을 지원했고, 카자흐스탄대학교 한국학과에 한국학 서적, 교재 등 약 6천여 권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본의 조선학교와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에도 4천여 권의 한글교재가 보내졌다. 집문당, 영진닷컴, 부산동보서적, 김앤정 출판사, 파랑새열린학교, 책이 있는 마을 등이 동포들을 위해 책을 무상 기증해 주었고 임태희, 정두언, 나경원 국회의원도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은 민족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일보도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와 함께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독일, 스리랑카 등의 한인학교와 한인회에 모국어 양서를 보급하는 ‘사랑의 책 1계좌 보내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3년간을 CIS 지역 중점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고려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그 중 고려인 후세들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 위해 컴퓨터와 TV, 한국어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7년부터 지원금을 10%씩 증액하기로 하였다.

넷째,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연길인민방송국 등 해외한국어방송 6개사에 방송장비구입 지원에 1억 9천여 만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방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받는 방송사로는 연길인민방송국을 비롯하여 중국 용정텔레비전방송국, 중국 도문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중국 화룡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파라과이 기독교 한인방송, 키르기즈스탄 아리랑방송 등이다. 이러한 장비지원을 통한 우리말 방송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한민족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KTF는 시민단체 ‘아름다운 재단’과 손잡고 2003년 8월부터 정보소외 청소년들을 위해 Bigi(10대를 가리키는 1318 모양을 따 꾸민 것) ‘IT 공부방’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그중 2005년 10월 러시아 우수리스크 한글학교에 이어 2006년 도쿄조선 제2초급학교에 IT공부방을 지원하였다. 컴퓨터 12대, 노트북 컴퓨터 1대, 프로젝터 1대 등 약 1,100만원 어치의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는데, 북쪽에 가까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 학교인데도 한국 대기업이 지원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전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재외동포의 현지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보급 및 수요자 중심의 교재 개발·보급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동

또 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학교 26개교 및 한글학교 2,033개교, 한국교육원 35개원이며 연 2회 제공된다. 2006년 586천권이 보급되었다.

(2) 지원 개선 방향

이상과 같은 지원 외에 원격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컴퓨터 및 CD-ROM등의 원격교육 기자재 및 교재를 지원하도록 한다.

3) 능력개발 관련 교사 파견 지원 관련

(1) 현재 시행 정책

우리나라는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재외한국교육원은 전원 파견 교원으로 구성된 반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등 사립학교인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파견교사와 고용 휴직 후 초빙된 교사, 현지 채용 교사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 파견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2007년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파견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교사와 직원을 직접 선발토록 해, 정부 차원의 교사파견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재외학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재외동포 교육예산은 줄고, 또한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와 고용 휴직한 후 초빙된 교사의 연봉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배경이 되었다.

현지 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연수지원 및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연수,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초청 워크숍, CIS지역 한국어 교수 초청 연수 등이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개발 관련 토의 및 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한국어 교육자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초청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현지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재외동포 교육 지도자를 초청하여 학교 경영, 교수법, 리더십, 한국의 역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의와 교수법 및 운영실태 등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사례발표, 토론, 현장학습 등을 실시한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의 재외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가 있다. 이 연수과정에는 재외 한국학교 현지교원 초청 연수, 중국인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영어권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중앙아시아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등 4개 과정이 있다.

(2) 지원 개선 방향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및 지원은 여러 방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파견교사 및 관계자 관련 지원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사 파견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재외한국학교 교사파견이 예산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 자원 활동 파견과 연계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자원 활동은 개도국을 상대로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국제 협력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기술직업 훈련과 관계된 활동들이 있다. 장·단기적으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 훈련과정을 거쳐 특히 경제사정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 능력개발 지원 교사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고자 ‘전문인력 풀’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프로그램 중 전문가파견은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분야별 인재양성과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정부 또는 산하부처 기관에 대해 기술·정책 자문 및 기타 특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고 개도국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능력개발 전문가 파견 및 멘토 관계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4)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업교육이나 훈련 실시 관련

(1) 현재 시행 정책

첫째, 재외동포재단은 멕시코 한인후손을 30명 초청하여 6개월 간 국내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연수과정은 IT기술, 자동차정비, 전자제품수리, 용접·배관, 비즈니스 한국어, 산업시찰, 한국문화 체험 등이었으며 해당분야의 인증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취업률을 제고하였다. 또한 전문직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할린동포 청년대상 IT직업연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IT 연수 및 한국 문화체험,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였다. 재중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IT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브리지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도 진행되었으며, CIS지역 청년 동포의 전문직 진출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 브리지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직업연수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섬유산업 위주의 중남미 동포사회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 동포 IT 직업 연수 또한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정부 및 여러 단체들은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전문 인재 발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The Future Leaders’ Conference)’을 개최하여 정치·경제·사회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를 발굴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들이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차세대 지도자 워

크숍에서는 10개국 25명의 차세대 정치인, 차세대단체 대표자들이 국내 정치분야 차세대와 교류, 토론 및 발표, 역사탐방, 산업시찰 등을 할 예정이다.

셋째, 산업자원부와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에서는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교포 2~4세대를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무역 인적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25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거점과 한민족 무역네트워크로 차세대 무역인 1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2004년부터 해외교포 무역스쿨을 정부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내용은 무역실무 교육, 세미나, 병영 체험, 현지 대학교수와 무역 전문가로부터 무역개론, 한국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전략 등을 배우게 되며 차세대 무역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전문지식, 한민족이 가져야 하는 인성교육, 국제 무역인으로 필요한 기본예절과 협상 기술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넷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한민족 청년 과학도 포럼은 해외 10개국에서 이공계를 전공하는 재외동포 2~3세 대학생 10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이다. 미래가 촉망되는 전 세계 한인 청년 과학기술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불리는 21 세기를 조망해보고 우리 민족과 21세기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Forum을 통하여 각기 다른 국적을 갖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내외 동포 간에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안목도 키우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문화예술 분야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문화네트워크 지원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민족 문화공동체 대회는 특정 분야 재외동포 문화예술인을 초청, 국내 및 재외동포 인사들 간의 교류를 통한 교류협력방안 모색 및 한민족 문화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열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재외동포 문화 예술 인적자원 발굴 및 내외 동포 간 상호 이해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단 파견 및 특강 등 차세대 동포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문화의 체험 및

습득 기회 제공,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재외동포 거주국에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가 가능한 전문가 파견 특강 시행하고 있다.

(2) 지원 개선 방향

이처럼 많은 차세대 한민족청소년 리더를 위한 초청 연수 및 대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관련분야 한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며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확보,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5)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관련

(1) 현행 정책

첫째,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은 정부 및 각종 단체에서 재외동포 관련 지원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민족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민족의 뿌리를 찾게 하며, 국내 청소년들과의 상호 문화 교류를 지원한다.

둘째,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의 국제 한민족 캠프는 2007년 한민족청소년 가치의 재발견(Rediscovery of Korean Youths Value)라는 주제 아래 해외교포 및 국내 청소년 80명을 초청하여 5박 6일간 진행되었다. 대한청소년총효 단연맹에서는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일교포 청소년 15명을 초청하여 서울, 경주, 청주를 돌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뿌리를 찾는 여행을 하였다.

셋째, (주)이슨과 세계청소년한글캠프위원회에서는 1998년을 시작으로 세계청소년 한글캠프 Korean Spirit을 꾸준히 수정, 보완해 나가며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페이,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약 30여 국가의 해외교포 2, 3세 및 외국 청소년(초중고 및 대학생)이 어우러져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에 알리는 세계 청소년 한마당 축제인 '세계 청소년한글캠프'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한국어 교육, 역사 및 예절교육, 전통문화 및 현대 문화 체험, 안보교육 및 체험활동 그리고 해병대캠프를 통한 수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또한 러시아 사할린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한민족청소년들의 연대 강화를 위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KTF가 진행한 '한민족청소년이 함께하는 역사대장정'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및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역사 왜곡과 관련, 올바른 역사 수호를 위하여 전 세계 한민족청소년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하고 향후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한민족청소년의 유기적인 협력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대한 YWCA연합회에서 유럽 7개국 입양청소년 40명을 상대로 '유럽 입양청소년 초청 교류'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어, 역사, 문화, 예절강좌, 친선교류회, 민박 등에 참여하고 문화유적지 답사 및 관문점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2) 지원 개선 방향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의 교류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보다 장기적인 연속성을 가진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가적인 자원으로 받돋움 할 수 있어야 한다.²³⁾

둘째, 오프라인 교류뿐만 아니라 한민족청소년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여 한민족청소년 및 국내청소년의 인터넷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지원의 대부분은 어학에 관련 된 것이

23)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자료,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의 통로를 이용하여 한민족으로 연대감을 높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개발국 및 저소득층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저개발국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6) 원격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관련

(1) 현행 정책

첫째, 원격 교육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 앞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 교육은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이다.

둘째,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2002년부터 KOSNET(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점 추진내용은 온라인 학습용 콘텐츠 제공 및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된 오프라인 학습용 CD를 수시로 보급하고 있다.

셋째,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연세대 교수)와 함께 영어권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원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한국어 강좌Teen-Korean(www.teenkorean.com)을 2003년 개발하였다. 주요 특징은 재외동포 2,3세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국 문화 및 모국어 학습기회 제공, 딱딱한 문법학습이 아닌 가족, 친구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 중심의 학습, 학습자 중심의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을

24) 김병선(2003), “한민족 인터넷 문화공동체의 형성방안,” 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117호,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통한 한국어 학습 등이 있다. 한류드라마, 재외동포 만화가의 만화 일기 등을 콘텐츠로 활용, 학습 참가자의 흥미 유발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한민족 교육마당’은 재외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현황 조사를 토대로 재외 한국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자료 및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의 발전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 중 원격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경한국학교와 미산초등학교의 온라인 프로젝트 학습 ‘한일 온라인 사이버 박물관’ 운영 등의 학급 교류 프로젝트 등이 있다.

(2) 지원 개선 방향

첫째, 원격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원격교육 기자재 제공 지원을 먼저 우선시 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 등의 기자재 구입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에게 기자재 및 원격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과 관계된 원격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에 한민족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어렵다면, 한국에서 개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직업훈련을 보완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 원격 화상 직업 훈련 및 인터넷 무료 교육들이 있다. 특히 인터넷 무료교육은 기계나 전기 전자, 정보처리, IT분야 등 모두 460여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맞게끔 보완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의 특성상 직접 현장실습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국내로의 단기 초청 연수나, 현지 기업 기술자와의 연결을 통해 직업훈련 실습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사이버 대학 지원도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중 “비전통적과정의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²⁵⁾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본

25) 신익현(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제는 한국학(역사, 지리, 문화, 사회 등)과 여성학(페미니즘, 여성과 일, 인권, 리더십 등) 관련 5개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여 이화여대가 국제교류 중인 세계 104개 대학 중 사이버 학점교류가 가능한 세계 30여개 대학(미국의 Rutgers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 등)에 제공할 예정(사이버교육기관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H/W 및 사이버강의 운영 프로그램 등 S/W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또 하나의 원격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위성통신을 통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통신은 일방향의 일회성인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에듀넷 교육방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형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형성평가 및 해설 서비스, 질의 응답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성통신 및 에듀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 단기방문 지원 관련

(1) 현행 정책

첫째,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차세대의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만15세 이상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총 120명이며 주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체험, 산업시찰, 한국역사문화탐방 체험, 분단의 현장방문, 한국어교육, 특강 등 이다.

둘째,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계절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 모국 단기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짧게는 10일에서 5주 과정의 교육이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빛나는 얼과 역사·문화를 알게 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참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여 모국의 발전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전주시와 2006 거래문화창의단은 ‘해외교포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체

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을 선발·초청하여 한국의 역사·사회·문화·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동포 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겨레문화에 대한 공감과 교류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모국 체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현지에서 차세대 리더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한다.

넷째, 서울과 지방의 일부 대학들에서도 학교홍보와 우수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모국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외국의 중·고·대학생에게 한국어를 비롯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을 가르치며 주요 관광명소 탐방과 전통예절, 태권도, 서예 등의 고유문화를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은 서울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지방의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이며 명칭은 여름학교 혹은 문화학교이며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방학 중 일정기간을 활용한다. 대학의 모국연수 체험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는 기본 취지와 함께 학교 홍보, 우수학생 유치라는 목적이 있다.

다섯째, 또한 국외 입양동포를 위하여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국외입양동포 모국문화 체험연수를 시행하며,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국내 4개 국외입양전담기관에서는 모국 방문 및 모국어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지원 개선 방향

첫째, 개별대학이나 민간에서 경쟁적으로 모집하여 시행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들이 부실하여 한민족청소년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²⁶⁾ 재외동포 2,3세대에 대한 민족의식교육 및 언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더욱 증대될 것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 및 부처에서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질과 내

26) 김남희(2005).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재외동포 후세대의 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우수한 민족교육,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국가가 개발 및 보급하며, 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해외 한민족청소년에게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모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를 경험하며 모국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기업 자원봉사센터(KT&G, LG전자 등) 등과 연계하여 초청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8) 어학연수 지원 관련

(1) 현재 시행 정책

한국어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국제교육진흥원의 장, 단기 교육과정이 있다. 장기 교육과정은 모국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의 구사 능력을 배양, 한국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한민족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자긍심 높은 세계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9개월간 국내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서 입국한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기 교육과정은 재외동포에게 능력에 따른 한국어 구사력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예절을 익히게 하며, 조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2주 동안 재외동포로서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9) 인턴 프로그램 지원 관련

(1) 현재 시행 정책

첫째, 국내 대기업인 KT, 한국투자증권, 금호아시아나 그룹 등이 우수 재외동포 인재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www.hantutams.com)은 MBA 인턴쉽 및 정규직을 모집하였다. KT(www.kt.co.kr)는 해외 IT인턴쉽과 우수인재 채용을 진행하였고 금호아시아나그룹(www.kumhoasiana.com)은 기획, 재무, 마케팅 등 각 부문 해외경력자 및 해외 MBA출신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에도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이라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Inc.)이 우수한 한국인 및 재외동포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리더쉽 교육을 통해 세계화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2003년부터 실시해 온 하계 연수 프로그램이다. 1인당 교육비는 2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그 중 학교에서 50%를 지원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 2학기 이상의 학부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년 4월에 신청 접수를 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대외협력본부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후 2주간 미국 Washington, DC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2) 지원 개선 방향

첫째, 산업자원부와 산업인력공단 같은 해외취업과 관련된 부처들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기획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해외 현지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많은 국내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통신원격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인턴쉽 과정 콘텐츠 개발·제공하고, 기업의 직원들과 커뮤니티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원과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

셋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하여 장·단기 취업 및 인턴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과 청소년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0) 기타 지원 방안

첫째, 여러 정부부처, 민간기관의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²⁷⁾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심의하는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그 기능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제시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정부에서 주최하는 비슷한 한민족청소년 초청 행사들의 별도 개최로 초래되는 예산낭비·사업효과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더 효율적으로 개최되어 왔을 경우, 정부부처는 후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재외동포 교육 및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해외 교육기관 설립,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에 관한 투명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중요한 것은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보호 정책의 구현이다.²⁸⁾ 청소년들의 삶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해환경들을 정화 및 건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외국의 경우 마약 등의 유해약물 방지 및 심신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넷째,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추진사업 중 『국외 인적자원 DB구축』 사업과 연계, 각 분야에 우수한 재외동포 DB를 구축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DB된 우수 인재와 현지 해외 청소년들과의 멘토링을 주선하여 해외 한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삶의 영역에서부터 능력개발에 이르기까지 멘토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한다.

다섯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은 각 거주 국가별 특색에 맞게

27) 김남희(2005).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8)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격차나 발전분야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기업 인턴쉽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포 수가 많은 곳에는 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 및 진로상담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파견 후 귀국한 공무원에 대한 DB 구축 활용, 현지 사정에 맞는 지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현지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 공급하여야 한다.

여섯째, 또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적인 상담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요구평가 조사를 통한 선택적인 진로·직업 탐색 체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며, 한민족으로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특수성을 기반 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업, 진로 상담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한민족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카운슬링에 관한 지도자 양성과정의 개발과 시행을 통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직업, 진로에 관한 상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며 진로교육과 직업지도 및 카운슬링을 위한 교과과정과 학습용구의 개발을 해야 한다.

일곱째, 재외동포교육이 국내연계교육 및 모국어해교육에 치중되어 실제적으로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추진사업 중 『재외동포교육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모국어해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직업능력개발, 직업진로상담, 자격취득교육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직접 한 가정에서 서로 숙식까지 하면서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과 문화라는 공통의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이미 외국인이 되어 버린 동포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민족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홈스테이

를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홈스테이 활동조직을 활용하여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홈스테이 전략”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율성 모델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²⁹⁾

아홉째,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은 개인의 가치실현, 직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의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지식기반 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훈련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교육의 연계, 교육투자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중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한민족청소년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29) [Http://cafe.naver.com/kdu1004](http://cafe.naver.com/kdu1004).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자료,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V.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 방안과 중장기 대책

1.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지원
방안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V.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 방안과 중장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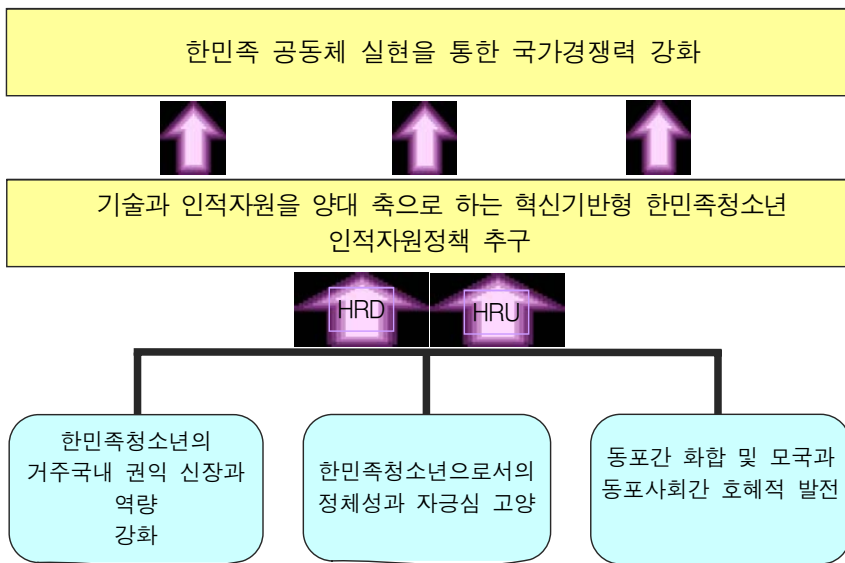
1.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한민족청소년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국력의 중요한 한 축이다. 한민족청소년이 외국에서 습득한 기술·기능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따라서 이들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활용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거주국 관점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아래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우리의 활용 목적에만 염두를 두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적응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혈통으로는 우리 민족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국의 국민이며, 거주국은 국내법과 인종·민족 정책으로 재외동포의 지위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들의 양성·활용 정책은 재외동포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재외동포가 거주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삶을 제대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민족청소년이 우리 국력의 버팀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에서 이들의 활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동포들이 거주지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다시 모국으로 오는 역이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셋째로 활용 정책은 ‘先지원 後활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민족청소년이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여 양성이 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공유되도록 하는 정신적·물질적 배려도 중요하다.

다. 아무리 부모세대가 외국에서 성공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양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상의 네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된 이후 어떠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본 방향으로 [그림 V-1]에서 보듯이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기술과 인적자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는 한민족청소년의 거주국 내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둘째로 한민족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셋째로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위한 전략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인적자원정책이 있는 것이다.



[그림 V-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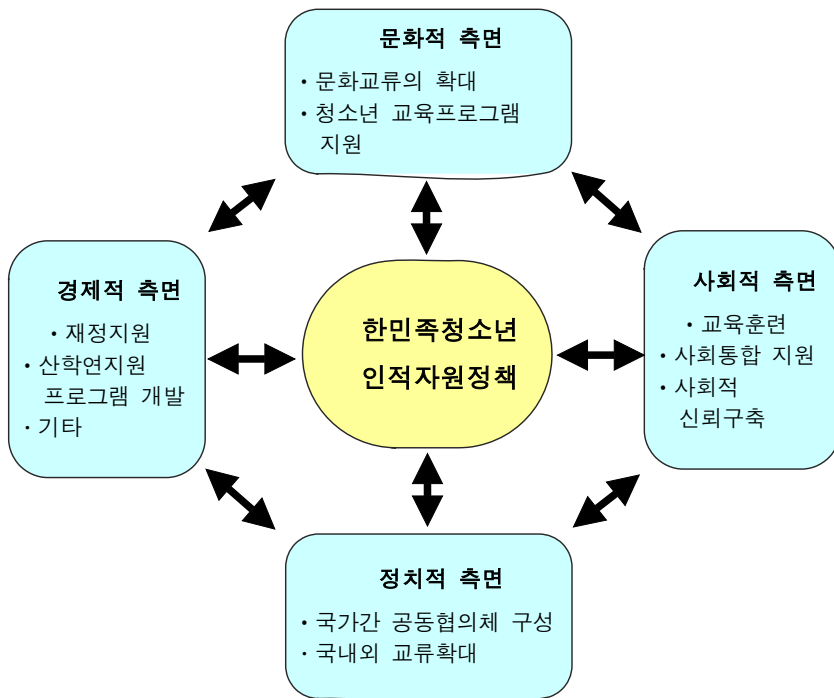


[그림 V-3] 모국과 거주국간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연계체계

한편, 재외동포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떠났어도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가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하에 추진할 것인가?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에 있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으로 전방위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을 지원하고, 잘 만들어진 인적자원을 국가의 이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여, 그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 제고와 인적자원 양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이 추진 전략의 골자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과 활용정책의 추진 전략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을 미래의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세부적인 전략으로서 [그림 V-4]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측면으로서 재정지원과 국가간 산학연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사회적 측면으로서 교육훈련과 사회통합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적 측면으로서 문화교류의 확대와 청소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측면으로서 앞서 논의하였듯이 국가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이질성을 최대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거주

국에서 모범적 시민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정착 강화와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유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상호교류와 협력관계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4]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전략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지원 방안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 방안

- (1) 현지 능력개발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위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사업은 정부 및 시민단체, 개인, 재단 등을 통하여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전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민족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자면 2004년부터 2006년 9월 까지 한인단체에서 지원된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이 재외동포의 54%가 넘게 거주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보다 북미지역 한인단체에 편 중 지원되었다.³⁰⁾ 이렇듯 금전적인 지원도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거주 지역에 특성과 한민족청소년의 경제 상태 등의 사회적 환경 및 필요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단순한 학비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지에서 현지 직업훈련교육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개도국 무상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후발 개도국에 전수하고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직업훈련원 설립 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다. 이를 통해 현지인들의 직업훈련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05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직업훈련원이 세워졌고, 2007년 8월 이라크에 직업훈련원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직업훈련기관을 통하여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기자재 및 교재지원 관련 하여 각종 한국어 교재가 연구, 보급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원격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훈련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 및 CD-ROM등의 원격교육 기자재 및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4) 능력개발 관련 교사 파견 지원 관련하여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및 지원은 여러 방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파견교사

30) <http://kr.blog.yahoo.com/dreamkid94/15>

및 관계자 관련 지원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사 파견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재외한국학교 교사파견이 예산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 자원 활동 파견과 연계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자원 활동은 개도국을 상대로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국제 협력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기술직업 훈련과 관계된 활동들이 있다. 장·단기적으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 훈련과정을 거쳐 특히 경제사정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 능력개발 지원 교사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 (5)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고자 ‘전문인력 풀’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프로그램 중 전문가파견은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분야별 인재양성과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정부 또는 산하부처 기관에 대해 기술·정책 자문 및 기타 특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고 개도국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능력개발 전문가 파견 및 멘토 관계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 (6) 많은 차세대 한민족청소년 리더를 위한 초청 연수 및 대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관련분야 한인 네트워크로 발전하

여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며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확보, 개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 (7) 한국 청소년 관의 교류 프로그램은 정부 및 각종 단체에서 재외동포 관련 지원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러한 해외 한민족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의 교류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보다 장기적인 연속성을 가진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가적인 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한다.³¹⁾
- (8) 오프라인 교류뿐만 아니라 한민족청소년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여 한민족청소년 및 국내청소년의 인터넷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³²⁾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지원의 대부분은 어학에 관련 된 것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의 통로를 이용하여 한민족으로 연대감을 높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개발국 및 저소득층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저개발국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9)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원격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원격교육 기자재 제공 지원을 먼저 우선시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 등의 기자재 구입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들에게 기자재 및 원격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31)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자료,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32) 김병선(2003), “한민족 인터넷 문화공동체의 형성방안,” 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117호,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 (10) 직업훈련과 관계된 원격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에 한민족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어렵다면, 한국에서 개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직업훈련을 보완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 원격 화상 직업 훈련 및 인터넷 무료 교육들이 있다. 특히 인터넷 무료교육은 기계나 전기 전자, 정보처리, IT분야 등 모두 460여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맞게끔 보완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의 특성상 직접 현장실습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국내로의 단기 초청 연수나, 현지 기업 기술자와의 연결을 통해 직업훈련 실습을 받을 수 있다.
- (11)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사이버 대학 지원도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중 “비전통적과정의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³³⁾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본 과제는 한국학(역사, 지리, 문화, 사회 등)과 여성학(페미니즘, 여성과 일, 인권, 리더십 등) 관련 5개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여 이화여대가 국제교류 중인 세계 104개 대학 중 사이버 학점교류가 가능한 세계 30여개 대학(미국의 Rutgers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 등)에 제공할 예정(사이버교육기관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H/W 및 사이버강의 운영 프로그램 등 S/W 개발이 필요하다.
- (12) 또 하나의 원격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위성통신을 통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통신은 일방향의 일회성인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에듀넷 교육방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형서

33) 신익현(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스, 실시간 서비스, 형성평가 및 해설 서비스, 질의 응답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성통신 및 에듀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3) 개별대학이나 민간에서 경쟁적으로 모집하여 시행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들이 부실하여 한민족청소년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³⁴⁾ (재외동포 2,3세대에 대한 민족의식교육 및 언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더욱 증대될 것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 및 부처에서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재외동포 후세대의 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우수한 민족교육,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국가가 개발 및 보급하며, 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4) 자원봉사활동은 해외 한민족청소년에게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모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를 경험하며 모국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기업 자원봉사센터(KT&G, LG전자 등) 등과 연계하여 초청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15) 산업자원부와 산업인력공단 같은 해외취업과 관련된 부처들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기획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해외 현지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34) 김남희(2005).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6) 많은 국내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통신원격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며 온라인 인턴쉽 과정 콘텐츠 개발, 제공하고 기업의 직원들과 커뮤니티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원과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
- (17) 해외 한민족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하여 장, 단기 취업 및 인턴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과 청소년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8) 여러 정부부처, 민간기관의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³⁵⁾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심의하는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그 기능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제시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정부에서 주최하는 비슷한 한민족청소년 초청 행사들의 별도 개최로 초래되는 예산낭비·사업효과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더 효율적으로 개최되어 왔을 경우, 정부부처는 후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19) 재외동포 교육 및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해외 교육기관 설립,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에 관한 투명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 중요한 것은 해외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보호 정책의 구현이다.³⁶⁾ 청소년들의 삶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해환경들

35) 김남희(2005). 국외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을 정화 및 건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외국의 경우 마약 등의 유해약물 방지 및 심신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 (21)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추진사업 중 『국외 인적자원 DB구축』 사업과 연계, 각 분야에 우수한 재외 동포 DB를 구축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및 산업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DB된 우수 인재와 현지 해외 청소년들과의 멘토링을 주선하여 해외 한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삶의 영역에서부터 능력개발에 이르기까지 멘토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한다.
- (2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은 각 거주 국가별 특색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격차나 발전분야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기업 인턴쉽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포 수가 많은 곳에는 교육 기관 확충하고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 및 진로상담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파견 후 귀국한 공무원에 대한 DB 구축 활용, 현지 사정에 맞는 지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현지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 공급하여야 한다.
- (23) 또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적인 상담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요구평가 조사를 통한 선택적인 진로, 직업 탐색 체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며 한민족으로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특수성을 기반 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업, 진로 상담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한민족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카운슬링에 관한 지도자 양성과정의

36)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발과 시행을 통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직업, 진로에 관한 상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며 진로교육과 직업지도 및 카운슬링을 위한 교과과정과 학습용구의 개발을 해야 한다.

(24) 재외동포교육이 국내연계교육 및 모국이해교육에 치중되어 실제적으로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추진사업 중 『재외동포교육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모국이해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직업 능력개발, 직업진로상담, 자격취득교육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5)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직접 한 가정에서 서로 숙식까지 하면서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과 문화라는 공통의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이미 외국인이 되어 버린 동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민족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홈스테이를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홈스테이 활동조직을 활용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홈스테이 전략”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율성 모델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³⁷⁾

(26)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은 개인의 가치실현, 직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의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지식기반 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평생학

37) [Http://cafe.naver.com/kdu1004](http://cafe.naver.com/kdu1004).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자료,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습 및 직업교육 훈련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교육의 연계, 교육투자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한민족청소년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 (27) 또한 국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를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Job School,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직업체험활동, 노동부의 직장체험프로그램,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나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많다. 민간기업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정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기업 홍보 혹은 사회기여 차원의 생산시설 둘러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나 포스코 등이 있다. 이러한 직업 체험 센터에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관련 지원 방안

- (1) 노동부가 구축하고 있는 고용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국내 기업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한다.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은 취업 알선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한민족청소년과 직업상담원 간 1대1 결연을 맺어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취업후견인 제도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³⁸⁾

- (2) 해외 청소년들의 국내 창업 지원을 한다.³⁹⁾ 미래의 예비 창업자인 해

38)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9)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외청소년(대학생)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교육 사업을 전개한다. 해외한민족청소년을 위한 벤처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지역별 창업 경연 대회를 진행한다. 창업을 위한 지역회전기금 등의 모금활동도 가능하다.

(3) 현재 한국 내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지원은 재외동포 재단의 및 모국수학 재외동포 장학 사업이 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통하여 세계 각 지역 재외동포 대학·대학원생 중 우수생을 선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 이수기회를 제공하며 생활비, 보험료, 어학연수비(6개월),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또한 모국 수학 재외동포 장학 사업은 자비로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성적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대학원생의 수학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나중에 그들의 인적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 기업 및 대학들의 상급학교 학교 진학 지원을 확대하고, 수학하는 동안 인턴쉽을 제공해 주어 졸업 후 바로 국내 기업에 연계하여 취업하는 등 자연스럽게 인적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수기관은 민간부문의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와 공공부문의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수한 해외 한민족청소년에게 모국을 알리고, 그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현지 한국 진출 기업을 DB화하여 해외 한민족청소년 전문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등을 진행한다.

(6) 모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1:1 관계

를 형성해 주어서 서로의 배경을 공유하고, 서로의 언어를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지원 방안

21세기는 기존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이다. 즉, 지식 정보화, 기술혁신,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환경 변화의 핵심 요소는 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자국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민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경쟁력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 청소년들은 출국 또는 이민 시점에 따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자칫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여 현저한 국가의 인적자원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크거나, 각 거주 국가에서 충분한 인적자원 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함에 따라 그 사회의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활발한 인적자원 개발 논의와 정책적 접근의 역사는 주로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 등은 화교와 재외 유대인 등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활용하여 자국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연계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인도, 아일랜드, 일본 등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외의 동포들에 대한 일반적 교민정책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교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에 각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세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민족문화와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민족과 국가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는 지구촌화로 이행되면서 세계 여러 국가와의 유대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와 국가,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당대에 한국을 떠난 세대이거나 이민 2·3세대 일지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정을 통해 현지 국가에서 성공했는지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타 국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자국의 문화적 동화정책이 긴요함을 보여준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한 재외 거주 청소년들의 성공과 발전은 우리 한국의 재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재외 화교들의 중화의식 지속과 고양을 통한 해외 중국계 인구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지속적·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화교신문의 편집, 발간 방침을 정할뿐만 아니라, 장기생존의 원칙하에 일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돌출적·선동적 편집자세의 지양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맥락의 결과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재외 한민족청소년은 향후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내외 환경과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각 거주 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

제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우리 국력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인적자원 정책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활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이 거주 지역에서 사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부적응에 따른 모국으로의 역이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의 재외 화교정책은 크게 ‘현지화’와 ‘중화의식의 계승’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화교에 대하여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권유한다. 즉, 화교의 화인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동포들의 단일 국적제로의 이행이 궁극적인 면에서 화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며, 이는 또한 중국 해외동포들의 거주국과의 발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화교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의식계몽 작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의 화교와 이스라엘의 유대인 등은 해외에서 몇 대에 걸쳐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자국의 언어는 물론 문화와 전통을 잘 유지·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중국 거주 동포 및 청소년들도 그들처럼 우리의 전통과 문화 등을 잘 보존·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중국 거주 한민족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 언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그들 부모 세대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연변 조선족 자체의 고등교육기관(연변대학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 등 민족의 자긍심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본방향 속에서 구체적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자국의 경제발전 및 세계화 전략과 연결시키는 기초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국제사회는 과거와 달리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가 당

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외국어를 비롯한 다문화적 감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제화 적응력이 높은 인적자원일 것이다. 각 국은 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또는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정비 및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담당 전문기관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자국민과 동포에 대한 대등하고 평등한 정책 추진에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법·제도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과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은 우리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도 교민청 등 재외동포 및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 설립을 검토해 볼 과제이다.

다섯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을 모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해외에서 획득한 그들의 경험과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화교들에 대한 배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동포들에게 행정·정책적인 배려를 해 줌으로서 이들이 자국 경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인도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인도인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에서 역이민 혹은 직업, 학업 등을 이유로 귀국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청소년들과 동등한 권리 및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모국은 물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들만을 위한

네트워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보면 일간지 등의 매체를 통한 인력수급 및 공급 또는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화교나 유대인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발한 정보·자료의 교환과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현지화를 통한 거주국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국에의 기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경우 우선 화교들이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모국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현재의 중국과 대만의 경제 성장 및 개혁개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현지 사회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고,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이 진행된 이후에 모국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화에 필요한 거주국의 법·제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국의 민족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점이 있을 경우 적극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전략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국력 신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적자원 개발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자산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선부른 예단이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국민도 아니며, 지역적으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 또는 이질화가 진행되어 관련 정책을 수용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주국 또한 그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가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유발시켜 관련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 또한 있다. 즉,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이라는 문제 설정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접근 방법은 중장기적 계획과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접근은 재외 청소년 및 거주국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와 거주국의 협조 아래 추진되어야지 우리의 활용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재외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은 ‘先지원 後활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 청소년들이 거주 국가에서 잘 적응하여 성공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한민족이라는 의식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신적·물질적 배려를 해야 한다. 아무리 해외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성공을 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활용 정책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거주 국가에서 무리 없이 적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려해야 할 영향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탐색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거주국의 민족환경(ethnic environment)이 중요하다. 180여만 해외 청소년들이 14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객관적 조건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거주 국가가 다민족 국가인지, 단일민족 국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보다는 다민족 국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장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거주 국가의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동화가 높을

것으로 보여, 인적자원 활용 정책은 어려움에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주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구소련의 경우와 같이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국가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지만 소수민족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 국가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때, 그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주 국가의 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서구로 이주해 간 우리 동포는 서구문화에 일찍부터 동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국문화가 서구문화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이 서구사회의 동포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거주 동포는 한국문화와 현지문화가 균등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수용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거주 국가의 문화 환경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국가별 환경을 고려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재외 청소년들의 물적·인적 자산 가치만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오히려 현지 국가와의 마찰로 재외 청소년들이 적응을 해 나가는데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혜성의 원칙이다. 현지국가와 우리가 함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재외 청소년들을 우리의 자원으로만 간주할 때, 현지국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초기에 자국의 국적을 유지하거

나 유지하고자 하는 동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에야 자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을 깨닫고 국외인적자원정책의 범위를 넓혔다. 즉, 자국 및 거주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호혜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화교집단의 이익 증진 및 번창은 물론, 모국과 거주국 모두가 공동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현지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전략적 정책 구안이 필요하다. 즉, 현지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어떤 나라이든지 타국가가 그 나라의 실정법을 무시하거나 주권을 도외시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소년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인식 선상에서 해당 국가들은 청소년 대상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을 존중하고, 그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주재국의 특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주재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정책이 획일화된다면 현실성을 도외시할 수 있으며 효율성도 반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현지 국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참정권 인정 및 민족차별 시정 문제 등이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노력 없이 모국이 단순히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성은 반감될 것이다.

넷째, 민족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상대방 문화와 관습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으며 현지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의 적응력에 문제가 야기되면 그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

부분 전이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국내 이주 재외동포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의 동질감과 자긍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판’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울판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울판 프로그램이 민족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가능한 성과일 것이다.

다섯째,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노력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안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될 경우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시 정부는 예산지원에 집중하고 실제적 사업 추진은 민간단체에게 위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재외동포, 특히,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청소년층의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 및 청소년층과의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중시민권을 허용하고 임시고용의 일부를 이들 재외동포 및 청년층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교육부문에서 여러 기관이 학문과 인적교류, 자국어 보급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은 민간단체이며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은 거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은 물론, 관련 정책의 수용 주체인 재외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접근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중장기 대책

(1)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

①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무엇보다도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재외 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 그리고 관심 있는 학계의 인사들이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연구대상을 청소년층으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재외동포 중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국가 역량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명한 진리에 기초한 접근이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민간전문가, 정책담당실무자, 관련 NGO근무자 그리고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필요성·중요성·실천가능성 등에 관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아젠다를 우선순위별로 선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 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부처간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층은 성장과정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삶의 욕구를 갖고 있고, 주변 환경에 민감히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다. 성인층과 구별되는 청소년층만을 위한 별도의 인적자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 내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산하기관 관계자, 관련 연구자, 민간부문의 국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계자 등을 포괄하는 국외 청소년 인적자원 정책협

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총괄 및 조정은 어렵겠으나 관련 정보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추진, 그리고 업무 협조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범부처간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재외동포재단이 총괄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교민청과 같은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교민청과 같은 중앙 단위의 부처가 설립된다면, 이 기구에서 재외동포 인적자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민청 내에 청소년, 성인, 노인 등과 같이 삶의 생애주기에 기초한 정책 대상별 정책담당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의 공공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대만의 교무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눈여겨 볼만 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칭 ‘재외동포위원회’나 ‘교민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재외동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관반민 형태의 자문기구인 가칭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정책적 조언과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외무부 내에 MASHAV-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1958년 설립되어 이스라엘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 MASHAV는 정부내 부서와 직업 전문기관과 학문 교육기관, 이스라엘 전역의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다. 착수 이후 거의 200,000명의 남녀가 MASHAV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스라엘 내외에서의 훈련과정을 거쳤고,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파트너 국가에서 장단기 협력을 수행했다. MASHAV는 전 세계 14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있으며, 미국, 네덜란드 등의 주요 국가와 FAO, UN, WHO 및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김남희, 2005).

④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문제는 국내의 인적자원 개발과 그 성격 및 업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세계 각 국에 퍼져 있는 우리 동

포들의 이주 및 이민의 역사가 다르고, 각 국의 언어 및 민족정책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층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각 개인이 갖는 성장 환경, 가족 구조(한부모, 입양, 조손 가정 등), 심리·정서적 상태, 모국어 습득 정도 등과 같은 각기 다른 조건으로 인해 획일적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표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역별(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 등)·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수민족 정책은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담당기관의 인력이 모든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집행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가 추진, 혹은 선발한 인원을 국내외의 대학원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시키거나 이미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신규로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 볼 일이다. 더불어, 구체적 양성 커리큘럼, 양성방법(숙박, 통원, 위탁교육 등), 선발방법 등의 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⑤ 필요 재원의 확보

예산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 해당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분야의 정책을 일관되게 장·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가능한 방법은 정부차원의 예산확보,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혹은 민간기업체의 기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 중 일정 규모를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관련 예산으로 확보,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중 일부를 재외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 운영비로 지원받는 형태도 고려해볼만 하다. 인도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2003년 교육부에 ‘Bharat Shiksha Kosh’를 두고, 인도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수단으로, Kosh는 국내 개인 및 기업, 중앙과 지방 정부, 교육 각 분야에 걸쳐 활동

하고 있는 NRI와 PIO들에게서 기부를 받아 인도 내외에서 교육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김남희, 2005).

⑥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적실성 있는 재외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 자료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청소년의 기본 정책은 이들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실시해야 한다. 즉, 해외 청소년의 국별 규모, 성별, 학력, 계층, 가족형태 등 제반 인구학적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때, 적실성 있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청소년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거주 국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거주 국가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사 목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물론 거주 지역에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청소년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자료화 하고 관련 전문가 및 부처가 이를 실제적으로 폭넓게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갖고 지속적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2)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민족정체성 교육추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체계 구축

① 교육기관의 설립 확대 및 지원

해외에서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그리고 교육관 등이 있다. 2003년 기준 한국학교는 15개국에 25개교,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 한글학교는 96개국에 1,994개교, 교육관은 5개국에 12명이 설치 또는 파견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현

재의 재외동포들이 자생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말학교 성격의 한글학교를 제외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 지원하는 교육기관은 정규학교 형태의 한국학교와 사회교육 성격의 한국교육원, 그리고 교육 영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진동섭 외, 2003).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전체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그나마 부족한 재외동포 교육기관들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문제는 각 교육기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의 배치가 부족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국가별로 설치·운영 중인 교육기관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비가 시급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동포가 600만 명을 상회하고, 이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 60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재외동포 및 청소년 개개인에게 교육적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기관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민 2세가 되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되고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들 2세들에게 한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를 간직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교육은 현지 공관이 사회단체 등 NGO가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은 정책적으로 유학생을 우수인재의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율판이라는 모국어 교육, 혹은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외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 역시 모국어의 보급 및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재외 청소년교육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교과서 및 기자재의 적기 공급 체계 마련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국에 많은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학령기별 청소년들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한 교재가 적기에 개발·공급되지 못한다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재개발은 2000년도에 82개국 115개 공관에 408,632권을 공급해서 양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수요자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동질성 증진을 위한 성격의 교재가 개발·보급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일이다. 더불어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의 교육 기자재 개발과 지원체계도 점검해 볼 일이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에 몰입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매체가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 교육망을 연결해서 효율적인 청소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만약,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비가 어렵다면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활용한 민족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청소년은 ‘유비쿼터스 세대’로 통칭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활용·선호하는 세대이다. 하루의 여가시간 중 대부분을 컴퓨터 활용 및 TV 시청에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 및 위성방송을 통한 청소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재외공관의 한국문화센터 중심지로의 확대 및 청소년전용 북카페 설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문화센터를 각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센터는 문화전파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학자·관광객 등의 상호교류 확대에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재외공관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배치도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은 한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문화 인력에 대한 전진 배치와 함께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북카페의 설치를 검토해 볼 일이다. 문화 사업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단체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외공관은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정례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민족 뿌리 찾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뿌리 찾기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국방문이라는 수단일 것이다. 고국방문은 이제 특정 국가, 그리고 일부 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국가별로 인구 비례에 의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기회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⑤ 해외 입양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현재까지 해외입양아는 약 1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성장 이후 친부모 찾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출생 고국에 대한 친밀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입양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홀트 등 해외 입양아 주선 단체의 협조 하에서 입양아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아에게 모국을 알리는 각종 문화정보를 양부모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양기관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해당 청소년이 친부모 찾기에 나설 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관련 NGO들은 해외 입양아 초청 행사의 일환으로 장·단기적 모국어 교육이나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해외 한민족청소년 중심의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

① 문화·학술교류의 확대 추진

우리 사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 해외 거주 청소년들 간에 문화 및 학술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육진흥원이 중심으로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계한민족문화제전, 재외동포예술제, 재외동포문학상 등과 같은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아세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전 세계의 한민족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지자체는 해외동포 거주 지역과 1:1 형태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차원의 문화·학술교류 프로그램 전개를 검토할 과제이다. 예컨대 인도 재외공관 내에 설치한 교육처(Education Wings in Indian Mission Abroad)는 과학,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친교 및 교류를 높이기 위해 설립하였고, 해외거주 인도 청소년들의 복지를 관장(김남희, 2005)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②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지원

기존의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외에 해외 한민족청소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2·3세대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고 모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재외동포 자녀들을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차세대 재외동포 과

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도는 재외 동포 청년들 중에서 유능한 인력을 국내로 다시 귀국시켜 활용하기 위한 STIOs(Scientists & Technologists of Indian Origin based abroad)제를 운영 중에 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전문 과학공학도들은 STIOs를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대학, 과학관련 부처에서의 구직은 물론 과학기술에 강세를 보이는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벤처 자본가로서도 활약한다. STIOs는 해외 거주 과학공학 인적자원 연구 능력 개발과 인도출신 고급 인력의 국제 단위 과학연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가 연구 인력 개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남희, 2005). 따라서 인도의 사례처럼 우리도 거주 지역에서 이미 박사 학위를 받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 분야별 차세대 지도자들의 모국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이나 연예·체육 분야에서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에서 연수, 유학, 교환방문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모국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해서 모국에 대한 애착을 공고히 하고, 거주국 사회에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유학생 및 유능한 재원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귀국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 설립을 고려중에 있다(김남희, 2005).

③ 수학여행단 유치 및 모국체험 캠프 운영

재외동포의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국 방문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미주나 유럽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모국 수학여행단 유치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수학여행 차원보다 모국체험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해외청소년 수학여행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기관별로 교육내용과 방식에 있어서의 특성, 만족도, 모국 수학여행 동기, 요구 등에 대

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 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향에 부합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 한다.

(4)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ON-OFF 네트워크 구축 운영

①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포털사이트의 구축

한민족청소년 사이버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청소년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즉, 사·공을 초월한 정보 교류,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사이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중소 규모로 산재해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공적인 중심체와 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 이곳을 통해서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는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되,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식 검색, 관련 정부정책 홍보, 사회문화 자료 탑재 및 각종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검색 서비스망을 구축·운영하고, 분야별로 커뮤니티 등을 형성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 상호간 및 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한민족청소년간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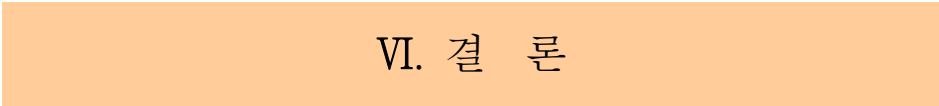
해외 한민족청소년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나, 국외 유학생들은 그들만의 생활에 몰두하고 있고, 그들과 연계를 맺으며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 획득과 교류를 희망하는 국외 입양아들은 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교들은 혈연, 지연, 직연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의 공간을 마련하여 빠른 성장을 도모하였다. 세계 어

디를 가나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정부 또는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화교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부상조하고 있다(김화섭, 1998). 이스라엘도 ‘유대인 협회(Jewish Agency)’를 설치하여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보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해외거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유대인 협회가 존재하여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외 한민족청소년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민족청소년 대상 공익포털 사이트 콘텐츠의 하나로 국내인과 외국인, 외구인간, 혹은 내국인간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VI. 결 론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해외 한민족청소년은 우리 민족의 이주 역사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와 배경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달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기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민족은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이해득실 그리고 국내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민족의 수난과 이에 따른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이주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오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이에 따라 해외 한족 청소년들의 인적자원의 질과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와 국제화의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이 절실하다. 또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양질의 인적자원이야 말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은 국제화와 지식정보화 등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 인력자원은 한국현대사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 한민족 해외이주사의 현재적 실체이며, 이들의 자녀인 청소년들은 그 존재가 민족사의 운명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비록 세계 여러 곳에 정착하였지만, 현재 각 지역의 재외동포의 조상이 한민족의 뿌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점에서 그들은 재외동포라는 일치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형성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이 공통점은 사적·상징적인 의미에서 유효할 뿐 실제적인 맥락에서 재외동포의 공통점은 거주국가의 소수민족이라는 점이다. 소수민족

이라는 공통점은 다시 거주국의 지배적인 주류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족적 요소이고, 따라서 거주국 다수의 주류민족의 차별과 편견은 소수민족의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과 같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는 물론 미국과 같은 소수민족의 조화로운 통합을 지향하는 다민족국가(multi ethnic state) 국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재외동포와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다. 즉 소수민족이라는 존재 규정적 조건은 동일할지라도 거주국가의 소수민족 존재에 대한 정치·경제적 상황, 주류민족의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소수민족의 위상은 천차만별로 규정된다. 말하자면 구소련 해체 후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에 산재한 고려인의 상황은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와 그 양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소수민족을 인정하는 중국의 조선족과 사회적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재일교포의 상황도 비교대상이 아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은 그들이 분포된 국가만큼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목표에서도 기본적인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관점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자체가 아직 능력개발 단계에 있으며, 해외 한민족청소년들이 세계화 상황에서 중요성이 막연히 전제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정책의 연장선에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이 고려될 때 소기의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역별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의 가치가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외교정책 차원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력자원의 활용방안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간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해외 한민족청소년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해외에 거주하

는 우리의 인적자원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굴곡의 산물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분명하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문제가 국내에서 적극적인 관심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에 세계화라는 시대조류가 정책의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재외동포의 가치가 부상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한다면,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의 활용은 한국내의 극히 일방적인 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으로서 한민족청소년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실존적 가치가 있고, 한국이라는 조국은 감상적 차원에서 막연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가치가 한국의 입장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재외동포의 실제적 이익과도 연관되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민족청소년을 포함한 재외동포 문제를 그 형성사와 존재의 의미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단기적 국익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재외동포 정책이 단지 조국분단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진행시켜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의 활용 문제는 거시적 민족사적 차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⁴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민족청소년을 포함한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인구센서스를 실시해 각종 이민 정책이나 해외 동포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40) 즉 해외동포 인력을 자국의 과학 기술, 경제 발전에 활용해 성공한 예는 중국이나 이스라엘·인도의 경우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중국 내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해외 화교 과학자간의 교류를 중국의 장래 경제 발전의 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홍콩이 본토에 귀속된 후 해외에서 활동 중인 홍콩 출신 중국계 두뇌들을 겨냥해서 이중국적 발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훈련받은 우수한 노동력을 본국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아울러 긴밀한 화교 네트워크는 결국 중국의 정보 통신 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는 옛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난민 처지가 된 유대인 고급 두뇌를 적극 활용해 국가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도 했다. 또한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 인도는 21세기 정보 통신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재외인교의 유치와 지원 및 활용을 통해 프로그램·게임기 등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아시아의 선두 주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사례들은 우리의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을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한다.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인적자원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인상공회의소와 같은 한인단체들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민족청소년을 포함한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업·공공기관·언론사 등과 공유하여 효율적인 한민족청소년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동포와 한국 사이의 상호 교류와 재외동포 상호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우선 재학생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진학 및 취업 실태 등 진로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은 분야별·지역별·직종별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민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일규(1998). 중국의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관한 고찰. 직업능력개발연구. 창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1999a). 연변의 우리 민족교육: 과거와 현재. 교육신보. 제1037호. 교육신문사.
- _____(1999b). 중국 조선족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관한 고찰.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2). 「인적자원개발백서」 발간을 위한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현황 연구.
- _____(2001).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 _____(2001a).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 계획. 대통령업무보고자료.
- _____(2001b).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방안.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보고서. 대통령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hrd.go.kr>
- 국가안전기획부(1999).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 한민족의 역할.
- _____(1999). 주요국 민족 네트워크 실태와 한민족 네트워크 추진 방향.
- 국제교육진흥원(2005). 재외동포교육 및 각종연수 수료자 및 수료자 현황. 국제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국제문제조사연구소(1996). 해외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 권해윤(2003).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길림성 인구보사관공실(1984). 길림성 제3차 인구보사자료회편.
- 김남희(2005). 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대성(1996).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김문섭(1999). 청소년 욕구와 여가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지도원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5권 제1호, pp.2-3
- 김병선(2003). 한민족 인터넷 문화공동체의 형성방안. 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117호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김병숙외(1998).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체계화 방안(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연구 : 소과제 보고서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병천(1998).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호(2000). 한국 정부의 재외교민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진(2000).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의 국가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 대학원.
- 김준규(199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 입법예고자료. 제3회 재외동포 정책토론회 발표문.
- 김태기 외(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_____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2000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김한호(1998). 재외한국인의 국내투자 현황 및 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호겸(2001).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학교교육과 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김화섭(1997). 동북아시아 중화경제권과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 _____ (1998). 금융위기 이후 중화경제권의 전개와 산업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 김환식(2005). 국가인적자원개발비전과 정책과제. 노동교육 제48호. 한국노동교육원.
- 김희방(1999). 재외공관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병술(1988). 발달심리학. 서울 : 교학연구사.
- 나윤기(1977). 인적자원관리. 서울: 학문사
- 남궁달화(1980). *A study of the purpose in life among Korean high school seniors*. Thesis(Ph.D.). Oregon State Univ.
- _____ (1985). 현대의 사회에서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를 위한 실재주의적 접근.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민국정부(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머레이 와이텐바움·사무엘 휴즈(지해범 역:1998). 화교네트워크. 세종연구원.
- 민족통일연구원(1993).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 민족통일연구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2000). 민족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와 연방주의·협의주의.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24호.
- 박경서(1998). 세계화시대의 교민정책의 과제. 제3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발표문.
- 박상석(2003).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 박세영(2002). 청소년기의 진로인식 발달수준과 흥미유형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 법무부(1998).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 입법예고보도자료.
- _____ (2000). 재외동포용 법과 생활. 대한민국 법무부.
- 산업자원부(2001). 2001년 7월 수출입실적(확정)평가.
- 성경룡 외(1999). 21세기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 비전과 전략. 한국방송공사. 한림

- 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 세계일보 2007년 2월26일 인터넷기사. 멕시코 한인 후손 직업훈련, 한국인 정체성 찾는데 도움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2261752000259>(2007.6.2)
- 소부(2006). 동포단체 지원 북미지역에 편중.
<http://kr.blog.yahoo.com/dreamkid94/15> (2007.5.7)
- 손준식(1998). 중국의 화교정책과 중화경제권. 『한민족 공동 경제권 형성을 위한 WORKSHOP』. 제2회 재외동포 정책토론회 발제문.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 송호근(2000). 인적자원개발: 목표와 과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주최 전문가협의회 발표자료.
- 시마 아쓰코(1993). 재일 한국인 교육의 현황과 조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경룡(2002). 인적자원론적 학교경영모형 구안. 부산교육대학교.
- 신유근(2000). 조직행위와 인적자원관리. 경영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 신익현(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석, 조대연, 현영섭, 엄준용(2006). 국가인적자원개발관련 지식생산체계와 동향: 교육학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 아태 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회의 보고서 및 베이징 선언(1999)
- 양승운 외(2001). 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동남아학 총서 제11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옥금·채수일(2002). 연변 조선족연구 마이너스성장에 따른 조선족교육문제.
- 여성부(200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자료집.
- 연합뉴스 2002년 4월 9일자 기사 전국 11개 대학, 동포 학생 모국 연수유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51263>
- 연합뉴스 2006년 4월 18일 인터넷 기사. 사할린 동포 청소년 IT 직업훈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274341§ion_id=102&menu_id=102
- 엑스퍼트컨설팅 hrd용어사전. <http://www.exc.co.kr/>
- 외교통상부(2001). 재외동포현황.
- _____ (2003). 재외동포현황.

- _____ (2007). 재외동포현황.
- 유현숙(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교육개발 제9.10월호
- _____ (2004). 여성의 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 윤인진(1996).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 제6호, pp. 65-95.
- _____ (1998). 해외동포의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제3회 재외동포 정책토론회 발표문.
- _____ (2000a).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문.
- _____ (2000b).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공동연구 과제의 일부.
- _____ (2001). 재외동포 본국진출의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재외동포 초청 세미나」 발표문.
- _____ (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2권 제1호, pp.5-64
- 윤인진 외(2005).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윤철경(2001). 미국의 청소년 정책: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 정책.
- 이광규(1989). 재일한국인. 서울
- _____ (1992). 재미한국인. 서울
- _____ (1994). 한민족의 세계사적 조명: 서울대출판부
- _____ (2000). 재외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광규 외(1999). 다시 쓰는 한민족 이민사. 기획특집. 대한매일신문.
- 이광규·전경수(1993). 재소한인. 서울
- 이무근(2000). 인적자원 개발의 다학문적 접근. 인적자원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성원·강호빈(2004). ‘努力開創民族教育改革與發展的新局面’
- 이승훈(1984).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미취업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영·송종국(1996). 과학기술부문의 세계화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 이장섭(1993). 해외한인의 문화접변. 민족과 문화 제1권, pp. 72-93.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 이종식(2001). 중학생의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

학원.

이중훈(1998). 한민족공동경제권 확립을 위한 정책대안. 제2회 재외동포 정책토론회 발표문.

이중훈·박호성·이중철(1999). 주요국정치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재외동포재단.

이창오 외(2005). 청소년 상담백서.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춘재(1988). 청소년의 이해 : 그들은 누구인가?. 首都교육 제106호('88.5), pp. 42-46.

이홍락(2001). 재일한국조선인-형성과정과 현재 그리고 그들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10.

장영철(2001).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과제. 임금연구 제9권 제3호. 경총 임금연구센터.

장준희(1998). 카자흐스탄 고려사람의 민족정체성 변화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곤(1997). 현행 열린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탐색. 열린교육연구 제5권2호, pp. 143-153. 한국열린교육학회.

정진곤 외(1997).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한림과학원.

재미한인학교협의회(2000). 팜플렛

재외동포교육기관 홈페이지 .http://www.kosnet.go.kr/edu_net/edu_net.htm(2007.5.7)

재외동포재단(1997). 근대한인의 해외이주와 한민족 공동체. 제10회 국제 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_____ (1998). 주요 국정지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_____ (1999). 재외동포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학술회의 보고서.

_____ (2002).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장홍근(2003). 사회적파트너십과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개원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pp. 64-65

중앙일보 1997. 7. 28일자 기사 : 해외 거주 '인교'.

정승우(1993). 한국 교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조대연(2006).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고찰: 복미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제12권 제4호, pp. 1-17

조선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1990). 청소년과 진로지도, p. 11

조혜영(2007). 한국디지털대학교 강의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cafe.naver.com/kdu1004>(2007.6.30)

중소기업청(2001). 중소기업관련통계.

- 진동섭 외(2003).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 차중환 (2001). 이중국적의 필요성과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2차 재외동포 지위향상 및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공동세미나」 발표문.
- 최우길(2000). 중국 조선족, 그리고 우리의 정책. 세종연구소.
- 최창모(1994). 이스라엘사 세계 각국사 제19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최협·이광규(1998).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집문당.
- 통일부페이지 - 세계 한민족<미국>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45D45/D4512.htm>)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이슈리포트 「e-러닝 세계화 발전 방안-주요 이슈 및 전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직업교육훈련대사전.
_____(2001). 직업능력개발연구.
- 한겨레신문 1997. 3. 11일자 : 각국 진출 ‘인교’ 단일경제권 ‘축매’기사
- 한겨레신문 2000 : 한민족네트워크 연재 자료.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 함중환(1992). 靑少年學原論: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허용(1998). 해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보고서. 한국방송대학교
- Berger, B. & Hackett, B (1974). On the cline of age grading in rural hippie communes.
Journal of Social Issues.
- Block, L., & Langman, L (1975). Youth and work: The diffusion of contertural values.
Youth and Society 104(2369)
- Duane Schultz (1990). *Theories of personality forth edition*. Brooks/Cole
- Eric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2nd ed.
- _____(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 Havinghurst, R(1973). Lost innocence: modern junior high school youth, *in the middle school: selected reading on an emerging school program*, ed., by Romando, L, G.
et al., Chicago: Nelson-Hall co.
- I. Fisher(1961). *The Theory of Interest*. in A < M < Kelly, Reprint of Economic Classics.
- Israel (1950). *Law of return(5710-1950)*.
- Rolf E. Muuss (송중두 역:1981). 청소년 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 Konopka, G(1973). Requirements for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 youth.
Adolescence 8(31)

- Maslow,A(1964).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s*, Dallas: Penguin Biiks.
- Michael L. Jaffe (1998). *Adolescence. acid-free paper*
- Ministry of Foreign Affairs(www.mfa.gov.il) Fact of Israel: education.
- Muss, R(1962). *Theories of adolescence*. New York: Random House
- Rogers, D(1977).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P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부 록

1.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운영규칙
2.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3. 청소년 관련 자료
4. 청소년 국제교류
5.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 현황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운영규칙

[일부개정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779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과정 등) ①국제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교예비교육과정 : 국내의 고등학교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대학예비교육과정 :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단기교육과정 : 재외국민의 조국에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계절제 교육과정 : 재외교포학생의 모국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연수과정 :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재외국민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③국제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 각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 3 조(입학자격) ①제2조제2항 제1호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9년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②제2조제2항 제2호의 대학예비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③제2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교육과정의 입학자격은 원장이 정한다.

제 4 조(수업기간)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예비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3월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 5 조(납입금) 원장은 제2조제2항 각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실습비 기타 생활지도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6.9>

제 6 조(교육과정의 편제) 원장은 제2조제2항 각호의 교육과정에 국어·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0.6.9>

제 7 조(업무위탁) 원장은 교육과정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1.12, 2000.6.9>

제 8 조(수료증의 수여) 원장(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2항 각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후원회)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친권자등은 동 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교육·보건·후생 및 생활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616호, 1992. 7. 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국민 교육원 설치령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709호, 1998.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8호, 2000.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 2001. 1. 31>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내지 <41>생략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게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재외국민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기여하거나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지휘·감독)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제 4 조 삭제 <1981.9.18>

제 5 조 삭제 <1981.9.18>

제 6 조 삭제 <1981.9.18>

제 7 조 삭제 <1981.9.18>

제 8 조 삭제 <1981.9.18>

제 9 조(학교의 설립) ①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1. 설립목적
2. 명칭 및 위치
3. 학칙
4. 경비 및 유지방법
5. 시설·설비
6. 교지·교사·체육장·실습지의 평면도
7. 개교 또는 개강연월일
8. 부속학교 및 병설학교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
9.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부행위 또는 정관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지변능력에 관한 서류
-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0조(교육원의 설립)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원장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의 등록) ①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는 당해 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공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운영방법
4. 대표자 및 운영에 참가하는 자의 이력서
5.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6.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

③공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의 인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중 각종학교가 국내

의 상급학교에의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1. 입학·편입학·진학자격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3. 학급편성·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수학연한·학년·학기에 관한 사항
5.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6. 교원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7. 교과서 및 교재에 관한 사항
8. 교실·체육장 및 실험실습설비에 관한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3조(보고) 공관장은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설립 또는 등록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4조(보조금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운영경비(인건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에 있어서, 동 보조금교부규정 중 “외무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외무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재외국민 단체”는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5조(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의 경비지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서 국어·국사등 우리의 민

죽교육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6조(교육공무원의 파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교육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1.2.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이하 "파견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의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2.1,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파견할때와 파견교육공무원이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1991.2.1, 2001.1.29>

제17조(교직원의 임용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국민으로서 본국에서 수학한 자 또는 재외국민중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8조(교원의 연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근무하는 교원(외국인인 교원을 포함한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의 교원연수기관등에서 연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9조(평정) 파견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필요한 경력평정·연수성적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20조 삭제 <1982.12.20>

제21조(교과서등 공급)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와 교육용자료를 편찬·발행·제작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와 교육용자료 및 국정·검정교과서등을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22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내에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2.7.3]

제22조의2(장학금의 지급)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재외국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2.7.3]

제23조(재외국민의 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에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자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24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부 칙 <제8461호, 197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그 명칭은 종전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이미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 칙(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
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일부개정령) <제10470호, 1981.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75호, 198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무원수당규정등일부개정령) <제10890호, 1982.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에 관한 다
음의 개정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공무원수당규정 제2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2.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부 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 1982. 12. 20>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 4 조 내지 제 5 조 생략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 2. 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
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7>내지 <148>생략

부 칙 <제13691호, 1992. 7.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 1. 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3>내지 <152>생략

청소년 관련 자료

1. 청소년인구

□ 인구 현황

(단위 : 천명)

년 도	총인구	청 소 년 인 구(9세~24세)				비 고
		계	남 자	여 자	총인구대비율	
'60	25,012	7,957	4,073	3,884	31.8%	
'65	28,705	9,121	4,700	4,421	31.8%	
'70	32,241	11,330	5,849	5,481	35.1%	
'75	35,281	12,886	6,652	6,234	36.5%	
'80	38,124	14,015	7,216	6,799	36.8%	
'85	40,806	13,975	7,188	6,787	34.2%	
'90	42,869	13,570	6,988	6,582	31.7%	
'95	45,092	12,751	6,581	6,170	28.3%	
'99	46,858	11,640	6,035	5,605	24.8%	
'00	47,275	11,485	5,965	5,520	24.3%	
'01	47,343	11,420	5,954	5,466	24.1%	
'02	47,639	11,378	5,946	5,432	23.9%	
'03	47,925	11,330	5,937	5,393	23.6%	
'04	48,199	11,242	5,905	5,337	23.3%	
'05	48,461	11,101	5,845	5,256	22.9%	

※ 청소년연령 : 9세 ~ 24세(청소년기본법)

(자료: 통계청)

- 청소년인구는 1980년도(36.8%)를 정점으로하여 계속감소, 2020년이후 20%미만으로 감소(2021년 19.9%) 추정

2.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법률

유 형	종 류	관계법률	소관부처	비 고
종 합	업소, 약물 등,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업 소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노래연습장, 게임방, 비디오방 등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문화관광부	
물 품	술담배	청소년보호법	청보위	
	본드부탄가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 경 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영상매체	영 화	영화진흥법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영상진흥기본법	문화관광부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TV·유선위선 방송	방송법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인쇄매체	도서만화	형법 등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잡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문화관광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3. 청소년연령규정

- 청소년의 연령·명칭은 각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
 - 청소년기본법 : 9~24세(청소년육성차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 9~18세이하(청소년복지차원)
 - 청소년보호법 : 연19세미만(청소년보호차원)
 - 소 년 법 : 20세미만(청소년교정차원)
- ※ 청소년연령 차이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고 행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는 최대한 보장·지원하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제한은 최소화하기 위함.
- ☞ ○ 유엔의 청소년규정 : 15세에서 24세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 10세부터 24세

4.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규제

구 분	내 용	연 령	근 거	비 고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약물사용 유해매체물접촉 등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음·비·게임법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이후 출입금지(단,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의 자 동반 또는 동의서 지참시 제외)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연소자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음·비·게임법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유흥주점, 단란주점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무도학원, 무도장	"	"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사용금지	전화통화 매개영업	"	"	통신매개영업 제외
	술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담 배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연령제한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고용근로	본드, 부탄가스, 신나	"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성 관련 물건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음압성·포악성·잔인성· 사행성 조장물건 등	"	"	
	선원사용금지	16세 미만	선원법 제81조	
	도덕·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여자,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연소자증명서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제64조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범죄처벌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연 나이 19세 미만	식품위생법 31조	
	소 년	20세 미만	소년법 제2조	
	보호처분의 결정	20세 미만	소년법 제32조	
행 위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제9조	
	선서무능력자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행위무능력자	20세 미만	민법 제5조	

○ 음·비·게임법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권한부여 : 유인가능연령(17세), 병역지원입대연령(17세), 주민등록발급
연령(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5. 청소년관련 인터넷 정보망

- 국가청소년위원회(<http://www.youth.go.kr>)
 - 청소년정책, 청소년정보, 청소년통계 등
- 한국청소년진흥센터(<http://www.kyisc.or.kr>)
 - 수련활동인증제, 종합정보서비스 등 / ☎ 02-730-0924~5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http://www.ncyok.or.kr>)
 - 청소년단체활동 관련 정보 / ☎ 02-2667-0471
- 한국청소년개발원(<http://www.youthnet.re.kr>)
 - 청소년수련활동, 전자도서관 등의 서비스 제공/ ☎ 02-2188-8888
- 청소년자원봉사센터(<http://youthvol.net>)
 - 청소년자원봉사소식, 봉사활동신청, 제언 및 센터 소개 등 제공 /
☎ 02-2188-8887
- 한국청소년상담원(<http://www.kyci.or.kr>)
 -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상담 및 자료 등 제공 /
☎ 대표전화 2253-3811, 상담전화 730-2000, 2231-2000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http://www.nyc.or.kr>)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 이용방법 등에 관한 상세정보 /
☎ 041-620-7700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http://www.pnyc.or.kr>)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 이용방법 등에 관한 상세정보 /
☎ 033-333-8830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http://www.youthnet.co.kr>)
 - 지역별·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 검색,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안전수칙 제공 /
☎ 02-720-9363
- 청소년인터넷방송국(<http://www.kybc.org>)
 - 청소년 자치활동 관련 정보
☎ 02-3704-9924
- 청소년동아리연맹(<http://www.kyca.net>)
 -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관한 종합정보 / ☎ 02-387-077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소년팀(<http://youth.unesco.or.kr>)
 - 세계의 청소년 관련 정보 / ☎ 755-1105
- 한국유스호스텔연맹(<http://www.kyha.or.kr>)
 - 유스호스텔 회원 가입, 청소년 여행정보 / ☎ 725-3031

청소년 국제교류

1. 국가간 청소년교류 현황 및 계획

1) 목 적

-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으로 세계 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
- 국가간 청소년교류를 통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 도모

2) 교류약정 체결현황

- 약정체결국 : 21개국 ('79~2005. 12월)
 - ※ 일본·중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몽골·인도·파키스탄·사우디아·이스라엘·모로코·수단·이집트·프랑스·헝가리·핀란드·러시아·체코·폴란드·칠레·멕시코·
- 체류기간 : 국가에 따라 최단 7일 - 최장 15일
- 교류인원 : 국가에 따라 3명 - 40명
- 비용부담 : 상호평등 부담원칙(파견국 : 왕복항공료, 초청국 : 체재비 부담)
 - ※ 일본과의 교류시는 초청국에서 왕복항공료·체재비 지원
 - ※ 베트남의 방한시 왕복항공료 추가 지원

3) 2005년도 교류실적

- 정부간 교류 : 17개국 총 4,608명(초청 2,222명, 파견 2,386명)
- 한·일 공동미래 프로젝트 3,481명(초청 1,450명, 파견 2,031명)
- 중국 청소년지도자 초청 : 970명

4) 2006년도 교류 실적 및 계획

- 정부간 교류 : 17개국 총 497명(초청 258명, 파견 239명)

- 중국 청소년 특별교류 : 초청 500명, 파견 100명
-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 168명
-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 : 139명
- 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 : 339명
- 아시아청소년초청 : 199명

5) 교류대상국 확대 추진계획

- 약정체결국 절반이 아시아권 편중으로 선진 유럽 및 대륙별 균형적 교류대상국가의 확대
- 약정 체결 협의 추진 중
 - 브라질,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캐나다 등 11개국

2. 국가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초 시행 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2005년 교류인원			2006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 (‘65)	‘79	15명 10일간 (2003년부터 연2회)	29	30	59	408	420	828
사 우 디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 위원회 합의(‘81)	‘81	10명10일간	10	10	20	215	215	430
일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15일간 (‘03년부터 30명씩) 초청국가 전액부담	29	30	59	542	636	1,178
중화민국 (중화전국청년연 합회)	양국수교시교류합 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 서(‘98)	‘93	20명 10일간 (98년부터 2회)	37	40	77	409	438	847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92)	‘93	15명 10일간	-	-	-	25	57	82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 계획서(‘95)	‘94	30명씩 기간 미명시	10	10	20	75	79	154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96	24명 10일간	-	-	-	83	90	173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 약정서(‘94)	‘96	15명2주간 (격년제)	11	10	21	36	55	91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96)	‘96	3명, 7명 격년 6일간	4	4	8	45	53	98
칠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 약정서(‘96)	‘98	20명10일간	5	10	15	6	27	33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 약정서(‘99) 제약정 체결(‘04)	‘99	20명10일간 (베트남 30명 초청시 한국측 전액부담)	30	20	50	212	138	350
몽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분야 협력 약정서(‘01)	‘00 사전 합의	10명10일간	10	10	20	64	64	128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 약정서(‘00)	‘01	10-20명 10일간	10	10	20	47	50	97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 약정서(‘02)	‘02	10-20명 10일간	10	10	20	30	37	67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2)	‘03	10-20명 10일간	-	-	-	-	-	-
체코 (교육청소년체육 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3)	‘04	10명10일간	10	10	20	10	10	20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 약정서(‘04)	‘05	10명10일간	5	7	12	5	7	12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04)	‘05	10-20명 10일간	10	10	20	10	10	20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 약정서(‘05)	‘06	10-20명 10일간	-	-	-	-	-	-
파키스탄 (교육부)	문화교류계획서 (‘05.9)	‘06	7명 7일간	-	-	-	-	-	-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양해각 서 (‘05.12.14)	‘06	10-20명	-	-	-	-	-	-
21개국				220	221	441	2,222	2,386	4,608

국가·연도별 정부간 청소년교류 현황

국가별	연도별	90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0까지 소계
말레이시아	초청	147('79~)	14	14	14	15	15	10	16	-	15	14	274
	파견	158('79~)	14	14	14	15	13	15	13	-	15	15	286
사우디	초청	97 ('81~)	-	-	10	-	10	9	10	10	10	10	166
	파견	97 ('81~)	-	-	10	-	10	10	11	10	10	10	168
일 본	초청	80 ('87~)	20	20	20	20	30	40	39	38	39	38	384
	파견	120('87~)	30	28	29	30	30	40	40	40	39	40	466
중 국	초청			-	20	20	20	20	20	20/20	20/19	20/19	218
	파견			21	20	20	20	18	20	21/19	20/20	19/20	238
헝가리	초청				10	-	-	-	-	-	-	5	15
	파견				10	15	-	12	-	-	-	5	42
러시아	초청					7	18	-	-	-	-	-	35
	파견					6	20	3	-	-	-	-	39

국가별	연도별	90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0까지 소계
필리핀	초청							17	17	-	-	10	44
	파견							24	16	-	-	10	50
모로코	초청							10	-	-	7	-	17
	파견							17	-	-	-	10	27
핀란드	초청							5	4	5	6	3	23
	파견							5	5	7	5	7	29
칠 레	초청							-	1	-	-	-	1
	파견							2	-	5	-	-	7
베트남	초청										20	20	40
	파견										19	20	39
몽 골	초청											14	14
	파견											15	15
계 ()안은 교류국가 수	초청	324	34	34	74	62	93	111	107	93	136	153	1,221
	파견	375	44	63	83	86	93	146	105	102	128	171	1,396
	합계	699	78 (2)	97 (3)	157 (5)	148 (6)	186 (5)	257 (10)	212 (7)	195 (5)	264 (7)	324 (10)	2,617 (12)

연도별 국가별		2000년 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말레이시아	초청	274	15	16/15	14/15	15/15	14/15	408
	파견	286	15	15/15	15/14	15/15	15/15	420
사우디	초청	166	10	9	10	10	10	215
	파견	168	10	10	10	7	10	215
일 본	초청	384	40	29	30	30	29	542
	파견	466	40	40	30	30	30	636
중 국	초청	218	19/18	19/19	20/20	20/19	37	409
	파견	238	20/20	20/20	20/20	20/20	40	438
헝가리	초청	15	5	-	5	-	-	25
	파견	42	5	5	5	-	-	57
러시아	초청	35	10	10	10	10	10	75
	파견	39	10	10	10	10	10	79
필리핀	초청	44	20	19	-	-	-	83
	파견	50	20	20	-	-	-	90
모로코	초청	17	5	-	3	-	11	36
	파견	27	-	10	-	8	10	55

연도별 국가별		2000년 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핀란드	초청	23	7	3	8	-	4	45
	파견	29	3	7	3	7	4	53
칠 레	초청	1	-	-	-	-	5	6
	파견	7	10	-	-	-	10	27
베트남	초청	40	30	30	30	52	30	212
	파견	39	20	19	20	20	20	138
몽 골	초청	14	10	10	10	10	10	64
	파견	15	10	10	9	10	10	64
멕시코	초청	-	10	10	9	8	10	47
	파견	-	10	10	10	10	10	50
이스라엘	초청	-	-	5	7	8	10	30
	파견	-	-	7	10	10	10	37
폴 란 드	초청	-	-	-	-	-	10	10
	파견	-	-	-	-	-	10	10
체 크	초청	-	-	-	-	-	10	10
	파견	-	-	-	-	-	10	10
수 단	초청	-	-	-	-	-	5	5
	파견	-	-	-	-	-	7	7
합 계 ()안은 교류국가 수	초청	1,221	199	194	191	197	220	2,222
	파견	1,396	193	218	176	182	221	2,386
	합계	2,617 (12)	392 (13)	412 (13)	367 (12)	379 (11)	441 (15)	4,608 (17)

※ 2005년도 교류약정 체결 국가 :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3개국)

- 2005년 이전에 체결된 국가중 교류가 되지 않는 나라 : 프랑스(1개국)

* / 친 부분은 1년에 2회 실시를 표시함

3. 취업관광프로그램(WHP) 청소년교류 현황

1) WHP 협정 체결국가 및 비자발급 쿼터 등

구 분	호 주	캐나다	일 본	뉴질랜드
협정체결일	'95.7	'96.1	'99.4	'99.5
비자발급쿼터	무제한	800명	1,800명	800명
비자발급연령	만18~30세	만18~30세	만18~30세	만18~30세

- 캐나다는 2005년부터 800명으로 증원 됨(2004년까지 500명)

2) 한국 청소년의 출국 및 외국 청소년의 입국 인원

(단위 : 명)

국가별 연도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1995	250	15	-	-	-	-	-	-	250	15
1996	999	52	50	-	-	-	-	-	1,049	52
1997	1,677	65	50	-	-	-	-	-	1,727	65
1998	1,479	35	50	-	-	-	-	-	1,529	35
1999	1,568	19	100	-	966	45	200	-	2,834	64
2000	1,438	25	100	0	973	287	200	4	2,711	316
2001	1,600	25	100	33	1,000	434	400	20	3,100	512
2002	4,305	67	100	41	1,776	665	400	24	6,581	797
2003	7,414	55	165	78	1,789	805	800	35	10,168	973
2004	10,000	27	100	166	1,800	916	800	27	12,700	1,136
2005	19,000	26	800	69	1,800	994	1,000	24	22,600	1,113
2006 (예상)	26,000	50	800	80	3,600	1,500	1,500	30	31,900	1,660
합계	75,730	461	2,415	467	13,704	5,646	5,300	164	97,149	6,738

※ 한국인의 해외출국 인원수는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비자 발급수로 대체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출국해야 함.)

□ 워킹 홀리데이 지원센터 운영

157-856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01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내

☎ 02-2667-0563~4 www.workingholiday.or.kr

4. 2005년도 청소년단체 청소년교류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주관기관(단체)	금 액	사 업 개 요		
			일 시	장 소	인원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중앙수련원등 11개단체	555,608	3월~12월	전국일원	1,048명
세계청소년뮤즈 페스티벌	노래의 섬	500,000	7.28~8.2	남이섬	32개국 30,000명
제9회걸스카우트국제 야영대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450,000	8.8~14	무주	19개국 10,959명
청소년광복군유적지 순례	장준하기념사업회	115,240	1.15~26, 7.6~16	중국	126명
교포청소년전통문화 체험	광복문화사업추진위원회	199,921	8.11~24	서울, 전주, 제주	90명
세계청소년자유독립 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조직위	80,000	8.5~10.31	서울, 남양주, 부산	590명
해외동포청소년초청 모국연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00,000	12.23~28 '06.1.6~12	서울, 경기, 경주	일본56명 러시아중앙아 86명
제1회고양국제어린이 영화제	(사)고양국제어린이 영화제	30,000	8.19~24	경기	12,000명
APEC청소년광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467	8.17~25	서울, 강원도	25개국256명
한중미래숲조성사업	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 센터	30,000	4.4~10	중국(북경,영하)	83명
한중청소년친선문화제	홍사단	23,000	7.31~8.7	중국 (북경, 연길등)	87명
제7회아시아공동체캠프	한국YMCA전국연맹	10,000	11.10~'06.2.25	일본	16명

사 업 명	주관기관(단체)	금 액	사 업 개 요		
			일 시	장 소	인원
'05년도청소년국제야영활동 파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6,295	10.22~30	필리핀	20명
농촌청소년글로벌문화체험	4H 운동본부	20,000	8.11~16	일본	22명
제15회대한적십자사해외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20,000	7.13~8.11	스리랑카	68명
제40차국제청소년캠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9,951	8.11~22	이천	22개국 125명
제2회대한민국청소년 영화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30,000	10.28~31	서울	3,200명
제2기연변청소년상담교사 단기양성과정	성지문화재단	30,000	12.26~'06.3.2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20명
제13회대학생금강산야영 대회	한국스카우트연맹	20,000	7.12~16	한국, 북한, 몽골	300명
국제청소년병영체험교류	한국청소년연맹	20,000	7.16~30	서울, 유럽, 미주	42명
제14회국제청소년해양축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34,987	7.26~8.4	통영	60명
제2회동북아청소년포럼	MRA한국본부	29,117	8.26~31	국립중앙수련원 국제청소년센터	70명
재일교포청소년들의 자랑스러운 모국을 찾아서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25,000	6.3~8	서울, 청주	22명
독서를 통한 정보문제해결 능력 가이드개발	국민독서문화진흥회	30,000	9월~12월	-	-
국제교류사후관리활성화	한국청소년교류진흥 협회	45,000	8월~12월	국제청소년센터	-
동아시아 청소년 영상문화 교류 심포지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7,000	10.29~30	서울	35명
연해주의 광복군을 찾아서	월성청소년수련원	28,000	10.7~12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30명
	계	405,350			103,418명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 현황

1. 현지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재 나라안팎의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다. 재외동포는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아래 국제교육담당관실에서 주로 맡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을 서울에 두고 있고, 9월1일 현재 재외 14개국 35곳에 한국교육원이, 15개국 24곳에 한국학교가 설치되어 해당지역 동포·주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공·사설 한글학교가 1,688곳에 설치되어 주로 주말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 국외 파견 공무원(교사~장학관)은 대사관·한국교육원·한국학교를 합쳐 1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쓰는 예산은 1999년 191억, 2000년 216억, 2001년 236억, 2002년 264억원 정도다. 이 정도는 한국의 작은 교육구청 한 해 예산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어문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쪽에도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문화원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네 곳에 두고 있고, 국내에는 국어연구원, 한국어 세계화 재단 등을 두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교류진흥재단을 두어 외국 대학들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거나, 동포·외국인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국외 봉사활동을 주로 한다. 민간단체로서 한국어 연구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 뚜렷한 활동을 벌이는 곳은 한글학회, 한글문화 세계화운동본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어정보학회 등이 있다.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건국대 등에서 설치한 어학당·어학원에서는 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의 상당수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강좌 및 한국어문학과를 두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특징이 있어 일괄하여 집계하기 어렵다. 다만 대학에 한국어문학과나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2002년 3월 현재 미국(102), 일본(120), 유럽(47), 동남아(25), 옛 소련(중

양아시아 포함 22), 오세아니아(10), 중국·대만(29/3), 중동(9), 캐나다·중남미(11), 기타(12) 등 모두 388대학으로 나와 있다.(문화관광부 ‘국어정책자료집’ 통계) 최근 현지 통계를 확인한 바로는 대학의 경우 일본은 200곳 안팎, 중국 36곳, 러시아·중앙아시아 44곳 등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500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한국어 역시 다른 외국어처럼 △전공 △선택필수 △선택과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또 새로 생기거나 폐강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2. 현지 능력 개발 프로그램(학비 지원 등)

□ 재외한글학교 지원(재외동포재단)

- 지원대상 : 재외한글학교
- 내용 - 재외한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

□ 중국·CIS 지역 장학금 지원(재외동포재단)

- 중국·CIS지역에 소재한 현지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조선족·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 대상 : 현지 주요대학 재학 성적 우수자,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

□ 해외 현지 연수(국제교육진흥원)

- 중국, 러시아, 북미,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재외 한국·한글학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10~12일 정도 실시.
- 연수 내용 : 한국어 교수법, 교재 제작 및 활용법,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KOSNET) 이용법, 모국수학과정 안내 등

□ 재외 한국학교 26개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교육부)

· 지원 배경

재외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통하여 해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 2005년부터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재외한국학교에 저소득층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기본방침

가정형편 곤란으로 인한 '06년도 미수납인원 비율,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체 재외한국학교 학생수의 4.6% 수준(400여명) 지원
정부지원 외 학교 자체 추가지원 유도

· 지원내용

- 지원인원 및 금액: 26개교 400명, US\$869,450(825,977천원)
- 지원기간: '07. 3~'08. 2('07학년도 4기분) - 지원범위: 수업료 및 입학금
- 지원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3.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 유럽입양청소년초청 교류(대한 YWCA연합회)

2002.6.24-7.12까지 20일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럽 7개국 입양청소년 40명은 한국어, 역사, 문화, 예절강좌, 친선교류회, 민박 등에 참여하고 문화유적지 답사 및 판문점 견학 등을 실시

□ 한·중국 동포 청소년 문화제(홍사단)

한·중국 동포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을 고취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증진하며, 민족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8.3-8.9까지 7일간 한국 청소년 및 지도자 217명과 중국 청소년 및 지도자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경기, 민속경연대회, 학예회가 개최.

□ 한·일 청소년 교류(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2002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재일교포 15명을 초청하여 서울, 경주, 청주를 돌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뿌리를 찾는 여행을 하였다.

□ 국제 한민족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설립한 청소년 종합 활동 시설이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해외 교포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국제한민족 캠프를 실시.

· 사업개요

- 기간 : 2007년 7월30일(월) - 8월4일(토) 5박6일간
 - 주관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소재)
 - 주제 : 한민족청소년 가치의 재발견(Rediscovery of Korean Youths Value)
 - 대상 : 해외교포 및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인원 : 총 80명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해외교포 청소년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내청소년
- 지원사항
- 국내참가자 및 해외참가자 : 참가비 없음

□ 국제교류 청소년 해병대 캠프(세계청소년한글캠프위원회)

· 기획의도

-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교포 2·3세대의 중요성 대두
- 한·재외 청소년간의 상호 문화적 교류의 필요
- 고국의 예절 및 역사 교육의 습득기회
- 교포 청소년간의 상호간 동료문화 형성
- 체험을 통한 한국문화의 자연스런 습득

- 대상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교포 2,3세 청소년(초등학교~대학생)
- 한국학생-초등학교이상 중,고등학생(청소년)

□ 세계청소년 한글캠프 KOREAN SPIRIT(㈜이슨/세계청소년한글캠프위원회)

- 1998년 1회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꾸준히 수정, 보완해온 행사로서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온 본 프로그램은 매년 참가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검증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페이,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약 30여 국가의 해외교포 2, 3세 및 외국 청소년(초중고 및 대학생) 이 어우러져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에 알리는 세계 청소년 한마당 축제인 '세계 청소년한글캠프'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한국어 교육, 역사 및 예절교육,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 체험, 안보교육 및 체험활동 그리고 해병대캠프를 통한 수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 한민족청소년이 함께하는 역사대장정(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KTF)

- 행 사 명 : “제2회 한민족청소년이 함께하는 역사대장정” 러시아 사할린 동포청소년과 함께하는 광복(光復) 역사현장 탐방
- 행사기간 : 2006년 8월 10일(목)~ 8월 15일(화)(5박 6일간)
- 행사장소 : 서울, 파주, 천안(아산), 공주, 순천(지리산), 통영(거제도) 일원
- 참가인원 : 총 50명 (대표단 40명, 관계자 10명)
- 러시아 사할린 동포청소년 20명 - 국내청소년 20명 - 행사관계자 10명
- 러시아 사할린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한민족청소년들의 연대 강화

- 현재 일본 및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역사 왜곡과 관련, 올바른 역사 수호를 위하여 전 세계 한민족청소년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하고 향후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한민족청소년의 유기적인 협력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최종적으로 전 세계 한민족청소년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여 시행

4. 능력개발 관련 기자재 및 교재 지원

□ 한글학교 보조교재 지원(재외동포재단)

- 재외한글학교의 한국어교재로 제공되고 있는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공급)의 보완이 가능한 한글비디오, 그림사전, 낱말카드, 그림동화책 등의 보조교재 제공
- 기제공 교재에 대한 수혜자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 지원

□ 민족학교 지원(재외동포재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국, CIS지역 민족학교
- 지원품목(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교육기자재, 복사기, 책·결상 등 교육기자재)
- 사업추진일정
- 2월 : 기본사업계획 수립
- 4~5월 : 중국 및 CIS 지역 민족학교 수요조사 실시 및 신청 접수
- 6월 : 자료정리 분석 및 지원계획 수립
- 7월 : 지원

- 11~12월 : 집행결과보고서 접수, 취합
- 12월 : 사업평가 및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민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민족교육 유지, 지원
- 한민족 정체성 유지·지원

□ 재외동포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교육인적자원부)⁴¹⁾

□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한국교육과정평가원·위탁)

- 목적 : 재외동포의 현지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 보급 및 수요자 중심의 교재 개발·보급으로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
- 개발·보급 내용
 - 교재개발 : 2종 - 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7, 8 (개발기간 : 2006~2007)
 - 지원대상 : 한국학교(26개교) 및 한글학교(2,033개교), 한국교육원(35개원)
 - 보급수량 : 590천여권 (교과서 468천권, 교재 122천권) (2006 : 586천권)
 - 보급시기 : 1~2월 및 7월경 (연 2회)
 - 중점추진내용 : 교사·학습자 중심 교재 개발 내실화 및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적기·전량 공급

5. 능력개발 관련 교사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재외동포재단)

- 지원대상 : 한글학교협의회
- 내용 :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강화를 지원을 위해 지역별 한글학교협의

41) 교육인적자원부(2005).

회 등이 주최하는 현지 교사연수 지원

□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 연수(재외동포재단)

- 기간 : 8.16(목) ~ 23(목) (7박8일)
- 인원 : 60명(미주, 아시아, 구주, CIS, 아프리카 지역 등)
- 연수내용
 - 학교경영, 교수법, 리더쉽, 한국의 역사 등 직무수행 관련 강의
 - 교수법 및 운영실태 등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사례발표, 토론
 - 현장학습(한국 문화체험 등)

□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초청 워크숍(재외동포재단)

- 기간 : 8월경 <3박4일>
- 인원 : 7명(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 내용
 - 북미지역 연수회와 연계 시행
 -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개발 관련 토의 및 방향 설정 유도
 - 한국어교육자 역량강화 방안 도출 등

□ CIS지역 한국어 교수 초청 연수(재외동포재단)

- 기간 : 7.2(월) ~ 27(금), <4주>
- 인원 : CIS지역 한국어교사 28명
- 연수내용
 - 한국어 교수법, 회화 등의 한글교과목 교육과 현장학습 활동, 역사 및 문화체험, 국내학교 견학

□ 재외동포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국제교육진흥원)

- 연수 과정 : 재외 한국학교 현지 교원 초청 연수, 중국인 동포교육 관

제자 초청연수, 영어권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중앙아시아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등 4개의 과정

- 목적 : 재외 한국학교 현지 교원 초청 연수는 한국학교 교원들의 동포 교육 소양과 교과지도 능력을 제고하고,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모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재외동포 자녀교육 담당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것. 나머지 세 개의 동포 교육 관계자 연수는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동포 학생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설.

6. 원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재외동포 사이버 한국어강좌 개발, 운영(재외동포재단)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단계별 학습 콘텐츠 제공
- 한국어 학습과 함께 모국의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정보 사이트로 역할 수행
- 한류드라마, 재외동포 만화가의 만화 일기 등을 콘텐츠로 활용, 학습 참가자의 흥미 유발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인터넷(KOSNET)에 의한 한국어 학습(국제교육진흥원)

-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인터넷에 의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인 KOSNET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진흥원의 주관 하에서 2002년부터 실시.

* KOSNET : 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 www.kosnet.go.kr

- 목적 :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유학생유치 확대 ·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및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
- 중점추진내용

- 온라인 학습용 콘텐츠 제공 : 사전평가, 자모연습, 4단계 60단원의 한국어 학습, 형성 및 총괄평가 등 탑재
- 오프라인 학습용 CD 수시 보급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2006 : 일본어, 스페인어 각 2,000부 신규 제작)
- KOSNET 학습 및 지도교재 개발(영어권) 추진
- 초급자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학습교재 개발 및 탑재
- 지도교사용 교재 개발 및 탑재

□ TeenKorean 한국어 학습 사이트

- 외부무 산하 기관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Teenkorean 한국어 학습 사이트.
재외동포재단이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연세대 교수)와 함께 영어권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원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한국어 강좌Teen-Korean(www.teenkorean.com)을 개발하였음.
- 주요 특징
- 재외동포 2,3세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국 문화 및 모국어 학습기회 제공
- 딱딱한 문법학습이 아닌 가족, 친구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 중심의 학습
- 학습자 중심의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한국어 학습
- Q&A를 통해 학습자와 개발자간의 쌍방향 질의, 응답 가능
- 온라인을 통해 직접 숙제 제출하고 본인의 성적을 확인 할 수 있음
- 게임방식을 적극 활용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유도

□ 한민족 교육마당(한국교육학술정보원)⁴²⁾

구분	내용 및 특기사항
재외 한국학교 현황 정보	· 각 지역의 한국학교 현황조사 자료를 지도와 매핑시켜 상세한 정보제공 - 학교 주소 및 연락처, 학생 및 교원수 현황 - 학교 역사 및 교육 목표 - 학교교육 과정 및 교육활동의 특색 안내 · 해당 학교별 담당자 1인 지정 운영으로 상시 갱신 및 자율 운영 체계 확립
학급교류 프로젝트	· 재외 한국학교, 국내학교 간의 학급간 교류 프로젝트 신청 · 재외 한국학교, 국내학교 간의 학급간 교류 아이디어 제안 · 에듀넷 학습방 연계로 학급간 교류 학습 온라인 톨 제공 - 현재 동경한국학교와 미산초등학교의 온라인 프로젝트 학습 ‘한일 온라인 사이버 박물관’ 운영중(5학년 2개반 교류중)
에듀넷 교육정보 통합검색	· 학교급, 학년,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콘텐츠 제공
학습자료실	·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해외 지역자료로 구분하여 자료 공유의 장 제공 · 개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노하우 공유
이야기마당	· 학교소식, 해외지역 소식 공유의 장 마련
포토갤러리	· 개별학교의 생생한 학습활동 현장 공유

한민족 교육마당은 재외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현황 조사를 토대로 재외 한국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자료 및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의 발전적 기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위의 표는 2005년 9월 현재 한민족 교육마당의 서비스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4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이슈리포트 「e-러닝 세계화 발전 방안-주요 이슈 및 전망」.

□ 국내·외 사이버 대학 연계 지원

-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중 “비전통적과정의 운영을 통한 고등 교육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⁴³⁾ 연계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본 과제는 한국학(역사, 지리, 문화, 사회 등)과 여성학(페미니즘, 여성과 일, 인권, 리더쉽 등) 관련 5개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여 이화여대가 국제교류 중인 세계 104개 대학 중 사이버 학점교류가 가능한 세계 30여개 대학(미국의 Rutgers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 등)에 제공할 예정(사이버교육기관의 운영)이다.)
- 사이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H/W 개발
- 사이버강의 운영 프로그램 등 S/W 개발

□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원격직업훈련교육 지원

- 한국에서 개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직업훈련을 한민족청소년들에게 보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 원격 화상 직업훈련 및 인터넷 무료 교육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다른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받지만 화상을 통해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음.
- 주부나 고령자 재취업 과정, 부동산 경매나 공인 중개업, 외식업이나 소점포 창업 등 15개 과정이 개설돼 있고, 교육비는 무료.
- 인터넷 무료교육은 기계나 전기 전자, 정보처리, IT분야 등 모두 460여개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이론을 배운 후에 실습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이나 위성교육을 위한 장비 시설이 부족하고 지원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서는 추후 지원이 가능해 질 때까지 CD-ROM를 이용한

43) 신익현(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격직업훈련교육 추진

□ 위성통신 교육 지원

· 한민족청소년 위성통신교육 프로그램 지원

에듀넷 교육방송 서비스 44)

에듀넷 교육방송서비스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위성 교육방송의 내용을 교육 정보종합시스템인 에듀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일방향의 일회성인 위성 교육방송의 단점을 보완하여 통신상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위성 교육방송의 전자화된 자료는 사이버 학습교재 및 각종 학습관련 DB와 연동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방송내용 및 학습 도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에듀넷 교육방송 서비스는 크게 주문형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형성평가 및 해설 서비스, 질의/응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① 주문형 서비스 : 위성 교육방송 1,2TV에서 방영하고 있는 14개 교과목 중 고교 중급영어에 대한 방송 내용과 방송에 사용된 교재의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교재 내용을 동영상과 동기시켜 해당 내용이 동영상으로 제시될 때, 함께 관련 교재 내용이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② 실시간 서비스 : 위성 교육방송 1,2TV의 위성 수신장치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가정의 전화 회선 등을 이용해서 컴

44) 참고로 1998년 12월까지 제작된 주문형 위성 교육방송 서비스는 전체 114개 강좌이며, 디스크 할당 용량은 대략 4GB에 해당한다. 하나의 강좌는 비디오 스트림과일이 대략 26MB, 오디오 스트림파일이 대략 6MB, Sync되는 전자화 자료들을 포함하여 모두 합하면 4GB정도가 된다.

퓨터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매일 방송시간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③ 형성평가 및 해설 서비스 : 방영 내용 중의 중고교 국어,영어,수학의 형성평가 및 해설 내용을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전자화하여 직접 웹 화면으로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서비스이다.

④ 질의/응답 서비스 : 방송된 내용이나 개인적인 학습과정 중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장에 계신 교과별 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 학습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 상호간에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성통신교육을 위한 기자재, 교재 지원
- 현재 서비스 중인 무궁화 위성의 방송·통신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위해 기술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극동 아시아에 진출한 재외동포의 위성 사이버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무궁화 2,3호 위성의 빔 커버리지 확대로 인한 외국과 공동 서비스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 수행 필요

7. 문화예술 분야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문화네트워킹 지원

□ 서울예술제(재외동포재단)

- 역량 있는 재외동포 공연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국내관객 대상 재외동포예술제 개최

- 초청인원 : 재외동포공연예술인 10개팀 내외

□ 한민족 문화공동체 대회(재외동포재단)

- 특정 분야 재외동포 문화예술인을 초청, 국내 및 재외동포 인사들 간의 교류를 통한 교류협력방안 모색 및 한민족 문화네트워크 기반 구축
- 초청인원 : 재외동포문학인 30명 내외
- 기대효과
 - 재외동포 문화예술인적 자원 발굴 및 내외 동포간 상호 이해 제고
 - 국내외 동포 문화예술인간의 교류 협력 확대

□ 문화예술진흥사업(재외동포재단)

- 문학공모사업
 - 재외동포 대상 문학 공모 및 시상(체험수기)
 - 영화공모사업(영화인대회)
 - 부산국제영화제 내 AND/PPP 재외동포재단 펀드 시상
 - 재외동포 영화인대회 시행
 - 시상식 :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시행
 - 수상자 : AND/PPP펀드 각 1명
- (예술계에 재능이 있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에 활용)

□ 문화예술교류사업(재외동포재단)

- 문화예술단 파견 및 특강
 - 재외동포 사회의 한국 관련 축제 또는 계기성 행사시 공연단 파견
 - 차세대 동포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문화의 체험 및 습득 기회 제공,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재외동포 거주국에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가 가능한 전문가 파견 특강 시행

- 민족문화보존 유지활동 지원
-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재외동포사회의 한민족문화 보존 유지 지원
- 문화용품 구입지원
- 재외한글학교,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에 전통문화예술 활동과 학습에 필요한 문화용품 지원

8. 모국 단기방문 지원 관련(모국 문화체험)

- 국외 입양동포 모국 문화 체험연수(재외동포재단, 국제교육진흥원)
 - 사업대상 : 18세 이상 국외입양인 or 해외입양기관 관계자
 - 참가인원 : 약 30명
 - 연수내용 : 문화체험, 안보건학, 특강, 분임토의, VIP예방 등
- 국외입양동포 자생단체육성 지원(재외동포재단)
 - 사업대상 : 국외입양인 자생단체 활동 및 행사, 국외입양인 후원활동
 - 주요사업
 - 단체의 모국어학습 활동 지원 (모국어학습, 문화체험 및 종합Camp)
 - 단체의 민족정체성 형성 활동 지원
(상호교류활동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 자생단체 워크숍 및 포럼 등)
 - 국외입양인 예술가활동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 지원
 - 제4차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지원 (2007 Gathering 4)
-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4개 국외입양전담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 대상사업 : 모국방문 및 모국어연수사업

□ 차세대지도자워크숍(재외동포재단)

- 사업명 : 제10회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
- 기간 : 9월 <6박7일간>
- 대상 : 10개국 25명의 차세대 정치인, 차세대단체 대표자
- 내용 : 국내 정치분야 차세대와 교류, 토론 및 발표, 역사탐방, 산업 시찰 등

□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재외동포재단)

- 사업명 :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 모국연수
- 목적: 재외동포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차세대의 리더쉽 함양
- 기간 : 7.16~21 <6박7일> 15일 입국, 체크인
- 대상 : 만15세이상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 총 120명
- 내용 : 한국전통문화체험, 산업시찰, 한국역사문화탐방 체험, 분단의 현장 방문, 한국어교육, 특강

□ 국제교육진흥원 계절제 교육과정(국제교육진흥원)

- 목적: 재외동포의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빛나는 얼과 역사·문화를 알게 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참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인 으로서의 자부심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여 모국의 발전에 동참하게 하는 것.
- 교육기간 :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5주 과정의 교육
- 교육과정 : 재일동포 대학생 춘계학교(10일, 72명), 독립국가연합지역 및 중국 지역 동포 대학(원)생 초청 연수(10일, 36명), 재외동포 학생 하계학교(10일, 66명), 재일동포 중·고생 하계학교(10일, 109명), 중남 미·대양주 동포 학생 동계학교(5주, 100명) 등이 있다(괄호 안은 교육 과정 기간과 2002년도 과정 참가자 수).

□ 해외교포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체험(전주시, 2006겨레문화창의단)

- 해외교포 청소년을 선발, 초청하여 한국의 역사·사회·문화·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외동포 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겨레문화에 대한 공감과 교류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모국 체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현지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 내용
 - 한국사회문화체험 :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월드컵 경기장 방문 등
 - 전통문화체험 : 전통음식, 한지공예, 판소리,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체험

□ 대학 동포학생 모국 연수(전국 11개 대학)⁴⁵⁾

서울과 지방의 일부 대학들이 학교홍보와 우수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모국 연수프로그램에 재외동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외국의 중·고·대학생에게 한국어를 비롯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을 가르치며 주요 관광명소 탐방과 전통예절, 태권도, 서예 등의 고유문화를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 9일 현재 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은 서울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지방의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 명칭은 여름학교 혹은 문화학교이며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방학 중 일정기간을 활용한다. 올해는 특히 부산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며 연세대, 고려대는 외국대학에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하계대학을 운영한다. 모국연수프로그램 취지와 관련, 고려대 청소년 여름학교 관계자는 "동포 자녀의모국 체험연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는 기본 취지와 함께 학교 홍보, 우수학생 유치라는 목적이 있다"며 "학기초여서 아직 문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별 참가자격, 기간, 교육내용, 비용 등 모집방법과 세부일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다.

45) 연합뉴스(2002.4.9)

9. 모국초청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산업자원부,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 개요 : 교포 2~4세대를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무역 인적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도 '차세대 무역스쿨'을 7~8월에 걸쳐 국내와 상파울루 상해 등 해외 25개 도시에서 실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거점과 한민족 무역네트워크로 차세대 무역인 1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하에 2004년부터 해외교포 무역스쿨을 정부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 교육내용 : 무역실무 교육, 세미나, 병영 체험, 현지 대학교수와 무역 전문가로부터 무역개론, 한국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전략 등을 배움.
- 차세대 무역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전문지식
- 한민족이 가져야 하는 인성교육
- 국제 무역인으로 필요한 기본 예절과 협상 기술 교육

□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 국내직업훈련(재외동포재단)⁴⁶⁾

- 인원 : 30명(고졸이상 35세 미만의 미취업 멕시코 한인후손)
- 선발 : 한인후손회, 기념사업회, 한인회 등의 추천자 대상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서류심사·면접 선발
- 기간 : 6개월
- 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선정
- 연수과정
- IT기술, 자동차정비, 전자제품수리, 용접·배관 등
- 비즈니스 한국어, 산업시찰, 한국문화 체험 등
- 해당분야 인증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취업률 제고

46) 보도자료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2261752000259>

□ 글로벌한인기술경영인대회

- 사업명 : 글로벌한인기술경영인대회
- 기간 : 7월 <5박6일간>
- 대상 : 40대 이하의 기술기반 경영인, Venture기업인 등
- 내용 : 국내 우수기업 방문(시설견학), 국내 CEO, CTO 등 초청강연, 국내 청년기업인과의 만남 등
(실무 경영인, 기업인 뿐만아니라 한민족청소년들에게 인턴쉽 제공)

□ 사할린동포 IT 직업연수(재외동포재단)⁴⁷⁾

- 사할린동포 청년 대상 IT연수로 전문직 취업 기회 확대
- 인원 : 30명
- 기간 : 7~12월 <6개월>
- 내용 : IT 연수 및 한국문화체험, 취업지원 등
- JAVA 프로그램 양성과정
- 네트워크 관리자 양성과정
- 비즈니스 한국어 연수, 한국문화체험, 취업지원 등

□ 재중동포 IT 직업연수(재외동포재단)

- 재중동포 청년 대상 IT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브리지 인력으로 활용
- 인원 및 대상 : 80명(1회 40명),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중 자질우수 미취업 재중동포
- 기간 : 2007.7월(상반기), 9월(하반기), 1회 16주간
- 내용 : IT, 경영, 기초영어 교육 등
- IT과정 : 사무자동화, 홈페이지 작성, 컴퓨터 진단 및 네트워크 관리 등
- 일반과정 : IT 전문영어, 비즈니스영어, 무역실무 등

47) 보도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274341§ion_id=102&menu_id=102

□ CIS지역 동포 IT 직업연수(재외동포재단)

- CIS지역 청년동포의 전문직 진출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 브리지인력 양성
- 인원 : 30명(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 기간 : 8~11월 <4개월>
- 내용 : IT 관련, 페이지 작성, 컴퓨터 진단 및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래밍 등 전문기술, 교양강좌(한국어, 한국문화 등), 산업시찰

□ 중남미 지역 동포 IT 직업연수(재외동포재단)

- 섬유산업 위주의 중남미 동포사회 산업구조의 체질개선,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인원 : 30명(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 기간 : 2007.8~11월(4개월)
- 내용 : IT 관련 컴퓨터 진단 및 네트워크 관리 등 각종 전문기술, 무역 및 경영, 사업시찰 등

□ 한민족 청년 과학도 포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해외 10개국에서 이공계를 전공하는 재외동포 2~3세 대학생 100명이 한국에 모여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이다. 미래가 촉망되는 전 세계 한인 청년 과학기술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불리는 21 세기를 조망해보고 우리 민족과 21 세기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Forum 에 참가하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은 각기 다른 국적을 갖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Forum 은 내외동포간에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안목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외국에서 참가하는 해외동포 과학기술학도에게는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Forum 에서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과학기술관련 한인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울러 사이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될 것이다.

□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전문 인재 발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은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The Future Leaders' Conference)'을 개최하여 정치·경제·사회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를 발굴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들이 상호 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 한민족청소년의 방학 등을 이용하여 단기 일자리 제공

10. 한국 내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대학원(석·박사)과정 지원(재외동포재단)

- 세계 각 지역 재외동포 대학·대학원생 중 우수생을 선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 이수기회 제공
- 대학원(석·박사) 과정 : 석사 24개월, 박사 36개월
- 지원내역 : 생활비, 보험료, 어학연수비(6개월), 왕복 항공료

□ 모국수학 재외동포 장학사업(재외동포재단)

- 자비로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성적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 · 대학원생의 수학여건 지원
- 대상 :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재정사정이 어려운 자

11. 어학연수 지원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재외동포재단)

- 대상 :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으로서 재정사정이 어려워 수학에 문제가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
- 지원기간
- 한국어 어학연수과정 : 6개월

□ 국제교육진흥원 장, 단기 교육과정(국제교육진흥원)

- 장기 교육과정
- 목적 : 모국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의 구사 능력을 배양, 한국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한민족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자긍심 높은 세계인을 육성하는 것.
- 교육기간 : 약 9개월
- 교육대상 : 국내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서 입국한 재외동포 학생
- 단기 교육과정
- 목적 : 재외동포에게 능력에 따른 한국어 구사력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예절을 익히게 하며, 조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
- 교육기간 : 12주
- 교육대상 : 재외동포로서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주기전여자대학 한국어OA과(기전여대)

-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한국어OA과>가 정규대학 학과로 정식 개설되었습니다. 정규대학 내 학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어학원(Language School)을 다니지 않고 바로 입학하여 한국에서의 학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주기전여자대학 <한국어OA과>는 외국인 및 우리말을 모르는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중점 교육하고 아울러 우리말, 우리글로 된 컴퓨터OA(Office Automation)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과정 : 정규과정 (2년제) - 학위증 (졸업장) 2.단기과정 (6개월, 1년)- 수료증 certificate

12. 인턴쉽 제공

□ 국내기업 동포인재 인턴쉽(신문기사)⁴⁸⁾

- 국내 대기업인 KT, 한국투자증권, 현대기아자동차,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우수 재외동포 인재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한국투자증권(www.hantutams.com)은 MBA 인턴쉽 및 정규직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미국, 영국, 중국을 포함한 해외 경영대학원(MBA) 출신자 또는 해외 대학 석사이상으로, 인턴쉽은 2008년 졸업예정자, 정규직은 2007년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인턴쉽은 전형 서류전형, 전화 인터뷰를 거쳐 인턴쉽 대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6월 11일부터 8월10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최종 채용여부는 인턴쉽 마지막 주에 면접을 통해 결정된다. 정규직은 서류

48) <http://kr.blog.yahoo.com/dreamkid94/96>

전형, 전화 인터뷰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하고, 오는 6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여의도 본사에서 최종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인턴쉽과 정규직 최종 합격자에게는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준다.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KT(www.kt.co.kr)는 해외 IT인턴쉽과 우수인재 채용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해외 우수인재 채용은 해외학사 이상 취득자로 학위취득 국가 언어에 능통하고, 내년 8월까지 입사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면접 장소를 지정해 임원면접을 치른다. 면접은 해당국가 언어로 전공 또는 관심분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형식으로 이뤄진다. 모집분야는 크게 R&D, 경영지원 분야이며, 미래기술, 마케팅, 해외투자전략, 재무 등 세부 분야로 나뉜다. 채용 홈페이지(recruit.kt.c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현대기아자동차(www.hyundai-motor.com)는 오는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연구개발, 전략기획, 생산개발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응시자격은 신입은 해외 대학 석사학위 취득 및 취득예정자, 경력은 국내외 4년제 대졸자로 해외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지원 가능하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로 이뤄지며 지원은 온라인에서 지원서류와 함께 최종학위 논문 요약서나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금호아시아나그룹(www.kumho-asiana.com)은 오는 19일까지 기획, 재무, 마케팅 등 각 부문 해외경력자 및 해외 MBA출신자를 모집한다. 전 계열사 법무부문의 경우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자여야 지원 가능하며, 각 계열사와 직무에 따라 해외 MBA출신 등의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 접수해야 한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처우협의 등이 있으며, 홈페이지(kumhoasiana.career.co.kr)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받는다.

□ 서울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서울대학교)

-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Inc.)이 우수한 한국인 및 재외동포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통해 세계화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2003년부터 실시해 온 하계 연수 프로그램이다. 1인당 교육비는 2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그 중 학교에서 50%를 지원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 2학기 이상의 학부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년 4월에 신청 접수를 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6월 초에 대외협력본부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후 7월초부터 2주간 미국 Washington, DC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 온라인을 통한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 많은 국내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국내기업의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통신원격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인턴십 과정 콘텐츠 개발, 제공

□ 차세대단체활동 지원 및 DB구축(재외동포재단)

- 대상 : 49세 이하 청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 지원
 - 미국·일본 등 선진국 : 주류사회 진출 청년단체의 네트워크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 중국·CIS지역 등 :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자생적 활동 지원
 - DB구축 : 주류사회 기진출 한인차세대 DB를 적극적으로 확보 · 구축하고,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주류사회 진출 재외동포 차세대의 DB 확보

- 재외동포 차세대와 국내 차세대간의 인적교류를 비롯한 네트워크 추진을 통해 세계속 한민족의 위상을 강화
- 낙후지역 재외동포사회 청년들 대상으로 첨단 기술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국내 경제활동 강화

□ 한민족청소년 인터넷 문화공동체 형성⁴⁹⁾

- 한민족청소년의 사이버 활동 지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지원의 대부분은 어학에 관련 된 것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의 통로를 이용하여 한민족으로 연대감을 높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만들.

- 저개발국 및 저소득층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PC보내기
- 저개발국 해외 한민족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립

□ 해외 청소년 창업 지원⁵⁰⁾

- 미래의 예비 창업자인 해외청소년(대학생)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교육 사업을 전개
- 벤처창업 스쿨 운영
- 지역별 창업 경연 대회 진행

□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⁵¹⁾

이 회의에서 아태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

49) 참고: 김병선, “한민족 인터넷 문화공동체의 형성방안,” 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117호,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3.8

50) 참고: 신익현(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1) 아태 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회의 보고서 및 베이징 선언(1999) 발취

의 특별 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 보건, 고용, 참여의 네 분야로 나누어 워크숍을 가졌다. 주제 영역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

-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의 증진
- 중등·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의 질적 개선

<보건>

-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 보건의 증진
-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 착취의 척결

<고용>

- 직업세계를 위한 청소년들의 준비
- 청소년 교육·기술과 취업과의 연계

<참여>

- 청소년 참여지표(YPIs)의 개발
- 국가의 청소년 협조체제 강화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적용>

- 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도입, 강화
- 청소년들의 요구평가 조사를 통한 선택적인 진로, 직업 탐색 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 진로교육 및 카운슬링에 관한 지도자 양성과정의 개발과 시행
- 진로교육과 직업지도 및 카운슬링을 위한 교과과정과 학습용구의 개발
- 청소년의 자가 영업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부문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훈련, 교사와 지도자들의 교환 프로그램 및 정보의 공유
- 원격교육기술과 교과과정 등에 관한 국가 간 경험의 공유
- 청소년의 소득 유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회전기금의 설립

- 한민족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 한민족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 모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 문화를 경험하며 모국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보호 정책의 구현⁵²⁾

- 청소년들의 삶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해환경들을 정화 및 건전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약물 방지 및 심신건강 증진(특히 외국의 경우 마약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및 개선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확대 및 교육
- 청소년 보호 운영 활성화 추진
- 재정 확보

□ 한민족청소년 평생학습 체제 구축⁵³⁾

-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훈련
-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
- 평생교육은 개인의 가치실현, 직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의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연계, 교육투자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중,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한민족청소년 평생학습 정책 수립 필요
-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제의 구축 필요

52) 참고.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3) 참고. 신익현(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무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규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 서덕희 · 이은하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해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6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14-7(93330)